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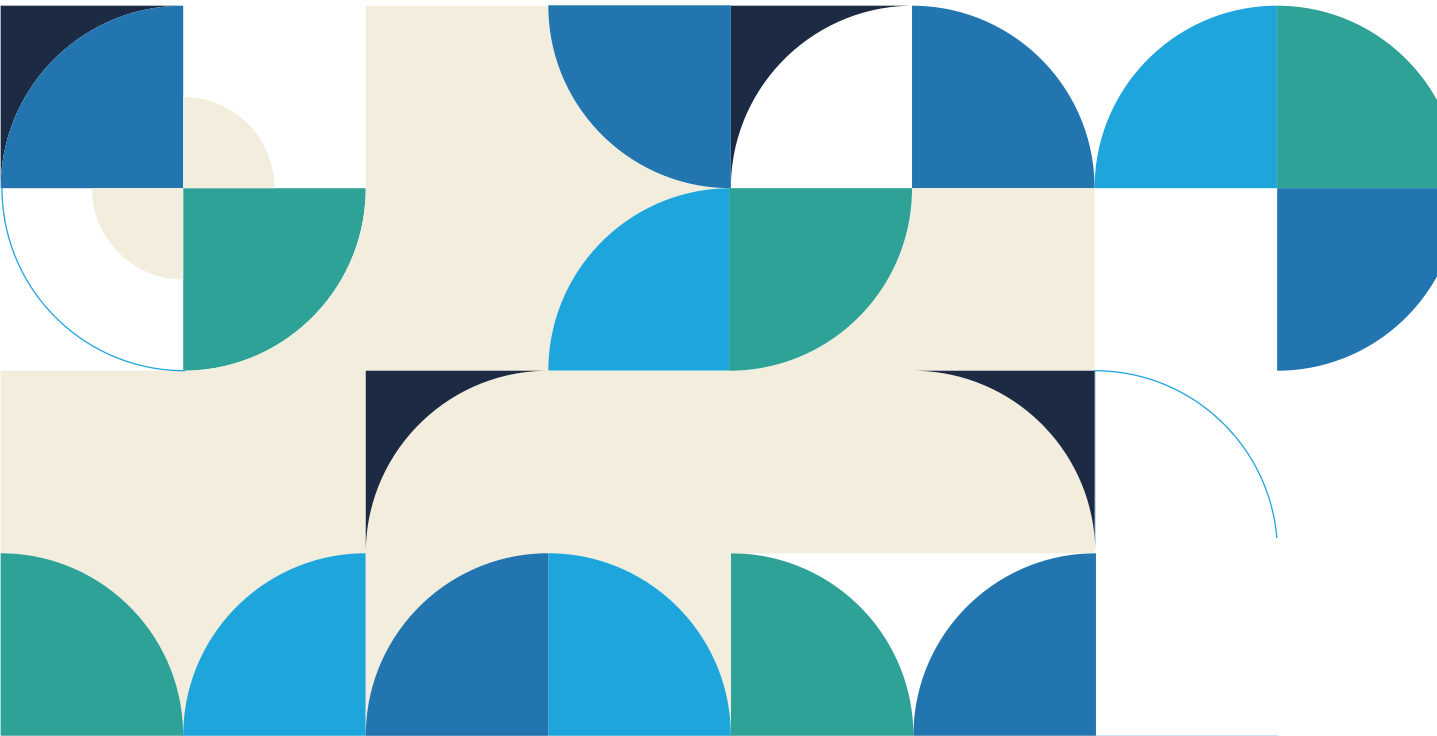
11-1620000-000794-10

2020년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20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94-10

2020년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

2020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2020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202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11. 30

수행기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연구용역수행기관 결과물을 기초로 한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목 차

01. 2020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총괄보고	1
1. 사업개요	3
2. 세부사업 추진내용	5
02.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 설문조사 결과	13
- 참조1. 공통주제 설문지	48
03.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59
- 강원1권역	61
- 강원2권역	87
- 경기1권역	93
- 경기2권역	100
- 경기3권역	123
- 경남권역	139
- 경북권역	156
- 서울권역	172
- 전북1권역	179
- 전북2권역	186
- 제주1권역	190
- 제주2권역	215
- 충남권역	226
- 충북권역	236
04. 제언	243
05. 부록	249
- 모니터링단(LENS) 월별 활동 보고서(사례)	251

01

2020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LENS 총괄보고

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강화함을 바탕으로, 인권 의식을 함양한 민주적 세계시민을 양성한다.
- 아동권리협약(CRC) 및 UN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권해에 입각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권리주체인 아동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사회적·국가적 아동권리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의 아동권리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사업기간

- 2020.05.25.~2020.11.30. (6개월)

3) 참여대상 및 활동지역

- 참여대상 : 만10세 이상 18세 미만 전국의 모든 아동
- 활동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4) 모니터링 주제

- 공통주제 :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 권역주제 : 권역별 선정

5)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LENS(Lens of children)’

- 아동들에게 모니터링활동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고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LENS’라는 별칭 사용
-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관점(Lens)으로부터 출발
- 능동적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6) 수행 내역

일정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세부 내용
6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계획 및 자료 제작 ● 자문팀 구성 및 회의진행 ● LENS 모집 및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모집 : 6.24(수)~7.19(일) - 선정결과 : 7.20(월) ● 코디네이터 모집 및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모집 : 6.24(수)~7.8(수) - 선정결과 : 7.14(화) 	<p>[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 각 지역 시도 교육청, 아동친화도시 협력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홈페이지 및 SNS 홍보(포스터, 카드뉴스, 영상) <p>[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8(토) 10:00~17:00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p>[사업소개 및 활동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소개 및 코디네이터 역할 안내 <p>[아동인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해 - 공통주제 관련 아동인권교육 진행 <p>[모니터링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례강의 - 2018년도 코디네이터 사례발표 <p>[공통주제 체크리스트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주제 체크리스트 검토 및 코디네이터 의견수렴
8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모니터링 발대식(14개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토)~16(일) - 권역별 진행 ● 권역별 모니터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토)~10.31(토) ● 공통주제 체크리스트 개발 및 조사 	<p>[발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인권교육, 권역별 공통주제&세부주제 논의 - 모니터링 활동계획 및 논의 <p>[모니터링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공통주제&세부주제 모니터링 활동 - 공통주제 체크리스트 조사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인권 보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23(월) 10:00~12:20 / 프레지던트호텔 ● 사업평가 및 결산 	<p>권역별 모니터링 활동 내용 공유</p>

세부사업 추진내용

1) 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 2020. 06. 24.(수) ~ 07. 19.(일) 24시까지
 - 심 사 : 2020. 07. 19.(일) ~ 07. 20.(월)
 - 결과발표 : 2020. 07. 20.(월)
 - 선정결과 : 총 131명(일반아동, 이주배경아동, 아동친화도시 참여위원회 등 포함)
- * 신청인원 145명 중, 활동신청서 및 지역별 나이대를 고려하여 최종선발

권역	서울	경기 1	경기 2	경기 3	강원 1	강원 2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1	전북 2	제주 1	제주 2	합계
모집	9	11	9	6	14	6	7	12	12	14	11	2	12	6	131 (명)

* 일반아동, 이주배경아동, 아동친화도시 참여위원회 등 포함

2) 코디네이터 운영

2-1) 코디네이터 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 2020. 06. 24.(수) ~ 07. 08.(수) 24시까지
 - 결과발표 : 2020. 07. 14.(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선정결과 : 총 14명
- ※ 아동참여위원(4인), 회원단체 지역 실무자(2인), 아동인권에 관심있는 대학(원)생(5인), 교사(1인), Lens유경협자(2인)

2-2)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20. 07. 18.(토), 10:00~17:00
- 장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층 회의실
- 인원 : 총 24명(코디네이터 14명, 강사 4명, 연구진 2명, 실무자 4명)
- 내용 : 기관 및 사업 소개, 아동인권교육 및 사례발표, 주제 토의
-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09:30~09:50	참여자 확인
10:00~10:30	개회
	기관 소개
	사업 소개 및 활동방법 안내
10:30~12:30	아동인권교육
12:30~13:30	점심식사
13:30~15:00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례 - 국내 및 외국의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 -
15:00~15:40	코디네이터 사례발표(2018년)
15:40~17:00	토의 및 정리(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17:00~17:20	정리 및 마무리

3) 권역별 발대식 개최

- 기간 : 2020. 08. 01.(토) ~ 2020. 08. 16.(일)
- 내용 :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 아동인권교육, 공통주제 논의, 권역별 주제 논의, 모니터링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10분	참석자 확인 및 코로나19 예방조치
30분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
50분	아동인권교육
40분	공동주제 논의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40분	권역별 토의 권역별 주제 선정 및 체크리스트 제안
30분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10분	폐회 및 정리

• 권역별 발대식 진행

권역	날짜	장소	참여인원
서울	8월15일(토)	토즈(서울대입구역점)	총 8명(아동6명, 코디 1명, 실무자1명)
경기1	8월08일(토)	시흥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총 14명 (아동 11명, 코디 1명 실무자 2명)
경기2	8/14(금),15(토)	웹엑스(비대면)	총 11명 (아동 9명, 코디1명, 실무자 1명)
경기3	8월09일(일)	토즈(신반포점)	총 7명(아동 5명, 코디 1명, 실무자 1명)
강원1	8월08일(토)	스터디캐슬	총 16명(아동 14명, 코디 1명, 실무자 1명)
강원2	8월15일(토)	이디야(동해천곡동점)	총 5명(아동 4명, 실무자 1명)
충북	8월08일(토)	카페203	총 9명(아동 7명, 코디 1명, 실무자 1명)
충남	8월13일(목)	김홍신문학관	총 15명(아동 12명, 코디 1명, 실무자 2명)
경북	8월06일(목)	대구외고	총 12명(아동 11명, 코디 1명)
경남	8월11일(화)	학생여중 앞 카페	총 15명(아동 12명, 코디 1명, 실무자 2명)
전북1	8/8(토),16(일)	익산청소년문화의집	총 12명(아동 11명, 코디1명)
전북2	8월01일(토)	전주 카페	총 3명(아동 2명, 코디 1명)
제주1	8월15일(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총 14명(아동 12명, 코디 1명, 실무자 1명)
제주2	8월08일(토)	신성여중	총 7명(아동 6명, 코디 1명)

• 활동사진





4) 권역별 모니터링 활동

- 기간 : 2020. 08. 01.(토) ~ 2020. 10. 31.(토)
- 권역별 주제

권역	권역별 주제	공동주제(세부)
서울	통학로 안전	학습환경과 관련된 안전
경기1	학생의 여가시간 부족	-
경기2	아동학대의 사후 대처	-
경기3	온라인 학습 효율성 저하	-
강원1	학습권	-
강원2	동해안 물놀이 사고 속 아동보호, 안전	사회적 재난 속, 교육기회는 균등한가?
충북	학교내 장애아동시설	사회적 재난 상황 속 비대면 교육의 한계점
충남	학교의 주인은 학생	코로나로 인해 침해되는 아동들의 인권과 이에 대한 우리의 제안사항
경북	미디어 속 아동인권	-
경남	법과 정책, 그리고 아동	-
전북1	학교는 과연 안전할까?	-
전북2	아동의 학습권	-
제주1	나이에 따른 차별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의 건강
제주2	제주의 도시화,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가 아동 생존권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	-

5)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 일시 : 2020. 11. 23.(월) 10:00~12:20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짜르트홀
- 참석자 : 총 19명
 - 모니터링단(LENS) 9명, 코디네이터 3명, 연구자 1명, 토론자 2명, 실무자 4명
- 프로그램

구분	시간	세부내용
개회식	10:00~10:30	인사말 및 축사
공동주제 발표	10:30~10:50	김지혜 교수(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10:50~11:10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이영찬(인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활동 소개	11:10~11:15	여대회(한국아동단체협의회 LENS 담당)
활동 영상	11:15~11:20	LENS 활동 영상
권역별 사례발표	11:20~12:00	김우주박, 황금빛(LENS 경기3) 배민서, 신준(LENS 충남) 김시현, 도유희(LENS 강원2) 이민채, 장우진(LENS 제주1)
권역별 사례발표	12:00~12:20	한성혁(LENS 서울) 배재현(LENS 경북) 김정호(LENS 코디네이터)

• 현장사진



02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은 안전한가?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803부가 수거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 1부를 제외하고 총 802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지역별 응답 현황은 <표 1>과 같다. 경기도가 186명(2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138명(17.2%), 서울특별시가 123명(15.3%), 강원도 76명(9.5%), 전라도 61명(7.6%), 충청도 46명(5.7%), 울산광역시 45명(5.6%), 광주광역시 33명(4.1%), 경상도 32명(4.0%), 대구광역시 26명(3.2%), 부산광역시 14명(1.7%), 대전광역시 12명(1.5%), 인천광역시 9명(1.1%), 세종특별자치시 1명(0.1%)의 순이었다.

<표 1> 지역별 응답현황

지역	빈도(명)	비율(%)
강원도	76	9.5
경기도	186	23.2
경상도	32	4.0
광주광역시	33	4.1
대구광역시	26	3.2
대전광역시	12	1.5
부산광역시	14	1.7
서울특별시	123	15.3
세종특별자치시	1	0.1
울산광역시	45	5.6
인천광역시	9	1.1
전라도	61	7.6
제주특별자치도	138	17.2
충청도	46	5.7
합계	802	100.0

2.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548명(68.3%), 남성이 254명(31.7%)이며, 학교급은 초등학생이 87명(10.8%), 중학생이 421명(52.5%), 고등학생이 262명(32.7%), 대안학교 학생이 2명(0.2%),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30명(3.7%)이었다. 가족구조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609명(75.9%)이었으며, 한부모가정이 111명(13.8%), 조손가정이 13명(1.6%), 기타가 69명(8.6%)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548	68.3
	남성	254	31.7
학교급	초등학교	87	10.8
	중학교	421	52.5
	고등학교	262	32.7
	대안학교	2	0.2
	학교에 다니지 않음	30	3.7
가족구조	양부모와 자녀	609	75.9
	한부모와 자녀	111	13.8
	조부모와 손자녀	13	1.6
	기타	69	8.6
합 계		802	

3. 조사결과

1)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인식

(1)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 경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최근 1년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 같다. 화재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혀 그렇

지 않다 471명(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9명(29.8%), 그런 편이다 76명(9.5%), 매우 그렇다 16명(2.0%)이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 447명(55.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6명(29.4%), 그런 편이다 105명(13.1%), 매우 그렇다 14명(1.7%)으로 나타났다. 가스폭발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 496명(6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2명(28.9%), 그런 편이다 66명(8.2%), 매우 그렇다 8명(1.0%)이었으며, 건축물 붕괴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 496명(6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9명(28.6%), 그런 편이다 62명(7.7%), 매우 그렇다 15명(1.9%)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 144명(18.0%), 그렇지 않은 편이다 98명(12.2%), 그런 편이다 335명(41.8%), 매우 그렇다 225명(28.1%)으로 다른 사회적 재난에 비해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감염병 다음으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일상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 경험(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화재	471	58.7%	239	29.8%	76	9.5%	16	2.0%
교통사고	447	55.7%	236	29.4%	105	13.1%	14	1.7%
가스폭발	496	61.8%	232	28.9%	66	8.2%	8	1.0%
건축물붕괴	496	61.8%	229	28.6%	62	7.7%	15	1.9%
감염병	144	18.0%	98	12.2%	335	41.8%	225	28.1%

〈표 4〉는 응답자가 스트레스와 불안 정도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학교급과 성별,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교급과 관련하여서는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고등학생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순이었다. 이는 대학입시를 준비

해야 하는 고등학생이 감염병으로 인해 일상과 학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 수가 많지는 않으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스트레스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가족구성은 조손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비해 그렇다(그런편이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높아서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 정도(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13	14.9%	13	14.9%	40	46.0%	21	24.1%
	중학교	104	24.7%	53	12.6%	157	37.3%	107	25.4%
	고등학교	24	9.2%	29	11.1%	122	46.6%	87	33.2%
	대안학교	1	50.0%	0	0.0%	0	0.0%	1	5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2	6.7%	3	10.0%	16	53.3%	9	30.0%
성별	여성	90	16.4%	75	13.7%	216	39.4%	167	30.5%
	남성	54	21.3%	23	9.1%	119	46.9%	58	22.8%
가족 구성	양부모와 자녀	106	17.4%	78	12.8%	252	41.4%	173	28.4%
	한부모와 자녀	25	22.5%	10	9.0%	49	44.1%	27	24.3%
	조부모와 손자녀	1	7.7%	1	7.7%	9	69.2%	2	15.4%
	기타	12	17.4%	9	13.0%	25	36.2%	23	33.3%

(2)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 정도

내가 사는 동네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5〉와 같다. 내가 사는 동네가 화재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명(2.6%), 그렇지 않은 편이다 70명(8.7%), 그런 편이다 552명(68.6%), 매우 그렇다 159명(19.8%)이었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 정도

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33명(4.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3명(15.3%), 그런 편이다 512명(63.8%), 매우 그렇다 134명(16.7%)으로 나타났다. 가스폭발로부터 안전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명(2.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1명(6.4%), 그런 편이다 537명(67.0%), 매우 그렇다 195명(24.3%)이었으며, 건축물 붕괴로부터 안전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명(2.6%), 그렇지 않은 편이다 62명(7.7%), 그런 편이다 517명(64.5%), 매우 그렇다 202명(25.2%)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54명(6.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5명(36.8%), 그런 편이다 374명(46.6%), 매우 그렇다 79명(9.9%)으로 다른 사회적 재난에 비해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 정도를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감염병 다음으로는 교통사고로 부터의 안전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 정도(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화재	21	2.6%	70	8.7%	552	68.8%	159	19.8%
교통사고	33	4.1%	123	15.3%	512	63.8%	134	16.7%
가스폭발	19	2.4%	51	6.4%	537	67.0%	195	24.3%
건축물붕괴	21	2.6%	62	7.7%	517	64.5%	202	25.2%
감염병	54	6.7%	295	36.8%	374	46.6%	79	9.9%

〈표 6〉은 응답자가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학교급과 성별,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교급과 관련하여서는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고등학생이 가장 우리 동네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순이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우리 동네가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가족구성에서는 조손가정이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비해 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동네의 안전 정도(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7	8.0%	37	42.5%	33	37.9%	10	11.5%
	중학교	25	5.9%	122	29.0%	225	53.4%	49	11.6%
	고등학교	20	7.6%	119	45.4%	106	40.5%	17	6.5%
	대안학교	0	0.0%	0	0.0%	1	50.0%	1	5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2	6.7%	17	56.7%	9	30.0%	2	6.7%
성별	여성	32	5.8%	182	33.2%	285	52.0%	49	8.9%
	남성	22	8.7%	113	44.5%	89	35.0%	30	11.8%
가족 구성	양부모와 자녀	41	6.7%	231	37.9%	288	47.3%	49	8.0%
	한부모와 자녀	4	3.6%	41	36.9%	49	44.1%	17	15.3%
	조부모와 손자녀	2	15.4%	4	30.8%	4	30.8%	3	23.1%
	기타	7	10.1%	19	27.5%	33	47.8%	10	14.5%

(3) 사회적 재난 대응 시 우리사회의 아동 안전 고려 정도

사회적 재난 대응 시 우리사회가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화재 발생 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고려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명(2.0%), 그렇지 않은 편이다 64명(8.0%), 그런 편이다 541명(67.5%), 매우 그렇다 181명(22.6%)이었으며, 교통사고 시 아동 안전 고려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8명(2.2%), 그렇지 않은 편이다 83명(10.3%), 그런 편이다 524명(65.3%), 매우 그렇다 177명(22.1%)으로 나타났다. 가스폭발 시 아동 안전 고려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명(2.4%), 그렇지 않은 편이다 80명(10.7%), 그런 편이다 524명(65.3%), 매우 그렇다 173명(21.6%)이었으며, 건축물 붕괴 시 아동 안전 고려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명(2.4%), 그렇지 않은 편이다 80명(10.0%), 그런 편이다 526명(65.6%), 매우 그렇다 177명(22.1%)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 아동 안전 고려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29명(3.6%), 그렇지 않은 편이다 99명(12.3%), 그런 편이다 502명(62.6%), 매우 그렇다 172명(21.4%)으로 사회적 재난 시 우리사회가 아동의 안전을 대체적으로 잘 고려한다고 인식하

고 있었으나 다른 사회적 재난에 비해 감염병 시 우리사회가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회적 재난 대응시 우리사회의 아동 안전 고려 정도(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화재	16	2.0%	64	8.0%	541	67.5%	181	22.6%
교통사고	18	2.2%	83	10.3%	524	65.3%	177	22.1%
가스폭발	19	2.4%	86	10.7%	524	65.3%	173	21.6%
건축물붕괴	19	2.4%	80	10.0%	526	65.6%	177	22.1%
감염병	29	3.6%	99	12.3%	502	62.6%	172	21.4

〈표 8〉은 응답자가 사회의 대응 시 가장 아동 안전이 고려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학교급과 성별,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교급과 관련하여서는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이 가장 우리 사회가 아동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순이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리 사회가 아동의 안전을 더 고려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가족구성에서는 조손가정이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비해 우리사회가 더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시 우리 사회의 아동 안전 고려 정도 (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1	1.1%	9	10.3%	59	67.8%	18	20.7%
	중학교	17	4.0%	46	10.9%	255	60.6%	103	24.5%
	고등학교	11	4.2%	37	14.1%	168	64.1%	46	17.6%
	대안학교	0	0.0%	0	0.0%	1	50.0%	1	5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0	0.0%	7	23.3%	19	63.3%	4	13.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20	3.6%	71	13.0%	343	62.6%	114	20.8%
	남성	9	3.5%	28	11.0%	159	62.6%	58	22.8%
가족 구성	양부모와 자녀	24	3.9%	74	12.2%	390	64.0%	121	19.9%
	한부모와 자녀	3	2.7%	16	14.4%	63	56.8%	29	26.1%
	조부모와 손자녀	1	7.7%	0	0.0%	9	69.2%	3	23.1%
	기타	1	1.4%	9	13.0%	40	58.0%	19	27.5%

(4) 사회적 재난 관련 안전교육 경험

사회적 재난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9>와 같다. 화재 관련 안전 교육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6명(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명(1.6%), 그런 편이다 369명(46.0%), 매우 그렇다 414명(51.6%)이었으며, 교통사고 관련 안전 교육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명(2.6%), 그렇지 않은 편이다 69명(8.6%), 그런 편이다 371명(46.3%), 매우 그렇다 341명(42.5%)으로 나타났다. 가스폭발 관련 안전 교육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61명(7.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9명(17.3%), 그런 편이다 339명(42.3%), 매우 그렇다 263명(32.8%)이었으며, 건축물 붕괴 관련 안전 교육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39명(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9명(13.6%), 그런 편이다 383명(47.8%), 매우 그렇다 271명(33.8%)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안전 교육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2명(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30명(3.7%), 그런 편이다 357명(44.5%), 매우 그렇다 403명(50.2%)으로 화재 관련 교육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감염병 관련 교육 경험이 높았다. 반면에 가스폭발이나 건축물붕괴와 관련한 교육 경험은 다른 사회적 재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회적 재난 관련 안전교육 경험(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화재	6	0.7%	13	1.6%	369	46.0%	414	51.6%
교통사고	21	2.6%	69	8.6%	371	46.3%	341	42.5%
가스폭발	61	7.6%	139	17.3%	339	42.3%	263	32.8%
건축물붕괴	39	4.9%	109	13.6%	383	47.8%	271	33.8%
감염병	12	1.5%	30	3.7%	357	44.5%	403	50.2%

〈표 10〉은 감염병 관련 아동의 안전교육 경험과 관련하여 학교급과 성별,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교급과 관련하여서는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고등학생이 초, 중등학생에 비해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었으며,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전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서는 조손가정의 안전교육 경험이 양부모자녀나 한부모자녀에 비해 높았다.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감염병 관련 아동의 안전교육 경험(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2	2.3%	2	2.3%	39	44.8%	44	50.6%
	중학교	6	1.4%	6	1.4%	162	38.5%	247	58.7%
	고등학교	4	1.5%	21	8.0%	134	51.1%	103	39.3%
	대안학교	0	0.0%	0	0.0%	1	50.0%	1	5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0	0.0%	1	3.3%	21	70.0%	8	26.7%
성별	여성	7	1.3%	26	4.7%	209	38.1%	306	55.8%
	남성	5	2.0%	4	1.6%	148	58.3%	97	38.2%
가족 구성	양부모와 자녀	8	1.3%	22	3.6%	281	46.1%	298	48.9%
	한부모와 자녀	2	1.8%	7	6.3%	54	48.6%	48	43.2%
	조부모와 손자녀	0	0.0%	0	0.0%	6	46.2%	7	53.8%
	기타	2	2.9%	1	1.4%	16	23.2%	50	72.5%

2)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

(1) 생활습관

코로나19 전후 생활습관 변화에 대한 응답은 <표 11>과 같다. 수면시간은 코로나 이전 평균 7.27시간(SD=1.86)에서 코로나 이후 7.45시간(SD=2.17)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교수업 이외의 공부시간은 코로나 이전 2.92시간(SD=2.42)에서 코로나 이후 3.22시간(SD=2.86)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놀이시간도 3.76시간(SD=3.23)에서 4.39시간(SD=4.04)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1> 코로나전후 주중 생활습관

구분	코로나이전		코로나이후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면시간	7.27	1.86	7.45	2.17	-1.38
학교수업 제외 공부 시간	2.92	2.42	3.22	2.86	-2.97**
놀이 시간	3.76	3.23	4.39	4.04	-3.35**

학교급별 코로나19 전후 생활 습관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수면시간과 학교수업 이외 공부시간은 줄어들었고, 놀이시간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중학생의 경우 수면시간과 공부시간, 놀이시간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공부시간과 놀이시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등학생은 수면시간과 공부시간 놀이시간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12> 학교급별 주중 생활 습관

구분		코로나이전		코로나이후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교	수면시간	9.09	2.06	8.53	2.65	1.98
	학교수업 제외 공부 시간	2.93	1.92	2.53	1.71	1.68
	놀이 시간	3.83	2.43	4.37	3.63	-1.10
중학교	수면시간	7.40	1.66	7.59	2.02	-1.42

구분		코로나이전		코로나이후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교수업 제외 공부 시간	2.65	2.04	3.02	2.26	-3.08**
	놀이 시간	3.77	3.28	4.48	4.08	-3.05**
고등 학교	수면시간	6.42	1.63	6.63	2.07	-.92
	학교수업 제외 공부 시간	3.67	3.21	4.08	4.25	-1.76
	놀이 시간	3.75	4.02	4.49	4.49	-1.33

<표 13>에서는 성별 주중 생활 습관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성은 수면시간과 공부시간, 놀이시간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이후 모두 증가하였으며, 공부시간과 놀이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성은 수면시간과 공부시간, 놀이시간이 모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13> 성별 주중 생활 습관

구분		코로나이전		코로나이후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여성	수면시간	7.16	1.90	7.33	2.22	-1.36
	학교수업 제외 공부 시간	3.03	2.53	3.32	3.03	-2.50*
	놀이 시간	3.84	3.52	4.52	4.14	-2.82**
남성	수면시간	7.85	1.48	7.90	1.97	-.31
	학교수업 제외 공부 시간	2.62	1.99	2.92	2.36	-1.74
	놀이 시간	3.55	2.96	4.28	3.95	-1.91

(2) 친구관계

코로나19 전과 후 친구관계의 변화에 관한 응답결과는 <표 14>와 같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문항에 대해 코로나 이전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0명(1.2%), 그렇지 않은 편이다 77명(9.6%), 그런 편이다 426명(53.1%), 매우 그렇다 289명(36.0%)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31명(3.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8명(13.5%), 그런 편이다 445명(55.5%), 매우 그렇다 218명(27.2%)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이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은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46명(5.7%),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6명(14.5%), 그런 편이다 433명(54.0%), 매우 그렇다 207명(25.8%)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0명(1.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명(3.6%), 그런 편이다 435명(54.2%), 매우 그렇다 328명(40.9%)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이후 친구들이 나에게 힘든 일을 털어놓는 빈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 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코로나 이전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44명(18.0%), 그렇지 않은 편이다 404명(50.4%), 그런 편이다 191명(23.8%), 매우 그렇다 63명(7.9%)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61명(7.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6명(26.9%), 그런 편이다 343명(42.8%), 매우 그렇다 182명(22.7%)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이후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더 잘하는 빈도는 증가하였다. 친구들과 관계가 좋은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코로나 이전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69명(8.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7명(28.3%), 그런 편이다 336명(21.2%), 매우 그렇다 170명(21.2%)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5명(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2명(14.6%), 그런 편이다 407명(50.7%), 매우 그렇다 278명(34.7%)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이후 친구들과 관계도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친구관계(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	코로나이전	10	1.2	77	9.6	426	53.1	289	36.0
	코로나이후	31	3.9	108	13.5	445	55.5	218	27.2
친구들은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음	코로나이전	46	5.7	116	14.5	433	54.0	207	25.8
	코로나이후	10	1.2	29	3.6	435	54.2	328	40.9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함	코로나이전	144	18.0	404	50.4	191	23.8	63	7.9
	코로나이후	61	7.6	216	26.9	343	42.8	182	22.7
친구들과 관계가 좋음	코로나이전	69	8.6	227	28.3	336	21.2	170	21.2
	코로나이후	15	1.9	102	14.6	407	50.7	278	34.7

(3) 하루일과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어 학교를 못가는 기간 동안 평일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5>와 같다. 부모님과 대화시간은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안하는 경우가 28명(3.5%), 30분 미만인 141명(17.6%), 30분-1시간이 277명(34.5%), 1-2시간이 190명(23.7%), 2-3시간이 83명(10.3%), 3-4시간이 42명(5.2%), 4시간 이상이 41명(5.1%)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안하는 경우가 10명(1.2%), 30분 미만인 46명(5.7%), 30분-1시간이 136명(17.0%), 1-2시간이 240명(29.9%), 2-3시간이 166명(20.7%), 3-4시간이 88명(11.0%), 4시간 이상이 116명(14.5%)으로 코로나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모님과 대화시간 또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이용시간은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안하는 경우가 265명(33.0%), 30분 미만인 107명(13.3%), 30분-1시간이 141명(17.6%), 1-2시간이 170명(21.2%), 2-3시간이 61명(7.6%), 3-4시간이 28명(3.5%), 4시간 이상이 30명(3.7%)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안하는 경우가 179명(22.3%), 30분 미만인 157명(19.6%), 30분-1시간이 190명(23.7%), 1-2시간이 200명(24.9%), 2-3시간이 49명(6.1%), 3-4시간이 11명(1.4%), 4시간 이상이 16명(2.0%)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와 게임기 시간은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안하는 경우가 68명(8.5%), 30분 미만인 71명(8.8%), 30분-1시간이 127명(15.8%), 1-2시간이 175명(21.8%), 2-3시간이 159명(19.8%), 3-4시간이 73명(9.1%), 4시간 이상이 129명(16.1%)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안하는 경우가 43명(5.4%), 30분 미만인 228명(28.4%), 30분-1시간이 219명(27.3%), 1-2시간이 146명(18.2%), 2-3시간이 77명(9.6%), 3-4시간이 31명(3.9%), 4시간 이상이 58명(7.2%)이었다. TV시청 시간은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안하는 경우가 24명(3.0%), 30분 미만인 99명(12.3%), 30분-1시간이 159명(19.8%), 1-2시간이 235명(29.3%), 2-3시간이 152명(19.0%), 3-4시간이 56명(7.0%), 4시간 이상이 77명(9.6%)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안하는 경우가 6명(0.7%), 30분 미만인 22명(2.7%), 30분-1시간이 50명(6.2%), 1-2시간이 121명(15.1%), 2-3시간이 186명(23.2%), 3-4시간이 137명(17.1%), 4시간 이상이 280명(34.9%)으로 코로나 이후 TV시청 시간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만나서 노는 시간은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안하는 경우가 233명

(29.1%), 30분 미만 83명(10.3%), 30분-1시간 91명(11.3%), 1-2시간 134명(16.7%), 2-3시간 125명(15.6%), 3-4시간 47명(5.9%), 4시간 이상이 89명(11.1%)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안하는 경우가 147명(18.3%), 30분 미만 116명(14.5%), 30분-1시간 130명(16.2%), 1-2시간 178명(22.2%), 2-3시간 142명(17.7%), 3-4시간 50명(6.2%), 4시간 이상이 39명(4.9%)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온라인 대화시간은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안하는 경우가 235명(29.3%), 30분 미만 212명(26.4%), 30분-1시간 112명(14.0%), 1-2시간 95명(11.8%), 2-3시간 65명(8.1%), 3-4시간 34명(4.2%), 4시간 이상이 49명(6.1%)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안하는 경우가 42명(5.2%), 30분 미만 105명(13.1%), 30분-1시간 128명(16.0%), 1-2시간 185명(23.1%), 2-3시간 146명(18.2%), 3-4시간 79명(9.9%), 4시간 이상이 117명(14.6%)으로 친구들과 온라인 대화시간은 코로나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하루일과(n=802)

구분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1-2시간		2-3시간		3-4시간		4시간 이상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부모님과 대화시간	코로나이전	28	3.5	141	17.6	277	34.5	190	23.7	83	10.3	42	5.2	41	5.1
	코로나이후	10	1.2	46	5.7	136	17.0	240	29.9	166	20.7	88	11.0	116	14.5
스마트폰, 태블릿PC 시간	코로나이전	265	33.0	107	13.3	141	17.6	170	21.2	61	7.6	28	3.5	30	3.7
	코로나이후	179	22.3	157	19.6	190	23.7	200	24.9	49	6.1	11	1.4	16	2.0
컴퓨터, 게임기 시간	코로나이전	68	8.5	71	8.8	127	15.8	175	21.8	159	19.8	73	9.1	129	16.1
	코로나이후	43	5.4	228	28.4	219	27.3	146	18.2	77	9.6	31	3.9	58	7.2
TV시청 시간	코로나이전	24	3.0	99	12.3	159	19.8	235	29.3	152	19.0	56	7.0	77	9.6
	코로나이후	6	0.7	22	2.7	50	6.2	121	15.1	186	23.2	137	17.1	280	34.9
친구와 만나서 노는 시간	코로나이전	233	29.1	83	10.3	91	11.3	134	16.7	125	15.6	47	5.9	89	11.1
	코로나이후	147	18.3	116	14.5	130	16.2	178	22.2	142	17.7	50	6.2	39	4.9
친구들과 온라인 대화시간	코로나이전	235	29.3	212	26.4	112	14.0	95	11.8	65	8.1	34	4.2	49	6.1
	코로나이후	42	5.2	105	13.1	128	16.0	185	23.1	146	18.2	79	9.9	117	14.6

(4) 학습활동

코로나19 전후 학습활동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6>과 같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33명(16.6%), 그렇지 않은 편이다 341명(42.5%), 그런 편이다 278명(34.7%), 매우 그렇다 50명(6.2%)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20명(1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300명(37.4%), 그런 편이다 300명(37.4%), 매우 그렇다 82명(10.2%)으로 코로나19 이후 공부에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40명(5.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9명(23.6%), 그런 편이다 436명(54.4%), 매우 그렇다 137명(17.1%)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13명(14.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8명(27.2%), 그런 편이다 331명(41.3%), 매우 그렇다 140명(17.5%)으로 나타났다.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98명(12.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8명(24.7%), 그런 편이다 325명(40.5%), 매우 그렇다 181명(22.6%)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68명(8.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2명(25.2%), 그런 편이다 388명(48.4%), 매우 그렇다 144명(18.0%)으로 나타났다.

<표 16>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학습활동(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공부가 막막함	코로나이전	133	16.6	341	42.5	278	34.7	50	6.2
	코로나이후	120	14.9	300	37.4	300	37.4	82	10.2
공부에 의욕이 생기지 않음	코로나이전	40	5.0	189	23.6	436	54.4	137	17.1
	코로나이후	113	14.1	218	27.2	331	41.3	140	17.5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음	코로나이전	98	12.2	198	24.7	325	40.5	181	22.6
	코로나이후	68	8.5	202	25.2	388	48.4	144	18.0

(5) 온라인 수업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법은 학교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이 339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EBS등 학교 밖에서 촬영된 동영상 수업 302명(39.1%), 학교 선생님과과의 실시간 화상수업 99명(12.8%), 기타 32명(4.1%)의 순이었다.

〈표 17〉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수업 방법(n=802)

구분	빈도(명)	비율(%)
EBS등 학교 밖에서 촬영된 동영상 수업	302	39.1
학교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수업	339	43.9
학교 선생님과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99	12.8
기타	32	4.1

가장 많이 이용한 학교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한 만족도로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명(8.2%)이었고,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95명(25.3%), 만족하는 편이다 438명(56.7%), 매우 만족한다 76명(9.8%)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학교 온라인 수업 만족도(n=802)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교 온라인수업 만족도	63	8.2	195	25.3	438	56.7	76	9.8

학교 온라인 수업의 만족 이유로는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응답이 302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쉽다가 278명(39.4%)이었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가 89명(12.6%),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잘 된다는 응답이 32명(4.5%)의 순이었다.

〈표 19〉 학교 온라인 수업 만족 이유(n=706)

구분	빈도(명)	비율(%)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음	89	12.6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잘됨	32	4.5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쉬움	278	39.4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음	302	42.8
기타	5	0.7

학교 온라인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질문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78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147명(24.0%),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139명(22.7%), 인터넷 접속이 잘 끊긴다 45명(7.4%)의 순이었다.

〈표 20〉 학교 온라인 수업 불만족 이유(n=612)

구분	빈도(명)	비율(%)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움	147	24.0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질문하기 어려움	278	45.4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139	22.7
인터넷 접속이 잘 끊김	45	7.4
기타	3	0.5

3)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

(1) 예방수칙 인지 정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명(1.4%), 그런 편이다 457명(57.0%), 매우 그렇다 332명(41.4%)로 대체적으로 예방 수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인지 정도(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에 대해 잘 알고 있음	2	0.2	11	1.4	457	57.0	332	41.4

(2) 코로나19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코로나19 관련 정보 습득 경로로는 TV가 193명(2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NS 158명(19.7%), 인터넷 뉴스나 게시판 132명(16.5%),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117명(14.6%), 부모님과 가족 107명(13.3%), 친구 68명(8.5%), 기타 19명(2.4%), 신문 8명(1.0%)의 순이었다.

〈표 22〉 코로나19 관련 정보 습득 경로 (n=802)

구분	빈도(명)	비율(%)
부모님과 가족	107	13.3
신문	8	1.0
TV	193	24.1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117	14.6
인터넷 뉴스나 게시판	132	16.5
친구	68	8.5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158	19.7
기타	19	2.4

4) 코로나19로 인한 장소 안전

(1) 학교 안전

코로나19로부터 학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가 74명(9.2%),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263명(32.8%), 안전한 편이다 436명

(54.4%), 매우 안전하다 29명(3.6%)로 나타나서 42.0%의 아동이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23〉 코로나19로부터 학교 안전(n=802)

구분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교안전	74	9.2	263	32.8	436	54.4	29	3.6

(2) 코로나19 전후 가정환경

코로나19 전과 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질문에서 부모로부터 신체적 별을 받은 경험과 관련하여 한 번도 없다가 코로나 이전에는 719명(89.7%)이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670명(83.5%)으로 코로나 이후 신체적 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은 한 번도 없다가 코로나19 이전에는 591명(73.7%)이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726명(90.5%)으로 욕설 등의 언어폭력 경험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밤늦게까지 보호자 없이 집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한번도 없다가 코로나19 이전에는 754명(94.0%)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724명(90.3%)으로 밤늦게까지 혼자 있는 빈도는 증가하였다. 부모님은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다가 코로나19 이전에는 666명(83.0%)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595명(74.2%)로 식사를 못해도 부모가 챙겨주지 않는 경험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학교를 결석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문항과 관련하여서는 한번도 없다가 코로나19 이전에는 715명(89.2%)이었으며, 코로나19이후에는 733명(91.4%)으로 수업과 관련하여 코로나 전후 큰 변화는 없었다.

〈표 24〉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가정환경(n=802)

구분		한번도 없음		6개월에 1-5회		1개월에 1회		1주일에 1-3회 이상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신체적 별(체벌)	코로나이전	719	89.7%	57	7.1%	17	2.1%	9	1.1%
	코로나이후	670	83.5%	69	8.6%	41	5.1%	22	2.7%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	코로나이전	591	73.7%	114	14.2%	51	6.4%	46	5.7%
	코로나이후	726	90.5%	29	3.6%	19	2.4%	28	3.5%
밤늦게까지 보호자 없이 집에 있음	코로나이전	754	94.0%	16	2.0%	12	1.5%	20	2.5%
	코로나이후	724	90.3%	51	6.4%	16	2.0%	11	1.4%
부모님은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음	코로나이전	666	83.0%	70	8.7%	35	4.4%	31	3.9%
	코로나이후	595	74.2%	116	14.5%	46	5.7%	45	5.6%
부모님은 학교를 결석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아도 신경쓰지 않음	코로나이전	715	89.2%	40	5.0%	16	2.0%	31	3.9%
	코로나이후	733	91.4%	26	3.2%	22	2.7%	21	2.6%

5)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1) 정신건강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더 불안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6명(14.5%),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39명(42.3%), 그런 편이다 277명(34.5%), 매우 그렇다 70명(8.7%)으로 43.2%의 아동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더 우울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57명(19.6%),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85명(48.0%), 그런 편이다 224명(27.9%), 매우 그렇다 36명(4.5%)로 32.4%의 아동이 코로나로 더 우울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코로나19와 정신건강(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코로나19로 인해 더 스트레스를 받음	116	14.5%	339	42.3%	277	34.5%	70	8.7%
코로나19로 인해 더 우울	157	19.6%	385	48.0%	224	27.9%	36	4.5%

〈표 26〉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학교급과 성별,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교급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43.6%이고, 중학생은 37.0%였으며, 고등학생 50.8%로 고등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도 63.3%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여 학교 밖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과 가족구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16	18.4%	33	37.9%	29	33.3%	9	10.3%
	중학교	80	19.0%	185	43.9%	121	28.7%	35	8.3%
	고등학교	19	7.3%	110	42.0%	111	42.4%	22	8.4%
	대안학교	1	50.0%	0	0.0%	1	50.0%	0	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0	0.0%	11	36.7%	15	50.0%	4	13.3%
성별	여성	76	13.9%	236	43.1%	180	32.8%	56	10.2%
	남성	40	15.7%	103	40.6%	97	38.2%	14	5.5%
가족구성	양부모와 자녀	85	14.0%	264	43.3%	207	34.0%	53	8.7%
	한부모와 자녀	17	15.3%	46	41.4%	40	36.0%	8	7.2%
	조부모와 손자녀	1	7.7%	6	46.2%	5	38.5%	1	7.7%
	기타	13	18.8%	23	33.3%	25	36.2%	8	11.6%

〈표 27〉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관련하여 학교급과 성별,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교급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더 우울하다는 응답이 28.7%이고, 중학생은 27.6%였으며, 고등학생 39.7%로 고등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도 46.7%가 코로나19 이후 더 우울하다고 응답하여 스트레스와 우울 등 학교 밖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은 더 우울하다는 응답이 30.8%였으며, 남성은 35.9%로 남성이 더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관련하여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우울(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학교급	초등학교	21	24.1%	41	47.1%	23	26.4%	2	2.3%
	중학교	108	25.7%	197	46.8%	95	22.6%	21	5.0%
	고등학교	27	10.3%	131	50.0%	93	35.5%	11	4.2%
	대안학교	1	50.0%	0	0.0%	1	50.0%	0	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0	0.0%	16	53.3%	12	40.0%	2	6.7%
성별	여성	106	19.3%	273	49.8%	140	25.5%	29	5.3%
	남성	51	20.1%	112	44.1%	84	33.1%	7	2.8%
가족 구성	양부모와 자녀	116	19.0%	292	47.9%	173	28.4%	28	4.6%
	한부모와 자녀	25	22.5%	52	46.8%	30	27.0%	4	3.6%
	조부모와 손자녀	1	7.7%	8	61.5%	4	30.8%	0	0.0%
	기타	15	21.7%	33	47.8%	17	24.6%	4	5.8%

(2) 신체건강

신체건강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운동을 더 적게 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83명(10.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5명(23.1%), 그런 편이다 389명(48.5%), 매우 그렇다 145명(18.1%)으로 66.6%의 아동이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과자나 라면 등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먹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00명(12.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3명(29.1%), 그런 편이다 375명(46.8%), 매우 그렇다 94명(11.7%)으로 58.5%의 아동이 코로나19 이후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먹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12명(14.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7명(33.3%), 그런 편이다 307명(38.3%), 매우 그렇다 116명(14.5%)으로 52.8%의 아동이 코로나19로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28〉 코로나19와 신체건강(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코로나19 이전보다 운동을 더 적게 함	83	10.3%	185	23.1%	389	48.5%	145	18.1%
코로나19 이후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더 많이 먹음	100	12.5%	233	29.1%	375	46.8%	94	11.7%
코로나19 이후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	112	14.0%	267	33.3%	307	38.3%	116	14.5%

〈표 29〉는 코로나19로 운동을 더 적게 하는지와 관련하여 학교급과 성별, 가족 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교급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운동을 더 적게 한다는 응답이 66.7%이고, 중학생은 65.5%였으며, 고등학생은 69.5%로 고등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운동을 더 적게 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은 더 운동을 적게 한다는 응답이 68.2%였으며, 남성은 63.4%로 여

성이 남성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해 운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은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해 운동을 더 적게 하는 정도(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7	8.0%	22	25.3%	46	52.9%	12	13.8%
	중학교	54	12.8%	91	21.6%	203	48.2%	73	17.3%
	고등학교	20	7.6%	60	22.9%	127	48.5%	55	21.0%
	대안학교	1	50.0%	1	50.0%	0	0.0%	0	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1	3.3%	11	36.7%	13	43.3%	5	16.7%
성별	여성	58	10.6%	117	21.4%	260	47.4%	113	20.6%
	남성	25	9.8%	68	26.8%	129	50.8%	32	12.6%
가족 구성	양부모와 자녀	62	10.2%	140	23.0%	300	49.3%	107	17.6%
	한부모와 자녀	9	8.1%	28	25.2%	57	51.4%	17	15.3%
	조부모와 손자녀	4	30.8%	3	23.1%	4	30.8%	2	15.4%
	기타	8	11.6%	14	20.3%	28	40.6%	19	27.5%

〈표 30〉은 코로나19로 과자나 라면 등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먹는지와 관련하여 학교급과 성별,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교급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먹는다는 응답이 57.5%이고, 중학생은 57.7%였으며, 고등학생은 60.0%로 고등학생이 코로나19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먹는 비율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가족구성은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해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더 먹는 정도(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학교급	초등학교	11	12.6%	26	29.9%	44	50.6%	6	6.9%
	중학교	61	14.5%	117	27.8%	186	44.2%	57	13.5%
	고등학교	26	9.9%	79	30.2%	128	48.9%	29	11.1%
	대안학교	1	50.0%	1	50.0%	0	0.0%	0	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1	3.3%	10	33.3%	17	56.7%	2	6.7%
성별	여성	74	13.5%	153	27.9%	245	44.7%	76	13.9%
	남성	26	10.2%	80	31.5%	130	51.2%	18	7.1%
가족 구성	양부모와 자녀	73	12.0%	177	29.1%	288	47.3%	71	11.7%
	한부모와 자녀	10	9.0%	37	33.3%	50	45.0%	14	12.6%
	조부모와 손자녀	1	7.7%	4	30.8%	5	38.5%	3	23.1%
	기타	16	23.2%	15	21.7%	32	46.4%	6	8.7%

〈표 31〉은 코로나19로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하여 학교급과 성별,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교급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49.4%가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중학생은 51.6%, 고등학생은 56.5%로 고등학생이 코로나19로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은 54.4%, 남성은 49.2%로 여성이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구성은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정도(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13	14.9%	31	35.6%	36	41.4%	7	8.0%
	중학교	70	16.6%	134	31.8%	151	35.9%	66	15.7%
	고등학교	26	9.9%	88	33.6%	109	41.6%	39	14.9%
	대안학교	1	50.0%	1	50.0%	0	0.0%	0	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2	6.7%	13	43.3%	11	36.7%	4	13.3%
성별	여성	83	15.1%	167	30.5%	207	37.8%	91	16.6%
	남성	29	11.4%	100	39.4%	100	39.4%	25	9.8%
가족 구성	양부모와 자녀	87	14.3%	199	32.7%	240	39.4%	83	13.6%
	한부모와 자녀	10	9.0%	39	35.1%	40	36.0%	22	19.8%
	조부모와 손자녀	1	7.7%	5	38.5%	5	38.5%	2	15.4%
	기타	14	20.3%	24	34.8%	22	31.9%	9	13.0%

6) 재난안전관리

(1) 지인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인식

친구나 친구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어떤 생각이 들것 같은지와 관련하여 나도 감염될까봐 걱정스럽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44명(5.5%), 그렇지 않은 편이다 71명(8.9%), 그런 편이다 469명(58.5%), 매우 그렇다 218명(27.2%)로 나타났다. 친구나 친구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 후 다 나왔더라도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432명(53.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4명(32.9%), 그런 편이다 89명(11.1%), 매우 그렇다 17명(2.1%)으로 지인의 코로나19 감염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으며, 13.2%는 다 나아도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표 32〉 지인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인식(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나도 감염될까봐 걱정스러움	44	5.5%	71	8.9%	469	58.5%	218	27.2%
다 나왔더라도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음	432	53.9%	264	32.9%	89	11.1%	17	2.1%

〈표 33〉은 친구나 친구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시 나도 감염될까봐 걱정되는지와 관련하여 학교급과 성별,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지인 감염시 나도 감염될까봐 두렵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은 86.2%, 중학생은 83.9%, 고등학생은 88.9%로 고등학생의 경우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가족구성은 집단간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인 코로나19 감염시 나도 감염될까봐 걱정(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7	8.0%	5	5.7%	52	59.8%	23	26.4%
	중학교	27	6.4%	41	9.7%	237	56.3%	116	27.6%
	고등학교	9	3.4%	20	7.6%	164	62.6%	69	26.3%
	대안학교	1	50.0%	0	0.0%	1	50.0%	0	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0	0.0%	5	16.7%	15	50.0%	10	33.3%
성별	여성	24	4.4%	50	9.1%	316	57.7%	158	28.8%
	남성	20	7.9%	21	8.3%	153	60.2%	60	23.6%
가족구성	양부모와 자녀	31	5.1%	50	8.2%	355	58.3%	173	28.4%
	한부모와 자녀	6	5.4%	12	10.8%	72	64.9%	21	18.9%
	조부모와 손자녀	1	7.7%	1	7.7%	6	46.2%	5	38.5%
	기타	6	8.7%	8	11.6%	36	52.2%	19	27.5%

〈표 34〉는 친구나 친구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 후 완치 되어도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지와 관련하여 학교급과 성별,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지인이 감염 후 완치되더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은 18.3%, 중학생은 13.1%, 고등학생은 11.4%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성별집단간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족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양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11.7%, 한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16.2%, 조손가정의 경우 15.4%로 한부모 가정 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인 코로나19감염 후 완치 되어도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 정도 (n=80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41	47.1%	30	34.5%	11	12.6%	5	5.7%
	중학교	225	53.4%	141	33.5%	48	11.4%	7	1.7%
	고등학교	149	56.9%	83	31.7%	26	9.9%	4	1.5%
	대안학교	1	50.0%	0	0.0%	1	50.0%	0	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16	53.3%	10	33.3%	3	10.0%	1	3.3%
성별	여성	274	50.0%	197	35.9%	63	11.5%	14	2.6%
	남성	158	62.2%	67	26.4%	26	10.2%	3	1.2%
가족구성	양부모와 자녀	345	56.7%	193	31.7%	60	9.9%	11	1.8%
	한부모와 자녀	59	53.2%	34	30.6%	14	12.6%	4	3.6%
	조부모와 손자녀	6	46.2%	5	38.5%	2	15.4%	0	0.0%
	기타	22	31.9%	32	46.4%	13	18.8%	2	2.9%

4. 결론

사회적 재난은 부주의나 고의, 기술상의 문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발생해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재난이다. 교통사고,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과 의료, 교통, 금융, 통신,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재난 그리고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 등이 있다(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은 불확실한 현상으로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만, 피해복구와 재건 과정에서 불평등하게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재난불평등이란 재난 발생 및 관리과정과 구조적 불평등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결과적 피해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기저에는 ‘취약성’이 있는데, 한 사회 내의 취약성은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을 보인다(이현승, 2006). 이러한 재난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빈부격차, 연령, 장애 등 다양하며, 그 요인 간 상호 작용을 통해 불평등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채종현·최호진·이재호, 2018).

2020년도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상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삶의 질 격차,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고립과 불안 증폭 등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새로운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은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 특히, 재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실태조사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아동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주요 결과와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심리, 정서 지원

감염병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는 아동은 70% 정도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80% 정도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나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은 코로나19로 일상과 학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우울한

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32%의 아동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4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초,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해 입시에 대한 부담, 학업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고 하였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외출을 할 수 없는 답답함도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었다. 우울한 이유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외출을 잘 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잘 못 만나며, 공부도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심리와 정서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심리정서가 힘든 상황에서 아동에게 도움요청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고 학교 등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 이외에 청소년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발굴을 위한 기존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대아동을 조기 발굴하는 동시에 심리정서 취약위기아동을 발굴하여 비대면 서비스 실시와 함께 가정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위기 아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2) 초등학생의 생활관리 및 돌봄지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이전에 비해 이후에 수면시간과 공부시간, 놀이시간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수면시간과 공부시간은 줄어들고 놀이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규칙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공부시간 과잉으로 일상불균형이었는데, 최근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아동들이 균형적인 일상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져,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아동 일상생활 균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in press). 특히 초등학생은 중, 고등학생에 비해 돌봄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돌봄과 생활관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돌봄을 양적인 시간으로 충원해주는 돌봄정책만으로는 아동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기회를 통해 돌봄체계 전

반을 재설계해야 한다(정익중, 2020).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으로 개별 돌봄을 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돌봄을 돌봄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노동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 노동정책 개선과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 종사자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들도 일을 쉬더라도 생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결국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개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익중, 2020).

3) 안전한 학교 환경 마련 및 교육격차 해소

아동의 42%는 학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리코더 수행 평가를 하거나 체육활동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어야 하며, 간식을 나눠먹기도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학교 후 어디에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친구들과끼리 붙어 있는 시간이 많고, 전혀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감염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다.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과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돌봄 공백 때문에 성인으로부터 공부에 대한 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디지털 기기 마련이 어려워 교육기회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공교육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면서 빈곤한 가정상황으로 인해 디지털 기기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부재 및 돌봄 공백으로 수업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이, 원격수업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in press). 재난 상황의 장기화는 지식정보 획득의 불평등을, 지식정보의 불평등은 더 나아가 교육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가속화시켜 더 큰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에(김지혜, 정익중, 2010) 재난 상황에서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4) 안전한 가정 환경을 위한 모니터링과 교육

아동이 부모로부터 코로나19 이후 신체적 별(체벌)을 받는 빈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또한 증가하면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과 부모교육, 학대예방에 대한 국민 인식 교육 등이 필요하며, 취약한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등도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체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지만 발견하기 어렵도록 가정 내에 은폐되어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학대도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별개로 각각 이루어지기보다 연계되어 있는 순환적인 관계로서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in press).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아동은 부부의 높은 언성과 폭력, 갈등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혼자 받아내며, 그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 상황에 놓일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모니터링과 학대 여부 확인, 개입, 보호장치 마련, 치료지원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모두가 단순히 가해자 처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족 복귀 시 건강한 가족구조로 재구성하려는 치료적 개입과 사후관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만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는 통합되고 일원화된 부처의 전담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in press).

5) 신체건강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코로나19는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의 67%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운동을 더 적게 하고, 59%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며, 53%는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초, 중학생에 비해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신건강과 함께 신체건강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권장운동시간을 충족한 아동이 과소운동 아동보다 행복감이

더 높고 불안감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in press). 감염성 재난으로 인해 아동의 외출이 지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아동의 식사를 챙겨주고, 아동의 수면시간을 조절해 주며, 편안하게 산책하고 운동 할 수 있도록 감염의 위험이 없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6) 감염자에 대한 차별 예방 교육

감염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 차별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아동의 13%는 친구나 친구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다 나왔더라도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8%, 중학생은 13%, 고등학생은 11%로 특히 초등학생이 감염자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비난과 혐오 및 배제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16_LIST.html?menuSeq=127
- 김지혜·정익중. 2010. 빈곤은 인터넷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빈곤이 부모의 지도감독과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유형을 매개로 학교부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3): 29-56.
- 이현송. 2006. 자연 재해의 사회적 과정-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수해 사례를 중심으로. 「영미연구」. 15: 153-177.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in press).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 정익중(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13: 47-59.
- 채종현·최호진·이재호, 2018. 재난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참조1] 공통주제 설문지

2020년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 설문

- 본 설문은 '코로나19' 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아동들이 가정에서 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 입니다.
-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재난 상황 속에서 아동의 학습과 놀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본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특별 저작물입니다. 서면으로 공식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내용의 일부나 전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가공하거나 무단전재,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은 20개 내외이며, 설문시간은 평균 5분 내외입니다.
- 이 설문에는 여러분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있고, 다른 아동들도 같은 설문지에 답할 것입니다.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을 주의 깊게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 나는 설문에 참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2020년 9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1. 내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인가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안학교 ⑤ 학교에 다니지 않음

2. 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 설문조사입니다.

사회적 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감염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3. 아래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최근 1년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적이 있었나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화재				
교통사고				
가스폭발				
건축물 붕괴				
감염병 (코로나19 등)				

4. 내가 사는 동네는 아래의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항목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화재				
교통사고				
가스폭발				
건축물 붕괴				
감염병 (코로나19 등)				

5. 우리 사회는 아래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거나 발생 후 대응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나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화재				
교통사고				
가스폭발				
건축물 붕괴				
감염병 (코로나19 등)				

6. 나는 아래의 사회적 재난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화재				
교통사고				
가스폭발				
건축물 붕괴				
감염병 (코로나19 등)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은 2019년도 2학기(2019년 7월~12월)이며, 코로나 이후는 2020년도 1학기(2020년 1월 ~ 6월)입니다.

7. 코로나19가 발생한 전과 후의 나의 생활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코로나 19 이전	코로나 19 이후
주중(월~금)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잠을 잤나요?	() 시간 () 분	() 시간 () 분
주중(월~금) 하루에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 보통 몇 시간 공부했나요?	() 시간 () 분	() 시간 () 분
주중(월~금) 하루에 보통 몇 시간 놀았나요?	() 시간 () 분	() 시간 () 분

8. 코로나 전과 후의 나의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 놓는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4)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9.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어 ‘학교를 못 가는 기간’ 동안 평일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발생 전, 학교를 가던 보통의 하루와 비교해 응답해 주세요.

문항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1) 부모님(또는 보호 자)과 대화시간	(코로나 전) 학교 가던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코로나 후) 학교 못 가게 된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가지고 노는 시 간	(코로나 전) 학교 가던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코로나 후) 학교 못 가게 된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 (예: 닌텐도, 플스 등)	(코로나 전) 학교 가던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코로나 후) 학교 못 가게 된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TV를 시청하며 노 는 시간	(코로나 전) 학교 가던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코로나 후) 학교 못 가게 된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위의 2)~4)이외에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시간	(코로나 전) 학교 가던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코로나 후) 학교 못 가게 된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위의 2)~4)이외에 친구들과 온라인 대화 시간 (채팅)	(코로나 전) 학교 가던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코로나 후) 학교 못 가게 된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코로나19 전과 후 나의 학습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2)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3)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11.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온라인 수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11-1) 내가 가장 많이 이용한 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법은 무엇인가요?

- ① EBS 등 학교 밖에서 ② 학교 선생님이 직접 ③ 학교 선생님과 ④ 기타
 방영된 동영상 수업 촬영한 동영상 수업 실시간 화상수업 ()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12번 문항으로 이동

11-2) 내가 가장 많이 이용한 학교의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11-3) 학교의 온라인 수업방법에 대해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②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잘 된다
 ③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④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⑤ 기타

14-1)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5. 코로나19가 발생한 전과 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또는 주 보호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체크해 주세요.

문항	코로나19 이전 6개월 (2019년 7~12월)				코로나19 이후 6개월 (2020년 1~6월)			
	한번도 없음	6개월에 1-5회 정도	1달에 1-3회 정도	1주일에 1-3회 이상	한번도 없음	6개월에 1-5회 정도	1달에 1-3회 정도	1주일에 1-3회 이상
1) 신체적 별(체벌)								
2)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3)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이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5) 부모님(보호자)은 학교를 결석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아도 신경쓰지 않는다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코로나19로 인해 나는 이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더 불안한가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6-1)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7. 코로나19로 인해 나는 이전보다 더 우울한가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7-1) 더 우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운동 등의 신체활동을 더 적게 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9. 나는 코로나 19 이후 과자나 라면 등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많이 먹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0. 나는 코로나 19 이후 살이 많이 찌는 등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나의 친구나 친구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은가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친구나 친구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그 친구 때문에 나도 감염될까봐 걱정스러울 것 같다				
친구나 친구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다 나았더라도(완치판정) 나는 앞으로 그 친구랑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				

22. 코로나로 인해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23. 코로나로 인해 좋은 점이나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24.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나요?

- | | | | | |
|-----------------------------|-----------------------------|-------------------------------|-------------------------------|-----------------------------|
| <input type="radio"/> 강원도 | <input type="radio"/> 경기도 | <input type="radio"/> 경상도 | <input type="radio"/> 광주광역시 | <input type="radio"/> 대구광역시 |
| <input type="radio"/> 대전광역시 | <input type="radio"/> 부산광역시 | <input type="radio"/> 서울특별시 | <input type="radio"/> 세종특별자치시 | <input type="radio"/> 울산광역시 |
| <input type="radio"/> 인천광역시 | <input type="radio"/> 전라도 | <input type="radio"/> 제주특별자치도 | <input type="radio"/> 충청도 | |

25. 우리의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 양부모님(아버지와 어머니 함께)과 자녀(20-1번으로)
2. 한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과 자녀
3. 조부모님(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과 손자, 손녀
4. 기타(____)

답례품 발송

조사에 성실히 참여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드립니다.
답례품 발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를 읽고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응답해주시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해당 서비스 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자 요청 시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 수집항목: 연락처
- 이용목적: 답례품 발송

2. 보유 및 이용기간

설문조사 종료 1개월 후 삭제처리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례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 -)

이름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3

권역별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전지적 강원1 LENS 시점”

LENS	김윤기, 김래은, 김민지, 김세현, 김채현, 김희래, 문경옥, 안나연, 엄예림, 이서진, 이한빈, 정이루, 최미나
코디 네이터	권혁성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권역주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해받는 우리의 학습권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p>발대식 장소: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5 6층 스터디캐슬</p> <p>1.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30~13:00) 모니터링 ‘LENS’사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동의 권리 주체성 강화임을 강조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활동이 아니라 활동과정 역시 권리 증진에 도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함. <p>2. 아동인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00~14:10) 아동인권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점심을 병행함. <p>3. 공통주제 및 모니터링 방법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10~17:00) 일반조사팀(4명), 인터뷰팀(5명), 설문조사팀(5명)을 구성하여 각각 해당 방법으로 안전권에 관련한 현황조사 및 활동 내용을 구성하기로 함.

4.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14:10~17:00)
- 1차 모니터링 회의: 8월 30일
 - 2차 모니터링 회의: 9월 26~27일 중 참석자 여부에 따라 결정
 - 3차 모니터링 회의: 육민관, 복원여고 모두 시험이 끝나고 다가오는 주말 (시험 날짜를 전달받으면 수정)
 - 월별보고서는 팀별로 활동을 진행하되, 개인이 1부씩 작성하며 팀장이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5. 체크리스트(설문지) 피드백 (14:10~17:00)
- 익명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면 함.
 - 7번 문항: 대화시간, 신체활동 시간,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시간, TV시청시간, 게임시간, 친구와 만나는 시간, 채팅시간을 각각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루 중 비중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떠한지
 - 9-3번 문항: 문항이 얻고자 하는 내용과 맞지 않음 → 코로나 전과 후 모두 수업을 듣고 싶은 감정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원이 문제를 제기함.
 - 21번 문항: 5개 선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설문지에 있어 굳이 필요한 문항인지 의문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팀: 원주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약 30명)으로 하여 '학교에서 실행한 코로나 예방 및 방역에 관련해 주변 학생들 및 본인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코로나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낀 점이 있는가?, 현재 상황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를 인터뷰함. - 설문조사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복원여자고등학교, 육민관 고등학교 7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권과 관련한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 설문을 진행함. - 인터넷조사팀: 공통주제인 '사회적 재난 속 안전권'에 대한 현황 및 실태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함.

(계획이행상황)

- 인터뷰팀:

- ☞ 몇몇 학생들은 답답할 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거나 아예 벗는 학생이 있음.
- ☞ 급식소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난 후 식탁이 종종 닦이지 않은 상태로 이용할 때가 있어 방역에 문제점이 있다고 느낌.
- ☞ 점심 식사 후 화장실에서 양치나 가글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듦.
- ☞ 어린 동생이 있는 집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돌봐줄 보호자가 없고 학원에 가지 못 하여 혼자 있기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응답을 얻음.
- ☞ 또다른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자연재해 대피 훈련이나 가상현실을 통해 직접 체험하여 경각심을 느껴 대처방안을 익혀야 한다고 응답을 얻음.

- 설문조사팀:

- ☞ '체육 수업 진행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적이 있나요?' 질문에 60%가 예라고 답함.
- ☞ 체육 수업을 진행할 때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면 호흡곤란과 피부 망가짐 등 안전권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함.
- ☞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기관지 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건강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음.

- 인터넷조사팀:

- ☞ 8월 코로나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들고 완치자가 늘어났지만 광화문 집회로 인해 다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함.
- ☞ 대구 지역 학생 상당수가 코로나 블루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 ☞ 대구시교육청이 대구학생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역 중·고등학생 8천1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들은 코로나 19 확산 전인 1월말 해도 가장 큰 스트레스를 '공부'와 '성적'으로 꼽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월부터 4월까지의 '비일상적 경험'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6월 이후엔 공부와 성적에 더불어 비일상적인 경험까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의 영역은 우울, 불안, 무력감 순으로 나타남. (개선 및 건의사항) - 인터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의견 ☞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의 예방이 부족하고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느낌. ☞ 코로나를 비롯하여 또다른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 물품 준비, 빠른 하교 조치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임. - 설문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이 아니기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이 보건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함. ☞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 온라인 수업을, 완화가 되면 등교수업을 유동적이고 민감하게 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넷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블루의 원인인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지역의 동선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탁구나 배드민턴 등 접촉이 적은 스포츠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무기력감을 해소하고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이며, 집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우울감, 무력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운동을 하거나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하는 등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권역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팀: 원주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에서 겪은 어려움은?'을 인터뷰함.

- **설문조사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북원여자고등학교, 육민관 고등학교 7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관련하여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 설문을 진행함.

- **인터넷조사팀:** 권역주제인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현황 및 실태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함.

(계획이행상황)

- **인터뷰팀:**

- ☞ 온라인 수업은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 내용 중 모르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 더운 여름에도 답답한 마스크를 벗지 못해 땀이 차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음.
- ☞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해 집중력이 낮아짐.
- ☞ 인터넷 강의로는 시험을 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 인터넷이나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수업 참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 온라인 수업으로는 생기부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김.
- ☞ 코로나 19가 시작된 이후로 중위권, 중상위권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거의 하위권으로 떨어짐.

- **설문조사팀:**

- ☞ '도서관, 학원, 학교 야자 등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정상 운영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질문에 92%가 예라고 응답.
- ☞ '코로나로 인한 수업 방식의 변경(격주, 온라인 수업, 발표와 모둠 수업 자체 등)에 따라 문제를 느낀 경험이 있나요' 질문에 85.3%가 예라고 응답.
- ☞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 중 어느 방식이 더 편하고 이해가 잘 되는가?' 질문에 84%가 등교 수업이라고 응답.
- ☞ '온라인 수업 중 모르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는 것이 어려운가?' 질문에 74.7%가 예라고 응답.
- ☞ '코로나19 이후 등교 수업 중 체육 등 예체능 수업에서 불편함을 느꼈는가?' 질문에 60%가 예라고 응답.
- ☞ '코로나19 이후 교외, 교내 행사와 같은 활동이 줄어 불편함을 느꼈는가?' 질문에 88%가 예라고 응답.

- 인터넷조사팀:

- ☞ 교육부의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발표내용에 따르면 2학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중학교 1·2학년은 시험을 치르지 않게 되며, 1·2단계에선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가 학생의 수행평가를 동영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함.
- ☞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와 같은 활동들의 중단으로 학생들의 협동심이나 연대의식을 기를 기회가 감소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이나 다양한 체육활동도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인터뷰팀:

- ☞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교사가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인터넷 강의 내용과 시험문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수업하신 영상을 올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설문조사팀:

- ☞ 자율 학습, 보충 수업 등의 활동은 크게 바라지 않지만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면 수업보다 수업을 진행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 또는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집중도도 오르고 대면 수업과 유사한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인터넷조사팀:

- ☞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찍어 자유롭게 인증을 하고 이를 생기부에 반영하는 등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 ☞ 대학 역시 일반적인 기준보다 수정된 기준을 통해 현재 코로나 상황에 맞춘 입시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 학교 창체 활동 시간이나 자율활동시간을 학생들의 협동심이나 인간관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소규모의 레크레이션 형식의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희망.

☞ 대면수업에 미치지 못하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교육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대학교의 파란학기제와 같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하고싶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고 학업에서 성적의 과도한 중요성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함.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팀: 대면 인터뷰 대신 SNS를 통해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함. 이번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봄. SNS 외에도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여 답변을 모으기도 함. - 설문조사팀: 저번 활동에서 미흡했던 안전권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팀원들과 주제에 맞춰 질문들을 각자 의견을 내고 회의를 통해 설문지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진행함. 육민관과 복연여고에 재학 중인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인터넷조사팀: 재산문제로 인한 안전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온라인에서 만나 문서 작성 및 보완을 진행함. (계획이행상황) - 인터뷰팀: Q1: 코로나가 퍼지면서 발생한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Q2: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1: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의 생활이 제한, 다중이용시설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외출이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서로 대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삭막해지는 것 같다.” “항균 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표시를 읽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A2: “예방수칙을 준수한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완전한 종식은 힘들 것이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소독물품을 잘 구비해야 한다.”

- 설문조사팀:

- ☞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질환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질문에 85.4%가 예라고 답함.
- ☞ '손 소독제 사용으로 인해 손이 건조해지거나 피부 질환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질문에 56.3%가 아니라고 답함.
- ☞ 그 외 피부질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 '피부와 닿지 않는 마스크 사용', '사람 없는 곳에 가서 피부 숨 쉬게 하기' 등의 의견이 있었음.
- ☞ 정부에 바라는 점은 방역수칙을 어길 시 처벌 강화, 확진자 동선, 가계명 개시 등이 있었다.

- 인터넷조사팀:

- ☞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부가세 간이과세 개정 등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음에도 자영업자들은 경제 위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함.
-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직전분기 대비 -3.3%로 집계됨. 이는 1분기 -1.3%에 이어 두분기 연속 역성장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6.8% 이후 2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확인됨.
-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지고 또 납부 면제자 기준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함. 개정안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 납부면제자는 34만명 등 총 57만명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임.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 각 1인당 평균 117만원, 59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보게 되며, 부가세 세수는 연 4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자영업자들과 저소득층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이 주거권을 위협받으며 학생들의 안전권이 침해받을 위기에 놓여있다. 2.5단계가 해제되기 전까지 음식점, 카페, 학원, 목욕탕 등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도소매업, 관광업, 숙박업 등 역시 피해를 입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줄어든 수입,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주거권을 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p>(개선 및 건의사항)</p> <p>- 인터뷰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앞서 인터뷰를 통해 얻었던 문제점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음. ☞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됨. ☞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께 감사함. <p>- 설문조사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는 대부분 피부질환이었음. 정부에게 말하기에는 사소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피부에 자극을 최대한 주지 않는 소재로 마스크를 제작하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지원하였으면 함. ☞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손을 자주 씻고 손 소독제를 꼬박 발라서 감기 등 기타 질병이 걸리지 않는 점은 좋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램. <p>- 인터넷조사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인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함.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는 각 자영업자들에게 온라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줘야 하며, 그러지 못하는 목욕탕, 사우나와 같은 영업장에 한해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ex) 언택트 소비
<p>권역주제</p>	<p>- 인터뷰팀: SNS를 통해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함.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원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문하였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답변을 얻음.</p> <p>- 설문조사팀: 새롭게 정해진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주제에 맞춰 관련 질문들을 각자 의견을 내고 회의를 통해 좋은 질문을 선택하여 설문을 제작 및 설문조사를 진행함. 육민관고와 북연여고에 재학 중인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p> <p>- 인터넷조사팀: 오프라인에서 만나 부족한 수업일수로 인해 방학이 짧아지고 그로인해 생기는 문제를 조사하였으며 온라인에서 만나 문서작성 및 보완을 진행함.</p>

(계획이행상황)

- 인터뷰팀:

Q1: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나 학원에서 학습활동을 하며 발생한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나요?

Q2: 그 때 겪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방법 혹은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1: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이 온라인은 한계가 있다.” “학교에서는 모둠활동을 못한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데 실기를 못해 어려움이 많고 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입시에 타격이 크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수업을 들어야 해서 숨을 쉬기 불편하고 어지럽다.” “수업할 때 과제가 잘 열리지 않는다.”

A2: “최대한 스스로 학습해보려 노력했다.” “혼자서 해보려 해도 잘 되지 않아 힘들었다.” “미술학원에 가서 실기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혼자 그림을 그려보았으나 솔직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해결방안은 선생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 설문조사팀:

☞ ‘코로나 발생 후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늘어났는데 자기주도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질문에 75%가 아니오라고 응답.

☞ ‘자기주도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에 집중이 어려운 환경 문제가 51.2%,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는 점이 26.8%, 집중력이 금방 떨어지는 점이 22%로 나타남.

☞ ‘코로나로 인해 생긴 제약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질문에 79.2%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해결방법으로는 혼자 해결한다가 39.6%, 선생님의 도움이 29.2%, 친구, 가족의 도움이 16.7%,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8.3%, 어려움이 없다는 6.3%로 나타났다.

☞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온라인 방과 후 학습활동, 야자 실시 등의 응답을 얻음.

- 인터넷조사팀:

☞ 여름 방학이 짧아짐에 따라 서울 대치동의 대부분 학원들은 3주짜리 캠프를 2주로 단축하여 진행하게 됨. 학원에 입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

해 놓친 부분이 많아 방학 2주 캠프를 열어 2주동안 강도 높은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주장했으며 학생이 희망한다면 호텔 방에서 기숙생활도 가능하다고 설명함.

- ☞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이 학습이 잘 안 되는 것을 걱정하며 오히려 주요 과목들은 학원에서 보충받고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었다고 함.
- ☞ 이 현상이 장기화되면 점점 사교육 의존현상이 심화되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원래의 방학의 의의가 변질되며 짧아진 방학으로 인해 학생들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는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우거나 현장체험을 하는 등의 기회가 사라짐.

(개선 및 건의사항)

- 인터뷰팀:

- ☞ 학교나 학원에서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개선이 필요해 보임. 현재 제시되는 해결방안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낌.
- ☞ 학생들이 학습에 더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이 있을지,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낌.
- ☞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의 답변을 통해 성적뿐만 아니라 실기 또한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 설문조사팀:

- ☞ 평소에 자기주도적 학습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낌. 집에서 공부하면 집중도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음.
- ☞ 정부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권장하지만 말고 학생들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함. 육민관고의 경우 야자를 실시해도 석식이 제공되지 않고 시간도 융통성 있지 않아 야자를 못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았음.

- 인터넷조사팀:

- ☞ 방학이란 여유로운 자기개발과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학교의 수행평가나 생기부를 위해 여유를 잃은 채 학업활동에 얽매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역시 공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공교육과 사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학업시간과 철저한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려했을 때 공교육에서는 학생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잡아줄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 온라인 수업을 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ebs강의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러한 방법을 금하고 직접적인 영상 제작을 하거나, 화상수업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를 조금 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
--	--

Step 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팀: 10월 17일, 비대면 통화로 인터뷰할 대상을 정하고 질문을 제작하였음. 10월 26일 대면으로 육민관고등학교 선생님, 학부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함. - 설문조사팀: 강원도 지역의 고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함. 학생들이 현 상황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함. - 인터넷조사팀: 인터넷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권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의 반응과 결과를 알아봄. <p>(계획이행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팀: Q1: 코로나로 인해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을 알고 있나요? A1: 증가하는지는 몰랐지만 생각해보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Q2: 코로나로 인해 자식과의 의사소통의 변화가 있나요? A2: 코로나로 인해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져 친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와의 잦은 부딪힘과 지적이 증가하게 되었다. Q3: 코로나로 인한 아동학대의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3: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상황이 오게 됐는데 경제적 타격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풀게 되는 것이다.

Q4: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A3: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 학대일 것 같다. 부모교육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상담사와의 인터뷰〉

Q1: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동학대가 증가했는데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있나요?

A1: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다.

Q2: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아동학대 유형이 무엇인가요?

A2: 방치(방임)이다. 학부모들이 맡길 곳이 없어서 두고 가거나 아이들이 밖에서 왔다갔다하거나 방임된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는 주로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 사람은 학교를 못 보내도 그 이후의 조치를 취하지만 그 것도 안 되는 가정은 방치가 된다.

Q2-1: 예를 들면 고용인을 고용한다거나 그런 건가요?

A2-1: 그렇죠. 아니면 조부모와 같이 사는 거면 낫지만 그러지 못하면 연가 같은 것을 내지 못하는 학부모는 돈도 벌어야 하고, 하지만 애를 맡길 곳은 없어서 방임을 하며 음식을 해놓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Q3: 학대당하는 아동들의 주변 환경에 특징이 있을까요?

A3: 슬프지만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처럼 기본적인 경제력이 갖춰지지 못하면 가정불화가 생기기 쉽고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워진다. 부모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별한 경우다. 대체적으로 원인은 경제력에 대한 문제고 부모가 자라온 환경도 중요하다.

Q4: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A4: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다. 그렇기에 현재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의무화되어있고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Q5: 아동학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A5: 부모의 경우 자녀가 혼자 있을 때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다.

- 설문조사팀:

☞ '코로나 이후 우리의 생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에 13.6% 그렇다, 45.4% 보통이다, 27.3% 그렇지 않다, 13.6%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은 없음.

- ☞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에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에 45%가 호흡 곤란, 15%가 경제적 부담, 37.5%가 피부 트러블 발생이라고 답함.
- ☞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의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에 34.5%는 환기를 자주 시키기, 41.3%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호흡하기, 24.2%가 차단지수가 낮은 마스크 착용하기라고 응답.

- 인터넷조사팀:

- ☞ 정부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생 건강 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등교 전 자가 진단으로 코로나 의심 증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하며 피부 염증, 호흡곤란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 수단의 보호장구 착용 강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 어린이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횡단보고 앞에 노란색 페인트칠을 한 ‘옐로카펫’이 확대된다고 한다.

(개선 및 건의사항)

- 인터뷰팀:

- ☞ 아동돌봄시설 가격이 월 120~150만원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저소득층분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액수이기 때문에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감소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원에 돌봄시설을 강화 혹은 설치했으면 좋겠다.

- 설문조사팀:

- ☞ 보건용 마스크가 1000원~2000원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마스크는 면마스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구별 인원수와 월소득 등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급, 별도의 기준을 세워 월마다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귀를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에게 실리콘 귀보호대를 추천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p>- 인터넷조사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염증과 호흡 곤란에 관하여 해결 방안으로 플라스틱 마스크를 생각해 봤는데 실제 식당과 같은 곳에서 플라스틱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마스크 위 아래 부분을 통해 비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마스크 쓰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늘리거나 완벽한 칸막이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는 성인이 타도 사고가 빈번한데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하면 사고 발생률은 더 증가할 것이다. 또, 만 13세는 법의 사각지대 안에 있는 나이로 처벌도 힘든데 과연 이 규제 완화가 옳은 선택인지 정부는 한 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p>권역주제</p>	<p>- 인터뷰팀: 10월 17일, 비대면 통화로 인터뷰할 대상을 정하고 질문을 제작 하였음. 10월 28일 비대면으로 삼육고등학교, 육민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함.</p> <p>- 설문조사팀: 강원도 지역의 고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함.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학습 활동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학습 활동을 포함한 학교생활에서의 불편함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함.</p> <p>- 인터넷조사팀: 인터넷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의 반응과 결과를 알아봄.</p> <p>(계획이행상황)</p> <p>- 인터뷰팀: 삼육고등학교 2학년 인터뷰</p> <p>Q1: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 속에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나요? A1: 급식 먹을 때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학년별로 시간을 나누어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p> <p>Q2: 코로나 이후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대면이 적어졌는데 친구와 선생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나요? A2: 변화가 없는 것 같다.</p>

육민관고등학교 1학년

Q1: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 속에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나요?

A1: 친구들과의 활동이 줄고 운동시설을 이용 못하는 것이 불편하다.

Q2: 겪고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A2: 시설 이용을 줄이고 마스크를 쓰며 밖에 잘 나가지 않는다.

Q3: 코로나 이후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대면이 적어졌는데 친구와 선생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나요?

A3: 친구들과의 관계는 괜찮지만 아직 많이 알아가지 못해 아쉽다.

Q4: 위에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4: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 예방책을 준비하여 만남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설문조사팀:

☞ ‘코로나로 인해 학습 활동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에 40.9%가 매우 그렇다, 45.4%가 그렇다, 13.6%가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없음.

☞ ‘코로나로 인한 학교생활에 불편함에는 무엇이 있나요?’에 대해 27%가 점심시간 식당에서 얘기할 수 없다, 24.3%가 모둠 활동을 할 수 없다, 40.5%가 격주 등교 때문에 학교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응답.

☞ ‘학교 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에 17.8%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21.5%가 손소독제 잘 사용하기, 35.7%가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마스크 벗지 않기, 21.5%가 손을 자주 씻기로 답함.

- 인터넷조사팀:

☞ 초등학교, 중학교가 자주 사용하는 e학습터는 270만, 고등학교가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클래스는 28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런 모습을 통해 정부는 학습권 보장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수업 전환 후 온라인 미디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와의 갈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도박 등의 위험에 빠졌다.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진로 고민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청각장애인은 사람들의 입술 모양을 읽는 ‘순독’으로 생활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순독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수업 준비 단계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개선 및 건의사항)

- 인터뷰팀: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학교나 정부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대회나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코로나 관련 시쓰기나 논술대회,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 제안서 쓰기 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하게 여기는 학교의 관행이 바뀌는 것이라 생각한다.

- 설문조사팀:

☞ 가림판 설치가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직접적으로 튀는 비밀은 차단할 수 있겠지만 위로는 막혀있지 않아 공기 중으로의 비밀 확산은 막을 수 없다. 수능도 마찬가지다. 가림막을 설치하면 책상공간이 협소해지고 익숙치 않은 구조물 때문에 시험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가림막을 설치하는 비용이 수십억원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지 시험 당일을 위해 이러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과 수험생의 의견에 귀기울여 더 효율적인 대책과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격주 등교를 하더라도 온라인 강사분들처럼 선생님들에게도 장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학습에 지장이 덜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우리학교는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보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풀도록 한 적이 있다. 또 다른 학교에 비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겨 학생들이 겪는 손해가 많은 것 같다. 학교는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 활동과 외부 활동을 채우기 위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전면 늘려야 한다.

- 인터넷조사팀:

- ☞ 미디어 사용이 늘어나며 생기는 문제에 대해 정부나 학교의 주도하에 조금 더 강화된 인터넷 윤리 교육과 학생들이 유해성을 띄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수도권에 비해 정보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소외된 지역도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 상담이 정말 좋아 보인다. 수도권 위주로 집중되었던 전시회, 뮤지컬 등 문화생활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되어 도시와 시골의 격차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단점도 크지만 장점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 ☞ 서울시는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자막 제공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많은 대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의 여유가 없는 대학을 지원하여 청각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꼭 보장하였으면 좋겠다.

Step 5. 권역별 아동 제안

(김윤기, 김세윤, 김휘래, 문경욱)

⇒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활동과 돌봄 서비스와 보호시설의 확대

- 정부에서 아동의 방임 및 방치 예방을 위해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하여 부담없는 보호시설을 확대하길 원하고 학교와 정부 모두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글짓기 캠페인, 정책 보고서 쓰기 대회 등을 개최하길 원함.
- 이번 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인하여 아동들의 보호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경제적으로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여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에게는 돌봄서비스가 부담이 된다고 함. 이러하여 정부에서는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해주었으면 함.

(김민지)

- 코로나가 인구 대비 심각해지고 있는데 시청을 비롯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전현아)

-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할 때 등하교로 버스타고 이동하면서 많은 교과서들을 들고 움직일 때 정말 힘들고 지친다. 그래서 전자교과서를 조금 더 활성화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현재 원주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교육청을 비롯한 기관에서는 “아직까진 괜찮으니까 등교수업을 해야한다.”라는 의견인 것 같다. 등교 수업을 하고 확진자가 나온 학교 학생들과 같은 버스를 타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정말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된다. 따라서 정말 안전한 것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불안감과 공포감도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

(엄예림)

-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적어서 아쉬웠다. 학교든 정부든 이와 관련한 사항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

(정이루)

- 학교나 정부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 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활동들을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이 좋은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권 정책을 더 실시해야 한다.

(이서진)

- 정부가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잘 살펴보고 예산에 맞게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최미나, 김채현, 김래은, 안나연, 이한빈)

- 사회적 재난 말고도 다른 주제로 더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

Step 6. 활동소감 (코디네이터, LENS)

(권혁성)

- 비록 비대면 상황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18년도에 진행했던 모니터링 활동과는 사뭇 다르게 활동이 진행됐는데, 오히려 대면 활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아동들이 직접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나서서 활동한 것이 의미있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성인이 되고, 점점 아동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고 감각이 무뎠었는데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성인의 시선에서는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아동들의 생각, 요구사항을 다시금 들어볼 수 있었다. 비록 이러한 활동이 지원자에 한해서 진행되지만, 미래에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수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여 아동들의 시각을 좀 더 넓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김윤기, 김세윤, 김휘래, 문경욱)

⇒ 아동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음. 지금과 같은 활동이 확대되길 바램.

- 현재 코로나로 인한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해 찾아보면서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보는 아동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다면 더 다양하고 기발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그런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동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난 후 책이나 인터넷 기사 등 한정된 곳에서만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조사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 활동을 하게 된 후 인터뷰라는 새로 조사 방법을 사용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친구들과 결과도 나누어 보고 생각을 나누어 봄으로써 더욱 좋은 경험이 되고 아동 인권에 대해 더 좋은 지식과 더 많은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 이러한 사회적 공공적인 문제를 조사하면서 사회에도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 찾아본 것은 이번 활동이 처음이다. 이 활동을 통해 내 생각을 정리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모여서 다같이 생각하고 조사하면서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는가도 토의하고 보고서를 조정하는등 사회생활에서도 필요해 보이는 하나의 공동체 회의라는 유익한 활동이었던거 같다.

- 이번 조사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사례들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인터뷰 활동을 근처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알게 되어 아동 인권 침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아동 인권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아동 인권 침해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친구들과 알게 되어 더욱 더 좋은 지식이 쌓인 거 같다.

(김민지)

- 이 활동을 통해 아동 인권을 또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어 뜻 깊은 경험이었다. 내 생각보다 아동 인권 침해의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해결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또한 활동하면서 아동 인권의 정의와 내가 무관심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의 인권까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 의미 있었다. 이 활동을 하여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동 인권에 함께 더욱 관심을 가져 아동들이 더욱 교육적이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

(전현아)

- 진로 희망이 광고마케팅이라서 사회 경향성이나 동향 파악이 중요한 임무인데 이번 활동을 통해 직접 여러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해보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 속 사회의 경향성은 어떠한지 찾아 볼 수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됐다. 또 다른 학생들처럼 그냥 정부에서 내리는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떤것이 힘든지 다시 생각해보고 해결책도 생각해보니 조금 더 사회문제와 관련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엄예림)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아동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아동과 관련된 틀만 둔 채로 생각했을 텐데 학습권과 안전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분화하며 활동을 진행할 때마다 늘 다르고 평소라면 생각해볼 수 못할 주제를 통해 아동들의 인권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 활동이었다.

(정이루)

- 비록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정부의 정책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점 등을 조사하며 문제점을 깨닫고 해결방안을 찾으며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알아볼 수 있던 것이 좋은 기회였다.

(이서진)

- 내가 지금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상의하고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최미나, 김채현, 김래은, 안나연, 이한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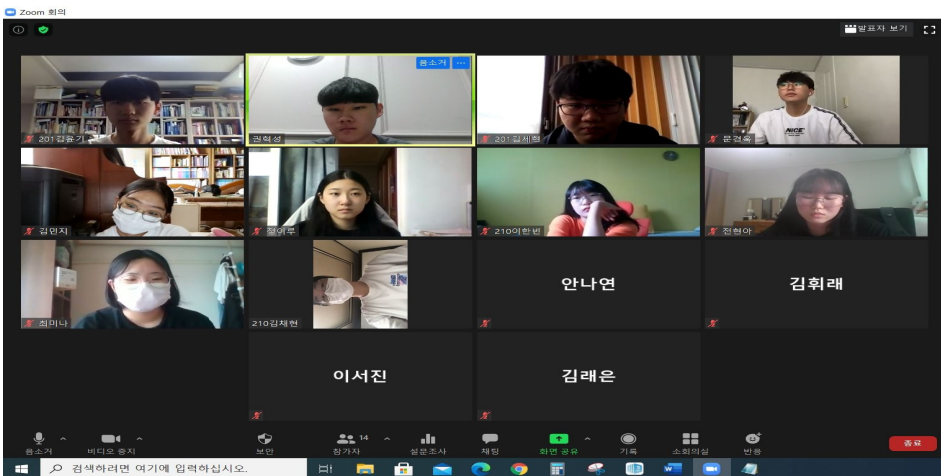
- 비록 대면으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인터뷰를 할 때 비대면으로 활동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 힘들었지만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을 해본 것 같아서 괜찮았다.

Step 7. 활동자료

(발대식)



(1차 모니터링 회의)



(2차 모니터링 회의)



내가 알로줄겅

1.향균필름(?)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표시를 읽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사람들이 무작위로 마스크를 땅에 버려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다ex)해양생물이 마스크를 먹이로 착각해 생명의 위협을 느낌

- 1.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됐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안좋아졌다.
2. 마스크는 꼭 쓴다. 사람들 많은곳에 가지 않는다. 손을 잘 씻는다.

- 1.네
- 2.온라인 수업때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집에 인터넷이 알 수 없는 문제로 끊길경우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음
- 3.아니요
4. 없음
5. 학생의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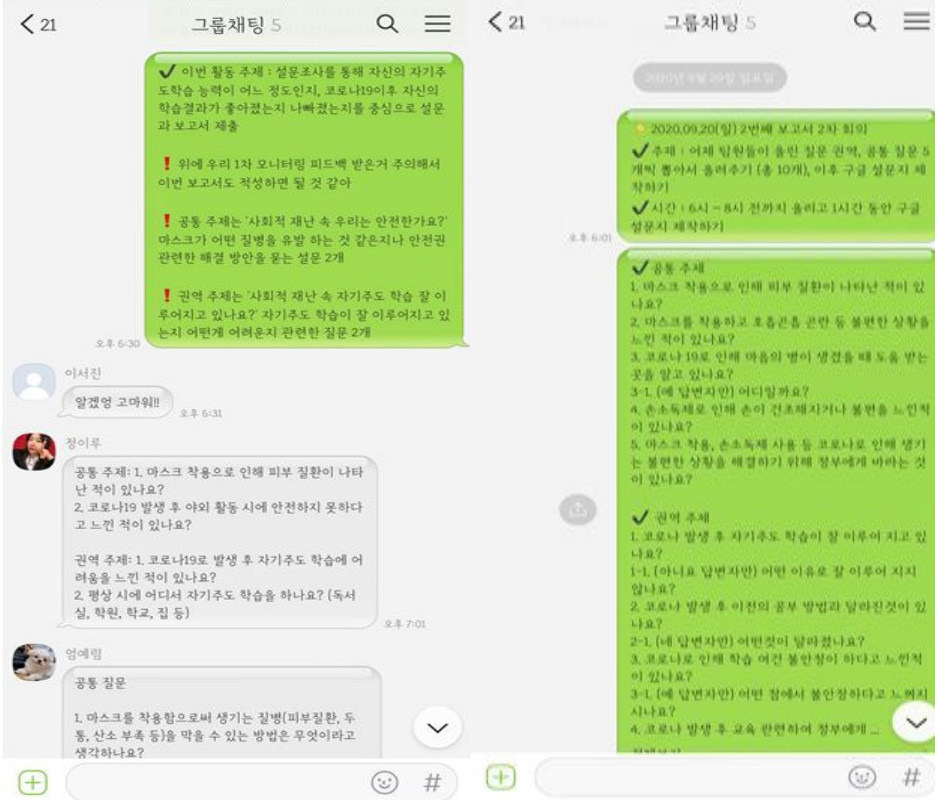
1. 아니요
2. 설명 부족, ebs 강의 내용만으론 학교 시험을 보기 힘들
3. 아니요
4.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더 신경쓰고 협조할수있도록 방안이나 법 등을 좀 더 신경써야 할것같다
5. 온라인 수업 수준 올리기, 시험이나 생기부 등 학생들에게 중요한 행사같은것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것 같다

1. 학생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힘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식소에서 인력 부족으로 남이 먹던 자리를 종종 닦이지 않는 상태로 이용해야 하는 방역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2. 학습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제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온라인 수업으로 바뀐 보호자가 없고 학원도 가지 못 하여 혼자 있기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학교에서 모든 방역과 급식소 방역 문제를 선생님들과 급식소 아주머니들께서 해결하기에는 확실한 방역이 되지 않기에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학생들의 사회적 재난의 윤리적 의식과 사회적 재난에 관련된 심각성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육민관고등학교 2학년)

1. 코로나 예방 및 방역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과 소통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3. 없습니다.
4. 현재 상황이 심각해 등교를 하기 어려우니 온라인 수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더 꼼꼼한 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2. 온라인 수업때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집에 인터넷이 알 수 없는 문제로 끊길 경우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음
3. 아니요
4. 없음
5. 학생의 안전



(3차 모니터링 회의)



주의집중 경찰 아조씨랑 통화할때 녹취허락 받아야야 한담

1차 공통

위플래스 선생님(윤은미)

1. 코로나 이후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알고 있나요?
2.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아동학대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아니나요?
3. 학대당한 아동 주변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니나요?
4.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나요?
5.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책은 무엇이 있지 아니나요?

결할(033-738-0348)여성청소년수사팀

1. 코로나 이후 아동학대의 신고수가 얼마나 증가했나요?
2.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아동학대 신고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아니나요?
3. 학대당한 아동 주변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니나요?
4.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나요?
5.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책은 무엇이 있지 아니나요?

학부모 한윤선생님(정운선)

1. 코로나 이후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2. 코로나 이후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변화가 있는가?
3. 코로나로 인한 아동학대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차 권역

학생 조종국

1.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 속에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나요?
2. 겪고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3. 코로나 이후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대면이 적어졌는데 친구와 선생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4. 위에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Step 8. 활동 피드백

(김윤기, 김세윤, 김휘래, 문경욱)

⇒ 실시한 설문조사의 불편함과 오류 개선, 모니터링 현황 외부공개 접근성 강화
- 기존의 카페 활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 내용에 대해 알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sns나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의 현황을 게시한다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이번에 진행했던 설문조사가 너무 복잡하고 많았으며 아이폰은 제출이 안 된다던지의 오류가 있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김민지, 전현아, 엄예림, 정이루, 이서진)

- 활동을 하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바뀌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 너무 짧게만 만나게 되니까 코디님이나 단원들이랑 많이 못 친해진 것 같아서 아쉬웠고 조금 더 소통하는 분위기가 활성화되어 서로 다른 팀 피드백도 주고 편안하지만 실속 있게 서로를 바라봐주는 그런 활동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팀 별로만 얘기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단원들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모니터링 활동 주최측에서 도별로 만나는 장소를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

(최미나, 김채현, 김래은, 안나연, 이한빈)

- 사람이 조금 더 많았더라면 더 좋은 의견들과 활동들을 많이 해볼 수 있었을 것 같다.

“전지적 강원2 LENS 시점”

LENS	김시현, 도유희, 박예서, 방민희, 안선영, 최유진
코디네이터	여대희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 아동들의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있는가?
권역주제	“동해안 물놀이 사고 속 아동은 안전한가?”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발대식 겸 1차 가안 회의를 진행한 후 공통주제에 대해 토의 중 대도시권과 지방의 교육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균등한 교육기회라는 주제를 정하였다. 발대식에 모든 단원이 참석하진 못했기 때문에, 권역주제는 이후 모든 단원이 참석 후 정하기로 하였다.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8월 활동은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인터넷 자료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교육격차를 원인별로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 격차, 정보격차 등을 함께 조사하고 기존에 존재한 아동들의 교육격차에 대해 조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진 부분이 있는지 탐구하였다.

권역주제	<p>발대식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학교(동해삼육고)에 모여서 권역주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에서 특별하게 찾을 수 있는 아동인권 문제에 대해 찾던 중 바다라는 키워드를 도출하였고 추가적인 회의 후 동해안 물놀이 사고, 특히 너울성 파도로부터 아동이 안전한가를 주제로 정하였다. 회의 후 8월 활동은 각자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조사를 진행하면서 특히 해안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아동들의 물놀이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p>
------	---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동주제	<p>권역 내 아동들이 느끼고 있는 교육격차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격차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 계획을 세웠다. 설문 결과 설문 참여자 71명의 약 80%가 온라인 수업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고 코로나19 이전에도 교육격차를 느낄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설문 결과 아동이 느낀 교육격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개인 역량, 거주 지역, 소득 등의 답변이 나왔다.</p>
권역주제	<p>동해안 물놀이 사고를 주제로 잡았으므로 너울성파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아동의 물놀이 사고 빈도 등을 수집하기 위해 권역 내 아동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답변 아동 중 대부분이 너울성 파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적어도 한 번 들어보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아동의 물놀이 사고의 큰 원인은 그들의 안전 부주의라는 답변이 4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아동에게 동해안에서 자주 발생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너울성 파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p>

Step 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동주제	<p>교육, 소득, 지역 세 분야로 나뉘서 분야별 두 명씩 팀을 만들어 건의 사항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인 조사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문제 상황을 작성, 해결 방안 및 건의 내용을 작성하여 아동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한 아홉 가지의 문제 및 해결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만들어냈다.</p>

권역주제	<p>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공익광고인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남이 씹워줄 땐 늦습니다'라는 광고를 본 후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이 어떨까 회의하였고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너울성 파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홍보물을 만들고, 나머지 한 팀은 공익광고형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효과적인 너울성 파도 정보 전달을 위해 카드뉴스 형식이 적합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너울성 파도의 형성, 발생 시기, 사고, 예방수칙 등을 담은 카드뉴스를 완성시켰고 피서철 매년 아동들에게 홍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포스터는 'No survival without caution'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너울성 파도 피해를 예방하려는 의도로 만들었다.</p>
------	--

Step 5. 권역별 아동 제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교육 양극화 완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2. 교육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기관들 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주세요. 3.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방과후학교, 특강 등 공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활성화해주세요. 4. 저소득층 가구 대상 온라인 수업 시 아동의 급식 과련 복지를 확대해주세요. 5. 저소득층 가구 대상 온라인 수업 관련 기기 활성화로 교육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6.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활성화해주세요. 7.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격차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8. 지역격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교육격차의 고착화의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여주세요. 9. 아동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해 각 지역의 큰 등교일수 차이를 줄여주세요.

Step 6. 활동소감 (코디네이터, LENS)
<p>김시현: 이전에 아동인권 옹호 활동은 자주 참여했지만 모니터링 활동은 처음 참여해보았는데 주변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동 학습권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하고, 아동이 안전할 권리에 대한 홍보물을 최종적으로 만들면서 내가 어른이 되었을때 도 아동 권리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고</p>

어렸을때부터 가져온 꿈인 국제개발활동가가 되어 아동의 손에 무기가 아닌 연필을 잡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던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 3개월간 활동을 진행하면서 법에도 관심이 생겨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방민희: 약 3개월 동안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너울성 파도의 위험성과 코로나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및 어려움의 현재 실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나 특히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배워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 된 것 같아 의미 있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안선영: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들의 교육 기회 문제에 대해 조사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물놀이 포스터 제작을 통해 너울성 파도의 위험성이나 안전 수칙을 알게 되었고 물놀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도유희: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해 보았다. 특히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했던 활동이 실제 아동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심층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한 자료조사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상황과 시간이 부족하여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박예서: 3개월 동안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아동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고 도움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든 시간이었다.

최유진: 아동인권 모니터링단을 참여하게 되면서 평소였으면 관심있게 보지 못했을 아동인권 문제에 대해 조사해 새로운 사실과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알 수 있어 보람차고, 직접 설문조사, 포스터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아동인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Step 7. 활동자료

9월 활동- 공통주제, 권역주제 모두 네이버 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3일간 권역 내 중고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통주제 71명, 권역주제 86명의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10월 활동- 공통주제 최종 결과로 아동의 균등한 교육기회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하였고 교육격차를 교육, 소득, 지역 격차 세 분야로 나눠 분야별 건의 항목을 세 개씩 총 아홉 개의 건의 사항을 담았다. 권역주제의 최종 활동으로 3명은 카드뉴스를 만들고 3명은 물놀이 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었다.



침묵의 습격자, 너울성 파도

2020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LENS 강원2팀


너울성 파도란 무엇일까요?

너울성 파도란 넓은 간격으로 밀려와 높이가 높고 바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파도입니다. 방파제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해 육지를 덮쳐 많은 피해를 유발합니다. 해변 가까이 와서야 큰 파도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 너울성 파도를 예측하거나 판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너울성 파도로 인한 아동들의 피해 사례

- 2016년 9월 강원도 속초
해변 걷던 중 갑작스러운 너울로 휩쓸려
동생은 구조, 형은 사망
- 2019년 강원도 동해 한섬해변
17세 아동 실종된 지 3일만에 숨진 채 발견
(한섬 해변은 지정 해수욕장X)
- 2020년 9월 강원도 고성
일가족 3명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
- 2020년 10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중학생 2명 사망



너울성 파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넓은 바다에서 강한 저기압이 발달하면 중심 기압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저기압이 있는 주변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울성 파도가 생성됩니다. 간단히 말해, 바람에 의해 생성되고 얇은 수심의 해안으로 오면 점점 그 세력이 커지는 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언제 나타나나요?

너울성 파도는 주로 겨울철, 동해안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너울성 파도는 저기압이 형성될 조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바다 방문 전, 방문 중에도 너울성 파도 경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기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2. 방파제 등 경성 구조물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3. 바다 먼 곳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4. 허가된 해수욕장에서만 물놀이를 즐기고 구조대원과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물놀이를 합니다.



예방수칙을 통해
모두가 침묵의 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0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LENS 강원2팀

“전자적 경기1 LENS 시점”

LENS	신지은, 장하리, 왕준혁, 이수빈, 김희경, 남다영, 배예준, 김예림, 임서연, 김태민, 김휘우
코디 네이터	문유정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1. (식사)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는 식사 관련 문제 2. (장소) 자유롭게 누리던 곳들을 누리지 못하는 장소 관련 문제
권역주제	“청소년이 자유롭게 놀 권리”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2020.08.08.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약 5시간 동안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1.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PPT) & 아이스브레이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0~11:30) 청소년 인권 관련 영상 시청 • 아이스브레이킹(텔레스트레이션)
2. 아동인권교육 (10:00~1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NS 인권 교육 동영상 시청

3. 공통주제 및 모니터링 방법 논의

-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으로서 불안한/불편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최종 주제〉

#(식사)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는 안전 문제

#(장소) 자유롭게 누리던 곳들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현재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안전 문제

4. 지역주제 모니터링 논의

- 자유롭게 본인 혹은 주변인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이야기하거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최종 주제〉

#청소년이 자유롭게 놀 권리

5.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 2차 회의 날짜, 장소 정하기 & 회의 흐름 및 목표 설정하기
 - 2차 회의(9/5, 시흥다문화센터)
 - 8월 활동: 공통주제(식사/장소), 권역별 주제(학교의 규칙과 학생 인권/놀 권리) 중 자신이 맡은 주제에 대해 **실태, 현황 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포스터 그리기 등)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세부주제1)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는 식사 관련 문제”
	세부주제2) “자유롭게 누리던 곳들을 누리지 못하는 장소 관련 문제”
	8월 활동 요약: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조사 하여 현재 청소년이 처한 위험과 정서적인 불안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장소적/식사적으로 탐색하는 활동을 하여 담았다.
	활동1. 식사 문제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코로나19로 학교가 아닌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들에게 주제에 맞는 설문 문항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고, 설문 문항을 만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것’을 요청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점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원들이 작성한 설문 문항으로 객관식 9문항, 주관식 1문항으로 구성된 구글폼 설문지를 제작하여 주변 지인(초등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p>활동2. 장소 문제 설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이 장소를 이용하며 일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청소년이 느끼는 위협과 불편함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주제에 대해 단원들이 자유롭게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고, 여러 명의 설문 문항을 조합하여 객관식 7문항, 주관식 2문항 총 9문항의 구글폼 설문지를 제작하여 조사하였다. <p>활동3. 청소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그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위협을 느끼는 청소년, 워터파크와 해수욕장 등 피서지라는 이유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로 감염에 노출된 상황, 끊임없이 울리는 재난문자를 보며 불안해하는 학생을 그림으로 그려 장소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청소년 안전의 위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설명하였다.
<p>권역주제</p>	<p>“청소년이 자유롭게 놀 권리”</p> <p>8월 활동 요약: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조사하여, 놀 권리와 관련하여 현재 청소년이 처한 실태와 그 문제점을 탐색하는 활동을 하여 담았다.</p> <p>활동1. 놀 권리 설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들이 스스로 주제에 대해 생각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 단원들이 청소년의 놀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한 통금 시간, 학원, 의사결정의 주체 등을 중심으로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 현재 청소년들이 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지, 놀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 직접적으로 놀 권리에 대해 묻기도 하고, 통금시간과 의사결정의 주체, 놀 때 주변 어른의 시선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 놀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특정 기준을 세워 간접적으로도 조사하였다.

	<p>활동2. 청소년의 자유롭게 놀 권리 그림으로 표현</p> <p>- 3명의 단원은 놀 권리가 필요한 이유와 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학교와 학원으로 오후 10시까지의 일정을 소화하는 학생, 성적과 입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학생, 놀 권리가 보장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그리며 청소년이 자유롭게 놀 권리를 표현하였다.</p>
--	--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p>세부주제1)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는 식사 관련 문제”</p> <p>세부주제2) “자유롭게 누리던 곳들을 누리지 못하는 장소 관련 문제”</p> <p>9월 활동 요약: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주변 어른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위협한 상황(장소적/식사적)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청소년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심화적으로 조사하는 활동(SNS, 설문조사, 대면 인터뷰, 전화 인터뷰)을 진행하였다.</p> <p>활동1. 심화 설문조사 (장소/식사)</p> <p>-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학원과 같은 장소, 대중교통에 대해 청소년이 받는 위협과 등교하지 않아 발생하는 식사적인 문제를 성인을 대상으로 심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p> <p>- 설문조사의 문항은 2명의 단원이 장소적/식사적 설문조사 문항을 제작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자세하고 주관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원들의 판단 하에 개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주관식을 활용한 설문조사 문항을 다수 제작하였다. 해당 설문조사 문항은 피드백을 거쳐 완성되어 총 15개 문항의 구글폼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p> <p>활동2. 장소 문제 SNS</p> <p>- 접근성이 높은 SNS(인스타그램)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이 느끼는 장소적 위협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p> <p>- 현재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SNS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활동이었다. 또한 이러한 SNS의 특징을 살려 따로 계정을 개설하여 홍보하자는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활동으로 연장될 계획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긴 질문보다는 눈에 띄는 질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단원들이 직접 질문을 간략하게 만들고 게시글을 작성하여 진행되었다. <p>활동3. 전화인터뷰 (장소/식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인터뷰 또한 전체적인 활동 흐름과 맞게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4명의 단원이 스스로 장소적, 식사적 위협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질문을 제작하였고 각자 만든 질문으로 자유롭게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진행하였기 때문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했고, 유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받아 수렴할 수 있었다. <p>활동4. 장소 문제 대면인터뷰 (김희경, 이수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의 단원이 각자 자유롭게 인터뷰를 진행할 질문을 제작하고 인터뷰 대상 또한 직접 섭외하여 대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였으며, 청소년이 받는 장소적인 위협에 대한 의견, 해당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조사하였다. - 대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인 만큼 적극적인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꼬리 질문을 추가하며 인터뷰를 진행해 8월보다 심화적으로 주제를 탐구할 수 있었다.
<p>권역주제</p>	<p>9월 활동 요약: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보호자, 주변 어른의 생각과 의견을 조사하고 청소년의 의견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활동을 하였다.</p> <p><i>*놀 권리는 보호자와 자녀(아동, 청소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원들이 각자의 주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활동이 서로(청소년과 성인 사이) 의견을 나누는 데 적극적인 수단이 되었다.</i></p> <p>활동1. 놀 권리 심화 설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는 2명의 단원이 청소년과 성인이 가진 의견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문항이 제작되었다. 대상으로부터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문항으로 단원들이 스스로 작성하였고 피드백을 거쳐 총 10문항의 구글폼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앞서 8월에 진행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통금 시간, 학원, 의사결정의 주체” 등이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9월의 설문조사 또한 해당 키워

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놀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의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문항 또한 단원들이 추가로 제작하였다.

활동2. 놀 권리 SNS

- 위의 장소적 문제를 질문하는 인스타그램 게시글과 함께 게시되었으며 놀 권리에 대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받았다. 마찬가지로 간결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이유 또한 댓글로 수렴하였다.

활동3. 놀 권리 전화인터뷰

- 청소년이 대상이었던 8월 설문조사의 연장선으로, 8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놀 권리를 인지하고 있는지, 놀 권리를 침해한 경험이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행동은 어떤지 등을 물었다. 4명의 단원이 각자의 질문을 제작하여 전화인터뷰를 진행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활동4. 놀 권리 대면인터뷰

- 단원들이 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주변 어른들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묻는 방향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훈육과 자유)가 다름을 확인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스스로 지니친 억압을 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질문 등을 통해 놀 권리에 대해 인터뷰를 한 단원들도, 인터뷰 대상이 된 성인들도 적극적으로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다.

Step 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p>세부주제1)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는 식사 관련 문제”</p> <p>세부주제2) “자유롭게 누리던 곳들을 누리지 못하는 장소 관련 문제”</p> <p>10월 활동 요약: 8, 9월에서 단원들이 진행한 1차, 2차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SNS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p>

	<p>공동활동. 인스타그램 카드뉴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활용하였다. - 8, 9월에서 활동하여 나온 결과물(설문조사 결과, 그림, 인터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그 중에서 단원들이 특히 알리고 싶은 내용을 선택하여 모든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기 보다는 적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카드뉴스 형식으로 가독성을 높여, 외부의 유입이 많은 SNS의 특성을 잘 반영한 홍보활동이었다.
<p>권역주제</p>	<p>공동주제와 마찬가지로 8, 9월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한 SNS 채널을 통한 홍보가 진행되었다.</p>

Step 5. 활동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단원들이 주제를 생각할 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 관련 영상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p>아동청소년 인권을 다룬 단편 영화나 연극 등 ‘권리’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설명하기 보다는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시청각 자료로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심화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아동의 지인을 통한 설문조사 대상을 설정하면 그 표본 수를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양질의 결과를 아동들이 직접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지적 경기2 LENS 시점”

LENS	음미현, 박수현, 박혜윤, 황규빈, 지가은, 최민재, 최윤서
코디 네이터	전해웅

활동주제																					
공동주제	<p>공동주제의 큰 틀은 “사회적 재난 속 우리, 안전한가요?”로 두었음. 세부적인 주제는 모니터링 단원들이 평소 관심있던 주제나 혹은 단원들이 자료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탐색해오고 아동들마다 서로 상이한 주제를 다루기로 함. (대부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명의 모니터링 단원은 팀을 이루어 동일한 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함)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주제들이 제시되었음.</p> <p>● 총 주제 9개(중도 이탈한 단원들 주제 포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동 주제(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사회적 재난 속 빈곤 가정 아동의 기본권 보장 실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사회적 재난 속 아동들의 건강 악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사회적 재난 속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실시에 따른 빈곤 가정 아동의 교육권 박탈 및 교육격차 실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사회적 재난 속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실시에 따른 빈곤 가정 아동의 교육권 박탈 및 교육격차 실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사회적 재난 속 아동 돌봄 문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사회적 재난 전과 비교한 아동들에게 생긴 부정적 변화</td> </tr> </tbody> </table> <p>[[표-1] 모니터링 단원들이 희망한 '20년 모니터링 희망 주제-공동주제</p>	공동 주제(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		1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	2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	3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	4	사회적 재난 속 빈곤 가정 아동의 기본권 보장 실태	5	사회적 재난 속 아동들의 건강 악화	6	사회적 재난 속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실시에 따른 빈곤 가정 아동의 교육권 박탈 및 교육격차 실태	7	사회적 재난 속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실시에 따른 빈곤 가정 아동의 교육권 박탈 및 교육격차 실태	8	사회적 재난 속 아동 돌봄 문제	9	사회적 재난 전과 비교한 아동들에게 생긴 부정적 변화
공동 주제(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																					
1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																				
2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																				
3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																				
4	사회적 재난 속 빈곤 가정 아동의 기본권 보장 실태																				
5	사회적 재난 속 아동들의 건강 악화																				
6	사회적 재난 속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실시에 따른 빈곤 가정 아동의 교육권 박탈 및 교육격차 실태																				
7	사회적 재난 속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실시에 따른 빈곤 가정 아동의 교육권 박탈 및 교육격차 실태																				
8	사회적 재난 속 아동 돌봄 문제																				
9	사회적 재난 전과 비교한 아동들에게 생긴 부정적 변화																				

- 권역별 주제의 큰 틀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있는 투표기능을 사용하여 다수결로 정하기로 합의함. 이에 투표에 아동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던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은 주제들이 제안되었음.

아동들이 희망한 모니터링 주제	
1	아동의 교통안전
2	네이밍 법안의 아동권리 침해 실태 조사(ex 민식이 법)
3	홀로 방치된 아동들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
4	아동들의 교육권 침해
5	일상 대화 속 아동 인권 침해 언어 실태 조사
6	강압적인 교육으로 인해 침해받는 아동들의 자유권
7	아동학대의 사후 대처 실태조사

[[표-2] 모니터링 단원들이 희망한 '20년 모니터링 주제-권역주제]

권역주제

[주제 선호도 조사]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제시되었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주제로 두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선호도 조사는 카카오톡 투표기능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당시 총원 9명(코디네이터 불포함) 중 9명 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표를 진행하였음.

[투표결과]

이에 “아동학대 사후 대처 실태 조사” 주제에 6표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네이밍 법안의 아동권리 침해 실태 조사” 주제가 4표로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이외의 기타 주제들은 0 - 3표 정도의 선호도를 보였음. 이에 가장 많은 선호도 보인 “아동학대 사후 대처 실태 조사” 주제를 권역 주제로 선정하였음. [표-3] 참고



[[표-3] 모니터링 단원들이 희망한 '20년 모니터링 주제- 권역 주제(확정)]

[세부주제에 대한 선정]

아동학대의 유형이 실로 다양하고, 이에 대한 관련 당국 및 단체들의 대처 방식 역시 다양하기에, 그 세부적인 주제를 정할 필요가 있었음. 해당 세부적인 주제는 아동들이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음.

권역별 주제(아동학대)	
1	정서적 학대
2	아동학대의 처벌 강도 및 사후 대처
3	아동학대의 처벌 강도 및 사후 대처
4	방임 아동의 실태
5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6	정서학대에 대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 대처에 관한 고찰 -
7	정서학대에 대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 대처에 관한 고찰 -
8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학대 사각지대의 증가
9	학대인줄 모르고 하는 아동학대

[[표-4] 모니터링 단원들이 희망한 '20년 모니터링 주제- 세부 권역 주제
 세부 주제에 대한 선정 결과, 주제는 8개(주제 6 주제 7 중복, 중도
 이탈한 단원들 주제 포함)로 설정됨.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1.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

-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어우러져 원활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게끔 자기소개 시간을 가짐. 발대식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으로 진행하였음.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기에, 구체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도 회의 진행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지, 해당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실시하여,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의 목적 및 도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도움.

2. 권역주제·공통주제 및 모니터링 방법 논의

-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동들이 평소에 사용해 본 자료조사 방법 혹은 모니터링을 진행할 주체인 아동이 자료를 조사하는데 가장 편리하면서 주제에 적합한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이에 다양한 조사방법이 제시되어 투표를 진행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은 조사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

3.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 8월 정기 모니터링 회의 일자는 8월 26일(수)로 확정되었으며, 아동들의 지역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강남역 부근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악화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 등으로 대면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짐. 차후 활동(9월, 10월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활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p>1. 모니터링 진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 피드백 [가능한 모니터링 방식 제안- 단계적 모니터링] (예시: 아동학대)</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 <p>1) 학대의 기준 및 관련 자료 조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활용</p> <p>2) 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실시 예시) 당해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당해 학대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논문, 공공기관 발표자료, 각종 통계자료, 외국의 사례, 해외 입법례 etc.)</p> </td> </tr> <tr> <td>2단계</td> <td> <p>3) 관심 초점에 대한 조사 실시(2단계) 예시)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업무진행상의 문제, 행정적 사법적 권한의 한계, 절차적 문제, 처벌형태 및 아동학대 행위자 관리 실태, 사회적 인식의 문제</p> </td> </tr> <tr> <td>3단계</td> <td> <p>4)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 제시(3단계) 사람들의 인식, 관련 법령, 진행 절차상 부족한 점에 대한 언급 및 문제해결 방안 제시</p> </td> </tr> </table>	1단계	<p>1) 학대의 기준 및 관련 자료 조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활용</p> <p>2) 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실시 예시) 당해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당해 학대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논문, 공공기관 발표자료, 각종 통계자료, 외국의 사례, 해외 입법례 etc.)</p>	2단계	<p>3) 관심 초점에 대한 조사 실시(2단계) 예시)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업무진행상의 문제, 행정적 사법적 권한의 한계, 절차적 문제, 처벌형태 및 아동학대 행위자 관리 실태, 사회적 인식의 문제</p>	3단계	<p>4)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 제시(3단계) 사람들의 인식, 관련 법령, 진행 절차상 부족한 점에 대한 언급 및 문제해결 방안 제시</p>
	1단계	<p>1) 학대의 기준 및 관련 자료 조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활용</p> <p>2) 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실시 예시) 당해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당해 학대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논문, 공공기관 발표자료, 각종 통계자료, 외국의 사례, 해외 입법례 etc.)</p>					
	2단계	<p>3) 관심 초점에 대한 조사 실시(2단계) 예시)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업무진행상의 문제, 행정적 사법적 권한의 한계, 절차적 문제, 처벌형태 및 아동학대 행위자 관리 실태, 사회적 인식의 문제</p>					
3단계	<p>4)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 제시(3단계) 사람들의 인식, 관련 법령, 진행 절차상 부족한 점에 대한 언급 및 문제해결 방안 제시</p>						
[[표-5]모니터링 진행방향 - 단계적 모니터링]							

	<p>[단계적 모니터링의 목적]</p> <p>위와 같이 단계적 모니터링 형식을 취함으로써, 단원들이 개별적으로 선정한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본래 관심이 있던 주제일 지라도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과정상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제대로 된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임. 따라서 주제에 이해를 우선 순위로 두고 진행하여, 점차 아동 스스로가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문제의식을 형성하는 단계를 마련하고자 함.</p> <p>또한, 아동의 지위에 해당하는 단원 스스로가 모니터링의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해결방안 제시를 해봄으로써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개선 및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처우 개선의 요구를 직접해볼 수 있음. 게다가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주장하며, 사회적 인식 변화를 꾀 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다질 수 있음. 궁극적으로 당사자 모니터링의 취지에 걸맞는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함.</p> <p>따라서, 1차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아동 개인이 설정한 아동학대 분류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 조사를 실시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함.</p>
권역주제	공통주제와 내용 동일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p>1. 9월 모니터링 활동 진행 방법에 대한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월(1차)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대부분 아동들이 자신이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면, 9월 모니터링 활동은 단원 개인이 선정한 주제(공통주제 - 사회적 재난 속 아동들의 안전에 관한 모니터링, 권역별 주제- 아동학대, 공통주제와 권역별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동 개인마다 상이함)를 기반으로 좀 더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음. 그 방식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동 등과의 인터뷰, 설문조사 형식 등이 있었음.

모니터링 단원들과의 활동 진행 관련 피드백

[최윤서 최준서·사회적 책임 관공중주 관련]

저희는 지난 8월 활동을 통해 코로나 19 시대 빈곤층 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실현을 조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관련) 1차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논문이나 기사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외 아동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2차 이상씩 분석하였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지난 8월 활동의 문헌조사 과정에서 저희는 관계 당국의 대처 (온라인 기기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교육 사각지대와 노년층이 교육권과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빈곤층 아동이 존재할 것이 분명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실행에 관한 기간에 한 해 인터뷰를 요청하여 빈곤층 아동의 교육권 심리를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가정의 아동들 비교 집단으로 삼아, 표적 집단인 빈곤층 아동과 일반 교육 격차가 나지 않는 가능성도 조사 합니다.

이에 대해 주중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총 세 곳인데요, 1)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부 그리고 2)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3) 어린이재단인천지역본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련하여 전화 또는 비대면 인터뷰 일정을 잡고 활동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이 과정에서 1) 특수한 기관에 소속한 개인(인턴/비정규직)을 전체적인 아동 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도는 논지, 2) 실제 빈곤 아동들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싶는데 이를 구체적인 진행하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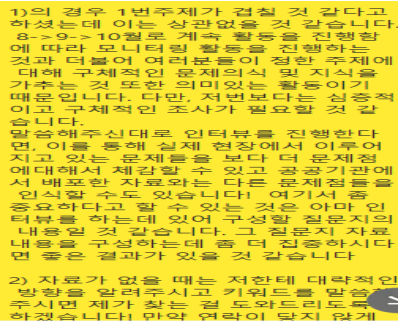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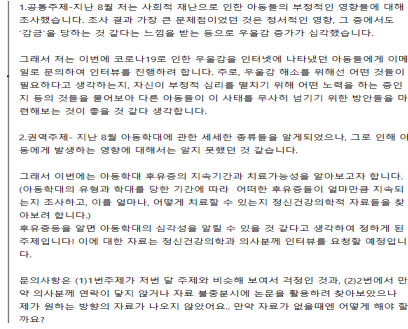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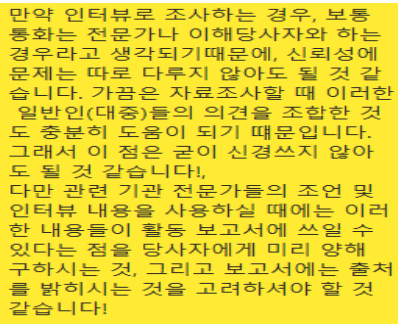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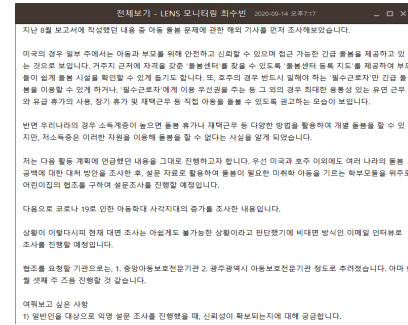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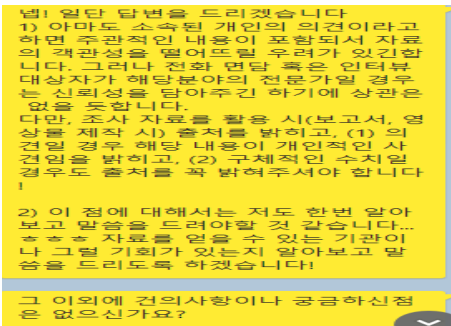
포디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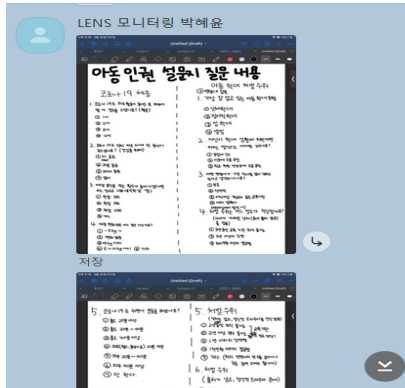
최민재 최윤서·아동 정책 관련

저희는 지난 8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 학대를 다중주체로 정의하였습니다. 크게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4가지로 나눠지는 아동 학대 중 정서 학대를 소주제로 하여 관련 연구, 뉴스, 문헌을 바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서 학대부터 시작하여 정서 학대 피해 아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해를 알아보았고, 어떤 시기에 받은 정서 학대가 성인이 되어 사회 생활을 하는데 미치는 악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정서 학대가 발생하고 그 사후 관리에 관한 법적 내용은 인식하였지만, 실제 사례로써 체계적으로 사후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는 증명하는 자료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정서 학대 아동을 위한 사후 관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관련 부서 1)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부 그리고 2)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3) 어린이재단인천지역본부(인천 내내유아보호)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방식은 앞서 최윤서 친구가 말해주었던듯이 전화/혹은 비대면 인터뷰 일정을 잡고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라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적은 내용을 구글 폼으로 작성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후 6:21

LENS 모니터링 박혜윤

그런데 처벌 강도를 정서적 확대판례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ㅠ ㅠ

오후 6:22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ㅠ ㅠ

지금 작성해주신 답변지도 훌륭하지만 조금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6:25

일단, 혜윤님이 작성해주신 것처럼 현 아동들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좋으나

모니터링의 활동방법 중에 혜윤님이 인터뷰 질문지에 작성해준바와 같이 아동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동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한 노력(정부, 아동단체, 각종 기관등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방법도 있을 수 있죠!

8월달에 저희가 활동한 내용이 주로 아동들이 처한 실태에 대한 개괄적 조사! 기 때문에 혜윤님의 질문지만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진다면 살짝 겹치는 내용 될 것 같아서요 ㅠ ㅠ ㅠ ㅠ

그래서 질문지 내용을 혜윤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은 넣어주시되 < 각종 기관, 단체 차원의 노력(정부)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느끼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 못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 인터뷰이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지를 추가해본다면 조금 더 의미있는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8월달 보고서를 쓰기 위한 조사과정 중, 국내외로 사회적 재난 속에서 아동들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나 공기업, 사기업 등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는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따로 국내외의 노력을 깊게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9월에는 반군 가정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민간기구나 사기업, 공기업 등에서는 어떻게 아동들을 돕고 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2. 아동학대 중에서도 방임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방임 관련된 기사는 거의 없으나 아동권리보장원이 내놓는 조사에 따르면 매년 방임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보고서 작성하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방임이 다른 아동학대의 종류보다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 아동의 피해사실이 보고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 수지나 피해사실 등이 기사로 쓰여지는 차극적이지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에는 별개는 아동학대, 공개는 방임 피해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했는지, 관련 기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피해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명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방임을 어떻게 경찰들은 발견하고 있는지, 따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등을 발달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질문을 올려 조사할 계획입니다.
3. 8월 보고서 작성할 때 생각된 질문인데요, 조사를 해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빈곤 아동들을 위해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다른나라에서도 빈곤아동들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보고서 내용으로 국외의 빈곤아동 상황도 보고서 내용으로 추가하고 싶네요!
4. 한국 아동들의 상황만 보고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국외의 상황도 작성할 수 있다면 이미 코로나 19가 어느정도 진정된 중국과 현재 진행형인 미국이나 아동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빈곤아동들을 위해 노력들을 했는지 조사하여 보고서 내용으로 작성해보고 싶습니다.

오 괜찮습니다 :) ㅎㅎ 일단 질문사항에 답변드리자면 국외의 아동들의 상황을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좀 더 유의미한 내용을 담으려면 그러한 외국의 사례를 넣고 우리나라의 현 실태와 비교 분석 및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ㅎㅎ

좋은 방향성입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중간보고 준비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단원이 진행한 인터넷 설문지]

- 설문목적: 사회적 재난 상황 속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실시에 따른 빈곤 가정 아동의 교육권 박탈 및 교육격차 실태 조사 (최윤서, 최민재 단원의 모니터링 중)

COVID19, 당신의 교육/학습권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여직원 직은 한류아동양육지원팀 주원 아동인권팀 사자로 니르힐단 LENS의 경기지역 민원 응대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사회적 재난 속 우리, 안전한가요?' 라는 대규모 아태에서, COVID19로 인한 인천 지역 내 아동 (중고등학생)의 교육/학습권 실태를 연구하고자 진행됩니다. 본 설문에서 출현된 내용은 모두 통계적으로만 이용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개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인 만큼,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필수항목

[인력사항] 당신의 성별을 알려주세요.*

- 남성
- 여성
- 해당 없음
- 기타: _____

[인력사항] 인천 지역 내에서 당신이 거주하는 곳을 서술해주세요. (ex. 연수구 송죽동 등)*

내 답변 _____

[인력사항] 당신의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서술해주세요. (ex. 영종도 등)*

내 답변 _____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

제발 !! 꼭 지켜주세요 !!

당신의 가정 정권 (경제 수준)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1 | 2 | 3 | 4 | 5 | |
| 매우 가난한 편이다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매우 부유한 편이다 |

COVID19에 의해 시행된 온라인 개학 및 온라인 교육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COVID19, 당신의 교육/학습권은 안전한가요?

* 필수항목

불편함을 겪은 이유와 그 해결방안

불편함을 겪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알려주세요.*

-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등)이 아예 없거나 부족해서
- 학교에서 미흡한 교육의 질이 전혀히 떨어져서
- 교사와의 상호작용(질문, 추가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 온라인 플랫폼 등의 용량 오류, 버그/킹 등이 너무 심해서
- 실시간 수업을 하지 않아서
- 기타: _____

위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서술해주세요. (여러가지를 글렀다면 하나만 서술해주시어도 좋습니다. 자유)

내 답변 _____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 실태

교육권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교육권은 아동을 위한 모든 연령층의 권리입니다. 교육권은 공교육 혹은 정규교육뿐 아니라 사교육 및 비정규교육도 포함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교육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1 2 3 4 5
아예 모름다 ○ ○ ○ ○ ○ 아주 잘 안다

COVID19 이전과 비교하여, 본인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2 3 4 5
전혀 침해받지 않고 있다. ○ ○ ○ ○ ○ 매우 침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략히 적어주세요. (자유)

내 답변 _____

학습권
언론이 제기한 사립학교의 학습권 침해에 연계를 형성하고 영감이 중등에 거점을 삼행위에 영인적으로 성장 및 발달하여 일 국외로서, 국가권력이나 제3차로부터 학습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유됩니다. 교육내용 선택, 환경 및 참여권, 표현의 자유, 국가에 교육조건이 정비 (양적/질적/재정적 제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학습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1 2 3 4 5
아예 모름다 ○ ○ ○ ○ ○ 아주 잘 안다

COVID19 이전과 비교하여, 본인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2 3 4 5
전혀 침해받지 않고 있다. ○ ○ ○ ○ ○ 매우 침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략히 적어주세요. (자유)

내 답변 _____

마무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개학 시대 '교육 플랫폼'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예
○ 아니요

COVID 19 상황 속 아동의 교육권 및 학습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서술해주세요!

내 답변 _____

설문 참여자 중 주장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카카오북 ID 또는 전화 번호를 적어주세요! (자유)

내 답변 _____

링크: <https://forms.gle/C6arTRGD4gLGTr1P8>

이외의 아동들의 경우 대면 인터뷰 및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거나, 인터넷 자료 조사 진행함.

<p>권역주제</p>	<p>공통주제와 내용 동일 [단원이 진행한 인터넷 설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목적: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에 대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대처를 중심으로 (최윤서, 최민재 단원의 모니터링 중)
-------------	---

	<p>하지만 약간의 변형을 주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p> <p>(1) 첫 번째 방법의 경우 기존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실무자들에게 큰 부담감을 주지 않을 수 있음.</p> <p>(2) 두 번째 방법의 경우,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이기에 위험부담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 존재함. 이에 실무자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음.</p> <p>3)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작성해보기(기대효과, 장·단점) 자신이 제시한 문제해결방안을 적용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혹은 장단점을 짚어볼 것. 이는 상대방이 왜 이러한 문제해결방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함.</p>
권역주제	공통주제와 내용 동일

Step 5. 권역별 아동 제안	
<p style="text-align: center;">『 최민재, 최윤서 단원 활동보고서 中 』</p> <p>1.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교육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p> <p>1. 문제의식 및 계기</p> <p>지난 설문조사에서, 아동의 온라인 교육 불편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60% 가량이 온라인 교육에 불편함 또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개편이 필수적임.</p> <p>구체적으로 아동이 불편함을 겪었던 요인은 ‘교사와의 상호작용 부족’이 가장 컸고, ‘온라인클래스 플랫폼 자체의 오류 및 버퍼링’,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기기의 부족’ 등이 있었음. 이에, 이렇게 아동이 겪는 불편함을 원초적으로 제거하고 질 높은 아동의 온라인 교육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책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함.</p> <p>2. 정책 내용</p> <p>① 과목별 1주 1회 실시간 질문방 운영의 의무화;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중 가장 자신의 교육권 및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낀 부분이 ‘교사와의 상호작용 부족으로 인한 궁금증 및 질문 해결 기회의 박탈’이었음. 이에, 이를 개선하고 교사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청 등에서 의무적으로 교사로 하여금 실시간 질문방을 운영하게 해</p>	

야 할 것임. 과목 혹은 반별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전용 유튜브, 밴드라이브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모두가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실시간 수업이 여의치 않은 학생의 경우엔 실시간 질의응답을 녹화하여 영상으로 제작 후 온라인 클래스에 게재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공평한 교육을 보장함.

이렇게 학생들과 교사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 1주 1회. 유동적 조절 가능, 학생 자유 참여) 글로써는 해결하기 힘든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게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고, 온라인 교육 시기 소홀해질 수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임.

② **‘찾아가는 학교 서비스’**; 소규모 그룹별로 맞벌이 또는 빈곤가정 초등저학년 아동이 ‘면대면’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이나 시/구에서 금전, 인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일컬음.

온라인 개학과 관련한 큰 문제는, 초등 저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스스로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아이들을 대신해 출석 점검부터 과제 제출까지 떠안게 됐다는 점임. 이는 자녀의 학습권 및 교육권, 사회성 향상의 계기를 박탈함과 더불어, 자녀의 개학이 ‘부모 개학’이 되어 부모에게도 엄청난 짐을 안겨줌을 의미함.

이에, ‘찾아가는 학교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교육 여건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부족)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교육을 소그룹으로 실시하거나, 동사무소나 아파트문화센터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한 장소를 제공하고 직접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에 도움을 주는 등 (플랫폼 사용법 교육, 실제 실시간 수업 채팅 도움 등등),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온라인 교육 시대 학습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선별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농후함.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① 초등 저학년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의 아동 ② 상대적 빈곤(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 상태에 놓여 온라인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가정의 아동임.

③ **빈곤 가정에 아동 1인당 초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상당의 교육 바우처 지급**; 긴급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떠나 ‘교육’관련해서 ‘지역 상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중위소득 50%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나이 별로 차별을 두고 지급함.

본 바우처는 인근 서점이나 문구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함. 사용 기한이 정해져있으나 기간은 유동적으로 조절 가능케 함. 학업적 용도 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함.

이러한 교육 바우처 지급은 1) 아동으로 하여금 금전적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육권 및 학습권 박탈과 관련한 문제를 제고할 수 있고, COVID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님.

4. 기대 효과

① 실시간 질문방 의무화: 학원 등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와 자기주도학습을 위주로 학습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 학습결손을 중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COVID19로 인해 사교육을 하는 계층과 하지 '않는' 혹은 하지 '못하는'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각하다는 자료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② 찾아가는 학교 서비스: 새롭게 정의되는 '온라인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 토대 역할을 할 만한 제도의 성격을 가짐. 그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띤 정책으로써 특히 사회적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1~2학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는 데에 본 정책의 효과가 기대됨.

③ 교육 바우처 지급: 교육권/학습권 보장이 계층이동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맘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 데에서 교육바우처 지급은 의미를 가짐.

필기구부터 문제집이나 책 같은 교재까지 돈이 적잖이 들어가는데 매달, 그런 걸 보조해 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면, 정부에서 원하는 부분에 기간 동안 소비가 이뤄질 것이고, 그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도 끌어올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은 학용품 좀 더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임.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임에 틀림없음.

빈곤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본 모니터링 활동의 취지에도 적합한 정책임.

II. 아동학대의 사후대처와 관련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1. 문제의식 및 계기

9월 모니터링 활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학생 중 약 90%의 학생들이 아동의 정서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며, 이 중 80%이상이 정서학대를 경험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정서학대를 접하였다고 응답함. 그들의 응답을 직접 들어본 결과, 부모는 대부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에게 정서학대를 가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학업 내용에 대해 정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정서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가스라이팅에 대한 경계'가 제시되었고 이를 중점적으로 정책 제안을 구성하고자 함.

2. 정책 내용

① 지자체 차원의 가스라이팅 교육 및 경계 의식 형성

가스라이팅이란 심리학 용어로, 상대방의 심리 또는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 상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신적 학대 행위를 뜻함. 아동 정서학대에 입각해서 가스라이팅의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이 모든게 네 잘못으로 생긴 일인거 모르니? //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너를 감당이나 하겠니? // 이러니까 네가 무시를 당하는거란다. // 넌 자식이 되어서 부모 말을 따라야지, 이 정도도 못 참니? //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 등과 같이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고 조작함으로써 정서학대와 정신 지배를 일으킴.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자기학대, 우울증, 무기력증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면서 가해자에게 벗어날 수 없게 되어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됨.

지자체는 주민 센터의 공간을 통해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 심리학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스라이팅을 무심코 저지르는 부모에게 자신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뱉어낸 말들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화살로 날아가 꽃힐지 깨닫게 해야함. 인간은 학습과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가스라이팅 경계의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정책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됨.

② 낭비되는 예산 찾기 + 아동 발달 심리 센터 확대 및 가정교사 방문제도 실시

필자가 제안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제로 국회 예산을 조사해보다가 사용되는 국회 예산 중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내역을 발견함. 예를 들어, 연말이 되면 우리는 상태가 괜찮았던 보도블럭을 다 뜯었다가 다시 새로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예산을 다 쓰지 못하여서 예산이 남았고 이를 다 쓰지 못할 경우,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올해 예산보다 더 적은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라도 예산을 쓴다는 것을 발견함.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을 이용해 지금 제시하는 정책을 도입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필자는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을 이용하여 아동 발달 심리센터를 확대하고 가정교사 방문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필자가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만 고려해도 남동구 전체 가구수는 224,095가구에 달하지만, 아동발달심리 센터는 총 5곳에 불과함. 불필요한 유흥업소를 줄이고, 아동발달심리센터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및 아동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또한 빈곤과 학대는 비례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음. 부모가 열악한 직업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학대의 형태로 해소한다는 것을 의미

함. 따라서 필자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를 집중적으로 주목하여 가정교사 방문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교원구문, 눈높이 등과 같이 가정교사가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학습시키는 시스템은 아이의 학업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의 기본적 태도, 습관, 개인의 세계관 등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필자 역시 어린 시절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학업 증진에 있어서 효과를 봄.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가정교사와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교사가 필자에게 올바른 마음가짐, 긍정적인 태도를 학습시킴으로써 필자는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었음. 이러한 현상은 여러 논문에도 발표하였기 때문에 가정교사 방문제도와 아동의 정서 안정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함.

4. 기대 효과

① 지자체 차원의 가스라이팅 교육 및 경계 의식 형성

지자체 차원에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경계하자는 분위기는 국가 차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아동 정서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등장한다면, 천부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아동의 학대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② 낭비되는 예산 찾기 + 아동 발달 심리 센터 확대 및 가정교사 방문제도 실시

먼저, 낭비되는 예산을 찾기 위해서는 각 행정기관이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함. 일단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최고 목적으로 해야하는 국회와 정부에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각 기관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산을 아동발달심리센터를 확충하고, 가정교사 방문제도를 실시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아동 인권을 가장 많이 보장하고 보호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음.

대한민국이라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이 가장 노출되기 쉬운 학대, 바로 정서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2가지 정책이라고 판단됨.

『 박수현 단원 활동보고서 中 』

1. 사회적 재난 속, 빈곤 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 캠페인 제안

다음의 법률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1.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한번에 후원될 수 있는 후원금액은 지원하려고 하는 아동과 해당 가정의 재산의 40%를 초과하여 전달하지 않는다. 단, 첫번째 후원 이후 전달되는 후원금들의 금액도 이 조항을 따라 후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첫번째 이후의 후원금은 한 달을 기준으로 지원되도록 한다.

-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금전적인 후원은 위법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도록 하나, 만약 후원자가 불가피하게 아동이라면 후원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위법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만일 이 법률에 대한 내용을 위반할 시 후원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금전적인 후원을 언론화 하고자 할 시, 후원을 받게 될 아동의 심리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아동의 심리검사 결과가 빈곤가정에서의 생활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정 상태라면 후원자는 아동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지원도 해주어야 한다. 단, 언론화 하지 않고 한 아동 당 5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이라면 해당 법률을 따르지 않아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이 법률은 회사의 이미지만을 위한 보여주기 식 후원을 방지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금전적인 후원은 위법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도록 하나, 만약 후원자가 불가피하게 아동이라면 후원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위법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만일 이 법률에 대한 내용을 위반할 시 후원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빈곤가정의 아동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빈곤가정이라고 인정되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후원자들의 후원들이 매우 중요하다. ‘굿네이버스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 따라 코로나 19 전후 아동의 일상 변화에서 끼니를 걸렀다는 아동은 총 675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2018년 보다 2020년에 약 14% 늘어난 64.1%였으나 여전히 후원은 과거와 같은 수준이거나 오

히려 경기침체로 인해 더욱 감소되었다. 따라서 나는 후원 캠페인 진행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캠페인은 금전적인 후원만을 격려하기 보다는 과거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버려질 위기에 처해진 실용적인 물건들, 응원 편지를 격려하도록 한다. 아동들은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필요한 물건들을 받을 수 있고 물건을 후원해주는 사람은 자신의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들을 빈곤 가정 아동들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이룰 수 있고 물건을 버리고 새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환경오염의 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2. 방임피해 인지 매뉴얼, 목격자 매뉴얼 제안 마련

〈방임학대 아동을 발견했을 때 목격자가 해야 하는 것〉

1. 방임피해 의심 아동과 대화를 통해 보호자가 아동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을 잘 마련해주고 있고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양육을 해주고 있는지 물어본다.
2. 방임피해 의심 아동과의 대화 이후 방임이 의심된다면 해당 아동에게 방임피해 사실을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 (방임은 피해 아동도, 보호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시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 피해 아동과 함께 경찰서나 주변 아동복지 시설을 찾아 데려가거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신고를 할 때에는 자신이 아는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함께 얘기하도록 한다. 많은 정보를 얘기해줄수록 아동에 대해 경찰이 줄 수 있는 도움은 많아질 것이다.
4. 경찰서나 주변 아동복지 시설에서는 해당 아동을 조사하여 방임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맞다면 아동에게 보호자에 대한 처벌여부를 물어본다. 아동이 처벌을 원하면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아동은 복지시설에서 보호한다.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귀가조치를 하되 보호자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고 방임사실을 인정하거나 정황적 근거가 보인다면 방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복지시설에서 자주 해당 아동의 집에 방문하여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보호자가 교육이수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아동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동의 의견과 관계없이 아동을 보호기관으로 보내고 보호자는 처벌한다.

〈방임피해를 인지하는 방법〉

1. 보호자가 나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옷이나 음식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호자가 최선을 다해 제공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방임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누가 봐도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은 곳에 보호자가 방치한다.
3.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았다. 이것은 보호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보호자가 대답을 피하거나 안한다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모르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4. 모르는 곳에 나를 방치하고 찾으러 오지 않는다.
5. 보호자가 나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단, 홈스쿨링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내가 많이 아픈데 병원을 데려가거나 처치를 해주지 않는다.
7. 보호자가 내가 대화를 걸 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일에 대다수이다.
8. 보호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 보호자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약을 복용하는 상태라면 의심해봐야 한다. 단, 1,2번이 해당되지 않고 3번만 해당되면 방임이 아닐 수 있다.
9. 자신이 방임 피해 아동이라고 생각된다면 주저 말고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 아동복지 센터에 전화한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당신에게 경찰과 아동 복지 센터는 당신을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입니다. 경찰이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당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주변 어른들에게라도 꼭 말하세요! 방임도 학대입니다. 방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음미현 단원 활동보고서 中 』

1. 사회적 재난과 아동의 안전 관련 제안

코로나 19로 발생한 가정폭력에 대하여 우리 당국의 대처는 피해자를 위해 상담지원을 하였으며 지역마다 폭력 예방과 대처 원칙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 해결방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시기여도 학교에 번갈아가며 등교를 하기도 하고 계속 등교를 하기도 해서 대면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인터넷이 없거나 소식을 얻지 못하는 아동들은 상담지원이나 폭력 예방과 대처 원칙에 대한 소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대면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면 이러한 점은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우리 국가기관 및 여러 단체에서 정서학대피해와 같은 내용의 사후 대처 활동으로는 대처방법만 알려줄 뿐 다른 대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건소, 상담소, 학교 시설에 있는 상담시설에서 대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 나는 상담시설이 잘 이루어져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기관 및 여러 단체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하는 아동이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2. 기대효과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대면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격주로 등교하는 학교가 있으니 강사분은 힘이 들 수 있겠지만 만약 자신의 교육으로 인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면 부딪힘을 느낄 수 있고 그 아동을 위하여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아동을 가정폭력으로부터 헤어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울증이 심한 아동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면 지원되는 비용이 크겠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사건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

『 지가은 단원 활동보고서 中 』

1. 사회적 재난과 아동은 안전 관련 제안

8, 9월 조사했던 사회적 재난으로 심리적인 불안이나 우울감등을 받은 아동들을 위해서는 이 영향을 해소시키고, 회복시키도록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처럼 심리상담 또는 치료 센터 방문을 하게 하여 확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아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장시간 블루스크린에 노출되기에, 안경점이나 안과 등에서 아동 할인제도, 정기검진 연락 또는 학교에서 손소독제 나눠주듯 인공눈물을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코로나19로 체육활동이 제한되었던 아동들을 위해 교내 아침점심저녁 스포츠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실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 아동학대 관련 제안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방안은 예방밖에는 없는 것 같다. 아동학대는 평생 남는 후유증과 한 아동의 인생을 망치는 길일 수도 있고, 국가 미래 인재 성장을 둔화시킬 수도 있기에 꼭 사라져야만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부모들이 잘 모르고 저지르는 아동학대들과 경각심등) 이 많이 시행되면 좋겠다. 또한, 경찰팀중 아동학대 전담 팀을 구성하여 학대의심 가정이나 신고받은 가정을 주시하거나 계속해서 순찰하는 등의 형식을 더욱 확대하면 좋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피해 아동들의 억울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처벌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벌금을 내거나 몇개월에서 몇년정도 감옥살이를 하다 나오면, 혹은 전자발찌나 감시가 풀린다면 그 아동에게 다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Step 6. 활동소감 (코디네이터, LENS)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빈곤가정 아동들과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과연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만큼 핵심이 되는 이번 활동을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 아동과 관련된 전문직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지식이 부족하고 아동들에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인 나의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름 열심히 법률 제안도 해보고 캠페인도 제안해보고 매뉴얼도 만들어보았다. 다 쓰고 읽어보니 약간 허술한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글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보람있고 기뻐다. 모든 아동들이 태생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힘든 아동들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20년 LENS 모니터링 경기_2 권역 단원 박수현 -

이번 아동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주변에도 존재할 수 있는 아동 인권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랐었는데 탐구하고 해결방안까지 고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사회를 더욱 비판적이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0년 LENS 모니터링 경기_2 권역 단원 황규빈-

전반적으로 아동인권에 대해 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 인식, 구체적 상황 분석 및 모니터링, 이를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까지 총 3회의 활동을 진행하며 '아동의 권리'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단계적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부듯합니다. 실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도 해 보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게 도와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2020년 LENS 모니터링 경기_2 권역 단원 최윤서-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 형식에 맞춰야 하는 게 아쉬웠다. 보고서가 가로가 짧고 세로로 길다보니 쓸 때 보고서 내용이 잘 돋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웠다. 그래서 보고서 형식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각 권역별로 주제를 다르게 해서 카페에서 다른 권역 친구들의 주제를 보고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내가 아동인권의 문제점을 주제로 잡고 3달 동안 단계별로(문제점 찾기, 해결방안 만들기 등)알아간다는 점이 좋았다.

- 2020년 LENS 모니터링 경기_2 권역 단원 박혜윤-

코디네이터로서 해야 했던 행동은, 최대한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의 입장을 반영해서, 단원들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점을 도와주는 것이며, 단원들이 방향을 잡기 힘들 때 도움을 주되, 최대한 아동들 스스로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대면으로 진행하여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에 더 아쉬움을 느꼈다. 해당 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이 불과 5년까지는 아동이었고, 그 당시 아동이었던 '나'가 이러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 어땠을까, 어떻게하면 더 관심을 가지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아동들에게 모니터링 활동에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의 취지는 사회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과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의 권리 보호 및 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취지의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

- 2020년 LENS 모니터링 경기_2 권역 코디네이터 전해웅-

Step 7. 활동 피드백

활동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큰 제약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활동을 비대면 활동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원들이 공통주제 및 권역주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달에 2가지 주제를 모니터링해야한다는 점에서 단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주어졌다. 이와 더불어 참여 단원들의 학사일정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서로 달랐기에 동일한 모니터링 일정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사료된다.

실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동들에게 사실상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점은 앞서 말한 두 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한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해당 모니터링의 목적은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외부

로부터의 그 권리의 부당한 침해 사실에 대해, 적절한 권리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부담감이 주어지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들면, 그만큼 단원들의 해당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모니터링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 역시 떨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3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2가지 주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의 진행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본다. 1) 이에 6개월 혹은 1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되, 2) 당사자 모니터링의 본래 목적 달성에 걸맞게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3) 관련 활동 및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체험활동들이 가미된다면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지적 경기3 LENS 시점”

LENS	공가인, 김우주박, 김유빈, 최세웅, 최효린, 황금빛
코디 네이터	김태희

활동주제	
	<p>〈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세부주제 : 코로나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 문제와 그 대안(예방책)</p> <p>1. 발대식 당일 세부주제 도출 과정</p> <p>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에 앞서 사회적 재난에 속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지를 보여주며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유도하였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기업들의 로고를 보여 줌으로써 사회적 재난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개념임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우’로 인한 피해를 물에 잠긴 거리 이미지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사회적 재난의 정의를 설명하였습니다. 발대식 자료집 80쪽, 참고자료 ‘사회적 재난 속 아동 안전에 대한 이해’를 함께 살펴보며 재난 불평등과 취약성을 알아보고 아동들에게 다소 어렵고 길게 느껴지는 문장은 화재 시 안전 취약성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대피법과 일본의 지진 대비 방식을 이야기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p> <p>앞서 서술한 것처럼 아동들이 사회적 재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노력한 후 아동들에게 광범위한 사회적 재난 중에서 어떠한 것에 관심 있는지, 어떠한 재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활동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들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었고 따라서 사회적 재난 중에서 ‘코로나’가 함께 이야기하고 활동하기 좋은 주제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세부주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p>
공통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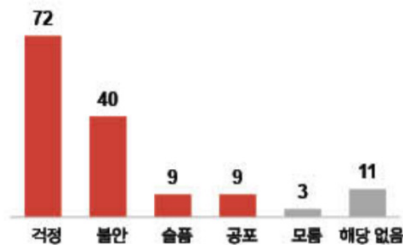
2.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 19’란,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현재 까지 전파 경로는 비밀(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세계 치명률 약 3.4%로 감염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23일, 한국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상향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선별진료소를 만들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격리를 통한 확산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아동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떠올랐습니다. 또한, 등교하지 않는 아동을 챙겨줄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경우 아동의 보호권과 생존권이 걱정되는 실태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보고서 ‘코로나 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가계 수입 감소로 비용 지출이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음식(25%)’, ‘건강 관리(22%)’, ‘필수 영양제(19%)’ 등 영양 및 보건과 관련된 항목이 상위에 응답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19 전후로 아동의 제한된 식생활 및 영양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전보다 양질의 식사를 못 한다는 비율은 43%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활동적 생활습관이 지속되면서 아동의 신체 활동량이 저하되었고 대부분의 아동이 ‘걱정(72%)’, ‘불안(40%)’ 등의 부정감정을 이전보다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래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아동의 표출 감정 설문 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온라인 학습 효율성 저하〉

1. 발대식 당일 권역 주제 도출 과정

아동들이 평소에 느낀 문제점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도록 유도한 후 아동들이 꺼냈던 의견을 정리하여 투표를 통해 권역별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 초에 아동들 모두가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권역 주제 〈온라인 학습 효율성 저하〉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하기 좋은 주제였습니다. 아동들은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면서 낮은 화질과 동영상 재생 오류 등의 문제를 겪었고, 아동 스스로 이를 본인들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지에 이어 아동들에게 온라인 학습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투표에서 과반수를 기록한 〈온라인 학습 효율성 저하〉를 권역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의 학교는 개학을 미루었습니다. 2020년 3월 3일에 예정이던 등교 개학이 3차례에 걸쳐 연기되었으나 교육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개학 및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학교별로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 밴드, 위두랑, 리로스쿨, 클래스팅, Zoom 등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대규모 온라인 학습의 첫 시도인 만큼, 우려곡절이 많았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는 개학 첫날인 4월 9일부터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 측에 따르면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외부 장치가 오히려 병목현상을 일으켰던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서버 오류가 다시 발생했고 영상 끊김, 로그인 불가능, 강의 수강 및 학습 기록 기능 불능, 강의 수강률 동기화 불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보고서 「코로나 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대면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장기적인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동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학습의 방해요소로 ‘하기 싫음(46%)’, ‘숙제나 해야 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음(32%)’, ‘정보 부족(27%)’, ‘공부를 도와줄 사람 부재(22%)’ 등이 높게 나타났고 재택학습 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82%가 자녀의 학습을 도와준다고 응답했으나 그중 충분히 도와주고 있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및 1차 모니터링단 회의

1. 회의 일시 : 2020.08.09.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TOZ 모임센터 신반포점
4. 회의 참석자 : 공가인, 김우주박, 김유빈, 최세웅, 최효린
5. 회의 내용
 - ① 공통주제에 대한 세부주제 도출
 - ② 앞으로의 활동계획 논의
 - ③ 앞으로의 회의 방식 및 일정 논의
 - ④ 체크리스트 건의사항 논의
6. 활동내용
 - ① '코로나'를 키워드로 하여 인터넷 뉴스 및 신문 기사를 통해 실태 조사
7. 활동 세부사항
 - ①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조사한 내용
 - 월드비전이 코로나 19로 인한 다차원적 권리 침해를 겪고 있는 아동 현황을 공유하고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 모색을 위해 '아동권리와 코로나 19 세미나'를 주최했다.
 - 학습기기 미소지 등 온라인 수업을 듣기 힘든 환경에 처한 학생이 존재한다.
 -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 가정폭력이 심해졌다.
 - YTN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8% 넘게 증가했다.
 - 아동 생활 시설은 몇 달째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어 '학대 사각지대'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승하였다.
 - 긴급돌봄 서비스와 천마스크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권역 주제 활동 세부사항

① 인터뷰 내용

대상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또래 아동
목적	온라인 학습 경험자의 의견 모으기
방법	전화 혹은 카톡 (1대1)
질문	1. 온라인 수업과 실제 수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1. 온라인 수업 영상(실시간 ZOOM,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 EBS영상 등 모두 포함) 내용이 정확한가요?
	2-2.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했나요?
	3-1. 온라인 수업 영상의 화질이 시청하기 불편할 정도로 낮거나 영상을 재생하려고 할 때 오류가 생긴 경험이 있나요?
	3-2. 화질이 불편할 정도로 낮거나 영상에 오류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했나요?
	4. 온라인 수업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5.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 온라인 수업의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7. 어떤 인권(생존, 보호, 발달, 참여)이 가장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8.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② 인터뷰 결과

- ① 온라인 수업과 실제 수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온라인 학습은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 수업은 학교에 가야지만 진행할 수 있다.
 - 실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집중력과 학습효과가 높지만, 온라인 수업은 대면이 아닌 화상이나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효과가 떨어진다.
 - 오프라인은 직접 만나서 수업하지만, 온라인은 전자기기를 이용해 수업에 임한다.
 - 온라인 수업은 비대면 수업이지만, 실제 수업은 대면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 실제 수업에서는 잘 집중했었는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이 잘되지 않았다.
- ②-1 온라인 수업 영상(실시간 ZOOM,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 EBS영상 등 모두 포함) 내용이 정확한가요? ②-2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했나요?

- 가끔 정확하지 않은 영상들이 올라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인터넷에 검색한다.
 - 대부분의 영상, 내용이 정확하다.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그 부분을 수정해주시거나 다른 영상을 추천해주신다.
 - 오프라인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 정확하다.
- ㉓-1 온라인 수업 영상의 화질이 시청하기 불편할 정도로 낮거나 영상을 재생하려고 할 때 오류가 생긴 경험이 있나요? ㉓-2 화질이 불편할 정도로 낮거나 영상에 오류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했나요?
- 영상이 끊기고 화질이 안 좋을 때 선생님들께 수업 자료를 수업 마친 후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 없다.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영상이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
 - 오류가 자주 일어난다. 오류가 나면 수업안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집중력이 저하된다. 나아가 수업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 오류가 생긴 적이 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선생님께 얘기드렸고 해결되었다.
- ㉔ 온라인 수업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저학년들에게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익숙치 않아서 따로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고학년들에게는 수업횟수가 적기 때문에 수업횟수를 조금 더 늘리면 좋을 것 같다.
 -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하는 것을 더 강화시켜야 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서비스와 수업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 쌍방향 수업이었으면 좋겠다.
- ㉕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문서를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수업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보다 긴장감이 덜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 서버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 ㉖ 온라인 수업의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수업 중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생길 시 바로 검색할 수 있다.
 - 동영상을 다시 돌려 보며 필기를 할 수 있고 코로나 19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을 지킬 수 있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 감염의 위험성이 사라지고 오프라인보다 수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 더욱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 온라인 수업은 실제 수업과는 다르게 바로 녹화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더 많이 계획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 ⑦ 어떤 인권(생존, 보호, 발달, 참여)이 가장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참여권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수업을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진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 ⑧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 하루빨리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현재도 많은 의사분들과 선생님,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전 국민과 전 세계인이 힘들고 지쳐있지만,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화상으로 만나고 '나 하나쯤은 괜찮아'가 아닌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힘들더라도 예방수칙과 예방법을 지키며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 온라인 수업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 같다. 오프라인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 온라인 수업 때문에 시력이 낮아질 것 같다. 그리고 등교를 하지 않으니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놀 수 없어 아쉽다.
 -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 친구들 중에는 영상을 틀어놓고 자는 애들이 많다.
 - 코로나를 이겨내서 등교하고 싶다.

Step 2.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1. 회의 일시 : 2020.09.20. 2. 회의 방식 : 비대면 ZOOM 3. 회의 참석자 : 공가인, 김우주박, 김유빈, 최세웅, 최효린, 황금빛 4. 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차 활동 보고서 피드백 ② 1차 활동 결과 발표 ③ 1차 활동 결과 활용 방안 논의

	<p>5. 활동내용 ① 1차 활동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담아 콘텐츠 제작</p> <p>6. 활동 세부사항 ① 아동들이 제작한 콘텐츠 개수 : 6개 ② 아동들이 제작한 콘텐츠 형식(개수) : 설명문(1), 포스터(3), 만화(1), PPT(1) *콘텐츠 자료는 아래에 첨부함.</p>
<p>권역주제</p>	<p>1. 회의 일시 : 2020.09.20.</p> <p>2. 회의 방식 : 비대면 ZOOM</p> <p>3. 회의 참석자 : 공가인, 김우주박, 김유빈, 최세웅, 최효린, 황금빛</p> <p>4. 회의 내용 ① 1차 활동 보고서 피드백 ② 2차 활동 대상 및 방식 논의</p> <p>5. 활동내용 ① 온라인 학습과 관련된 전문가 인터뷰 ② 전문가 인터뷰 불가능한 경우, 1차 인터뷰 내용을 담은 콘텐츠 제작</p> <p>6. 활동 세부사항 ① 포천시청 교육지원과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인터뷰 내용 (두 명의 아동이 함께 진행함.) Q1 : 선생님께서 실시간 수업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시면서 탄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 답변 : 청소년들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에서 모든 친구들을 검사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미있는 비대면 수업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Q2 : 그럼 이런 학생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답변 : 학생들 중에서 자기 주도 학습이 부족하고 동기부여가 잘되어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Q3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온라인 수업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해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p>

Q4 : 반대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답변 : 컴퓨터의 앱을 활용하고 빠르게 타자 치면서 수업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의 수업 방식을 미리 빨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Q5 : 온라인 수업에 대한 손해와 이득이 있으신가요?

- 답변 : 수업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수업의 효율성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에 많은 학생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수습 방법이랍니다.

②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1 인터뷰 내용

Q1 : 화상수업의 진도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 답변 :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이 화상이 최대한 대체한 방식이라 조금만 나아지면 등교횟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Q2 : 렉이 걸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 답변 : 어쩔 수 없이 렉이 걸리지 않을 때까지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대신, 렉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한 경우는 대면 수업 시에 다시 설명합니다.

③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2 인터뷰 내용

Q1 : 영상이 자주 끊기고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 답변 : 영상의 질을 더욱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2 : 영상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 답변 : 앞으로는 영상의 내용이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④ 전문가 인터뷰 불가능했던 경우

- 제작된 콘텐츠(개수) : 만화(1)

*자료는 아래에 첨부함.

Step 3. 3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p>1. 회의 일시 : 2020.10.18</p> <p>2. 회의 방식 : 비대면 ZOOM</p> <p>3. 회의 참석자 : 공가인, 김우주박, 최세웅, 최효린, 황금빛</p> <p>4. 회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차 보고서 피드백 ② 제작된 콘텐츠 감상 ③ 콘텐츠 설명 작성 ④ 콘텐츠 공유 방식 논의 <p>5. 활동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콘텐츠 설명 작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을 왜 만들었나요? -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 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나요? - 작품을 만들면서 혹은 만들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② 콘텐츠 공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를 모아 신문 형식으로 제작 - 비대면 : 제작된 신문을 카톡으로 공유 - 대면 : 제작된 신문을 학교 쉬는 시간에 공유 - 콘텐츠 공유 시 필수 멘트 :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p>*제작된 신문은 아래에 첨부함.</p> <p>6. 활동 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문 공유 후 얻은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지키면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다. -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해 나도 열심히 실천해야겠다. - 환경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동들의 생존권을 존중해야 할 것 같다. - 신문의 내용이 좋은 것 같다. -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할 것 같다. - 코로나의 심각성을 모든 사람이 인지하면 좋을 것 같다.
권역주제	<p>1. 회의 일시 : 2020.10.18</p> <p>2. 회의 방식 : 비대면 ZOOM</p> <p>3. 회의 참석자 : 공가인, 김우주박, 최세웅, 최효린, 황금빛</p>

	<p>4. 회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차 보고서 피드백 ② 전문가 인터뷰 결과 발표 ③ 전문가 인터뷰 및 콘텐츠 공유 방식 논의 <p>5. 활동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콘텐츠 공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를 모아 신문 형식으로 제작 - 비대면 : 제작된 신문을 카톡으로 공유 - 대면 : 제작된 신문을 학교 쉬는 시간에 공유 - 콘텐츠 공유 시 필수 멘트 :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제작된 신문은 아래에 첨부함. <p>6. 활동 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문 공유 후 얻은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것은 대부분의 학생이 반성할 문제라고 본다. 내가 관심 있는 학습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되었다. - 온라인 학습의 단점이 있지만 분명 장점도 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시는 수업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수업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 분명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빨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싶다. -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온라인 학습 말고 학교에서 공부하면 좋겠다. - 온라인 학습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다.
--	--

Step 4. 권역별 아동 제안	
1.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폭력의 심화가 우려되므로 아동의 보호권을 위해 가정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동 생활 시설 등 코로나로 인한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많이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권역 주제

- 온라인 수업을 듣기 힘든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많은 수의 학습기기를 대여해주고 안전한 학습 장소 제공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익숙치 않아서 따로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은 수업횟수가 적기 때문에 수업횟수를 조금 더 늘려 학습량을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금 더 효율적인 학생 출결 관리 방식을 개발하고 모든 학생이 쌍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업 영상이 유튜브 영상처럼 스토리텔링식으로 더욱 풍부하고 재밌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ep 5. 활동소감 (코디네이터, LENS)

1. 모니터링단 활동 소감

- 공가인 : 이 활동을 하며 아동 인권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실 이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재난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이제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차이점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힘든 것은 어른들이 아닌 우리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터뷰를 하며 불편한 점도 알았습니다. 재난의 심각성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동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고 보완해서 좋은 활동인 것 같았습니다.
- 김우주박 : 저는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아동 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 아동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게 되어 지금까지의 활동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활동을 기억하며 아동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것입니다.
- 김유빈 :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아동 인권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세웅 : 저는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글쓰기 실력이 는 건 물론이고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현재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참여해보고 싶고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 최효린 : 아동 인권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욱 관심 가지게 되었고 사회적 재난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문제를 끼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황금빛 :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아동 인권에 더욱 관심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 인권의 중요함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아동 인권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2. 코디네이터 활동 소감

아동들과 처음 만났던 여름날이 엇그제 같을 정도로 생생한데 벌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얼떨떨합니다. 코디네이터로서 나름 고군분투했던 지난날의 저를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3 권역 아동들이 매달 자신들의 능력 내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었고 3개의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주어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하며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아동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1기 단원으로 활동했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때문에 1기 단원이었던 때의 저보다 어린 아동들이 보고서 작성을 힘들어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니터링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코디네이터분께 많은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아동들을 힘껏 조력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양식에 카테고리별로 세세한 주석을 달아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아동들에게 보고서 작성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제 노력이 아동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의 보고서가 가이드라인을 본 후 더욱 짝 채워지는 것을 보며 무엇인가를 하긴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기보다 보고서의 자율성을 강조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실무진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제 그간의 노력에 만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은 제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만큼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능력 부족으로 아동들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 제 역량을 발전시켜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경험이 거름이 되어 더욱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 앞길에 무엇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지금보다 편안한 사람으로서 나은 행보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사업을 위해 많이 힘써주셨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실무진분들과 관계자분들, 코디네이터분들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활동하며 개성과 열정, 의지를 보여주었던 우리 경기3권역 아동들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문에 대한 다양한 반응

코로나19 예방하자~
마스크 쓰기, 비누로 손 자주 씻기,
손소독제로 소독하기
오후 9:09

아 너가 이런걸 만드는 것을 보니
나도 코로나 예방법을 잘 지켜야겠어
우리 모두 코로나 예방법을 지켜서
코로나를 이겨버리자 !!!!
오후 10:58

나혼자가 아닌 우리모두가 지키면 코로
나 19 그까이꺼 극복할수있습니다,
오후 9:10

나도 열심히 실천해야겠다
오후 9:10

우와~
학교에서도 열심히 실천하네!
코로나19 예방법!
나도 열심히 실천할게~
오후 9:12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것은
대부분의 학생이 반성할 문제라고
봅니다
오후 9:58

제가 관심있는 학습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단점이 있지만 분명
장점도 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시는 수업에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수업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오후 11:31

그러면 분명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수있을거다

Step 7. 활동 피드백

1. 발대식

- 1기의 발대식과 달리 권역별로 따로 모여 발대식을 진행해서 지역별 이동에 대한 부담이 덜해진 것 같고 권역별로 존재하는 나이대의 차이에 따라 발대식의 진행 방식도 달라졌으므로 더욱 효율적인 발대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비대면 회의

- 경기3 권역의 경우 아동들이 모두 경기 권역에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만나려 해도 1시간의 이동시간을 기본으로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동행이 필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회의를 통해 이동에 대한 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대식 당일, 이른 시간에 일어나 긴 시간 이동한 아동들에게 피로감이 느껴져 진행이 힘든 점이 있었는데 비대면 회의에서는 피로감 없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비대면 특성상 회의 시간에 소통 외에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3. 활동 기간

- 아동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권역별로 아동들끼리 친밀도를 쌓고 활동을 준비할 여분의 시간이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 긴 기간에 걸쳐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적 경남 LENS 시점”

LENS	홍예빈, 김수아, 김윤경, 정해원, 송유진, 윤솔희, 강민진, 전유진, 정유진, 조희원, 김지수, 안여진, 이채현
코디 네이터	이성주

활동주제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대식 전, 아동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주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지 설문을 진행하여 대략적인 아동들의 선호도를 파악했습니다. ● 이러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발대식에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라는 큰 틀을 기반으로 한 토의를 통해 아동들이 ‘사생활 침해’, ‘시민의식’, ‘교육격차’, ‘문화생활 제한’이라는 세부주제를 설정 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주제 4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공통 주제(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사생활 침해</td> </tr> <tr> <td>2</td> <td>사회적 재난 속 시민의식</td> </tr> <tr> <td>3</td> <td>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교육격차</td> </tr> <tr> <td>4</td> <td>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문화생활 제한</td> </tr> <tr> <td>5</td> <td>인터넷 중독</td> </tr> </tbody> </table>	공통 주제(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		1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사생활 침해	2	사회적 재난 속 시민의식	3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교육격차	4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문화생활 제한	5
공통 주제(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안전)												
1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사생활 침해											
2	사회적 재난 속 시민의식											
3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교육격차											
4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문화생활 제한											
5	인터넷 중독											

권역주제	● 권역별 주제 또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하였으며,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기조로 하여 다양한 세부사안들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 총 주제 4개
	권역별 주제(범죄로부터 우리는 안전한가요?)
	1 양날의 검, 촉법소년
	2 아동학대 피해자는 안전한가?
3 아동 대상 범죄의 형량과 처벌수준이 적절한가요?	
4 아동의 정당방위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p>※ 공통주제 및 모니터링 방법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모니터링 방법을 팀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경남 권역은 타 권역과 다르게 동아리가 단체로 지원하였다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모니터링단원들 간의 토의와 만남이 보다 자유로웠고, 팀 활동을 통해 선정된 주제에 집중한다면 보다 다각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팀 활동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공통주제를 모니터링함에 있어서, 재난 상황(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부분과 이를 확산시키는 요인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 상황 속 아동의 사생활 침해와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침해 및 위협의 확산에 집중하여 모니터링을 하고자 한다. <p>※ 권역별주제 및 모니터링 방법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지역은 모니터링 주제로 “범죄로부터 우리는 안전한가요?”로 설정하였다. 먼저, 경남 지역의 아동 대다수가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히 보호받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에 현행 형법 및 소년법이 아동을 범죄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촉법소년 및 소년법, 아동 대상 범죄의 실태, 아동피해자 보호 현황으로 주제를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 기존의 계획대로 공통주제를 카테고리화 하여 팀을 구성하였다.

이성주
8월 18일 오후 9:42 · 14명 읽음

Q. 팀 선정

- 시민의식 9
- 사생활침해 4
- 문화생활 1

투표하기

참여중 14

♡ 가장 먼저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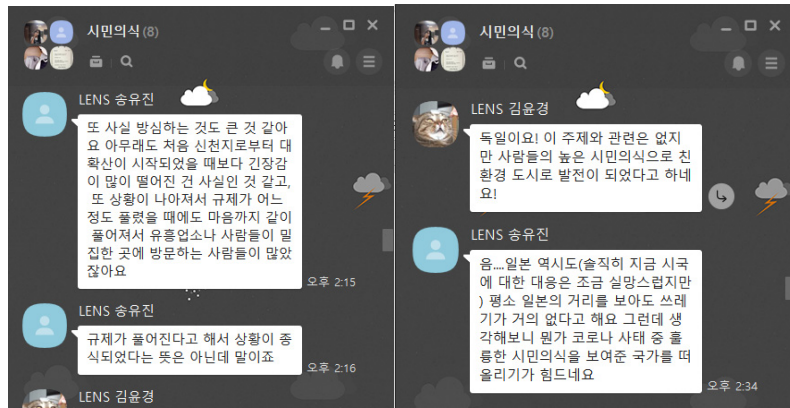
(교육격차와 인터넷 중독은 시민의식 팀에서 분화하여, 차후에 형성되었다.)

- 발대식에서 논의되었던 3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 대다수의 아동들이 재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 인권 침해를 얘기 하며, 재난 상황이 종식되지 아니하는 한 아동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거라는 주장과 함께, 재난 상황의 지속 원인으로의 '시민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침해받는 영역이 사생활의 영역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팀 또한 구성되었다. 재난 상황에서의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발대식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의 아동들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 팀 활동에 있어서 인원의 몰림은 경남 권역이 학성여자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되는 바, 1,2,3학년 학생들 간의 친밀도 차이도 팀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 인원이 다소 편중되었으나, ① 다수의 아동이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가 중요도가 더 높은 주제일 것이다. ② 모든 아동들이 자신이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LENS'모니터링단의 취지에 맞다. 라는 것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하였다. (투표 진행 후 변동으로 시민의식 : 8명, 사생활 침해 4명, 문화생활 2명으로 팀이 구성되었다.)

- 세부주제 결정

● 시민의식 팀



- 공통주제(시민의식)

1. 감염병 상황에서 공동체에 대한 무책임
 - > 자가격리 무시
 - > 공공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2. 감염병 상황에서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감 부여
 - > 지나친 자유 제한
 - > 감염자들의 인신공격(+ 이에 대한 두려움,불안감)
 - => 감염 시, 신체적 고통 + 정신적 고통 + 사회적 고통
3. 과도한 교육열
 - > 코로나 상황이 심각함에도 높은 수준의 경쟁
 - >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인가?
 - > 학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인가?
 - > 코로나 상황에서 입시에 대한 부담감(+불안) 증폭

- 팀별로 단독방을 만들어서 사회적 재난 속 시민의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사회적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이 전반적인 사회의 양상과 사회 속 개인의 인권 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시민의식 팀'의 핵심적인 생각이었다.
- 시민의식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견해 및 인식"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시민의식으로 발생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온라인 토의를 통해 아동들이 모니터링하고자 결정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 ① 감염병 상황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무책임
 - 무책임으로 인해 사회적 재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복합적인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또한 책임감이 부재한 사회의 모습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무책임한 개인들의 사례와 이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재난의 양상을 아동의 시선에서 다각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② 감염병 상황에서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감 부여
 - 사회가 감염병 지속에 개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부과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개인 및 아동에 인권 제한 사례를 파악한다.
 - ③ 감염병 상황에서 교육열로 발생하는 아동 인권 침해의 양상
 -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 무리하게 대면수업을 재개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교육열로 발생하는 교육격차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부터 아동들의 안전이 위협되며, 아동 간 격차가 발생하는 실태를 파악한다.

● 사생활 팀

└ 공통주제(사생활 침해)

1. 정부의 전국민들의 동선 파악(빅브라더에 대한 우려)
 - + qr코드 스캔 등 정보 제공에서 악관이 아동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움
 2. 감염자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 - 국가에 의한, 개인에 의한
 3. 코로나로 인해 가정 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음
- 시민의식 팀과 동일하게 단독방을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 '사생활 팀'의 핵심적인 생각은 학교, 가정, 국가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감염병을 명목으로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많은 간섭을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개인의 비밀과 사생활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 정보 공개 등으로 2차 피해까지 입게 된다는 것이었다.

- 이로부터 도출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에 대한 지나친 정보 수집과 관리

- 방문지마다 QR코드를 찍어야 하고,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 감염병 방지를 명목으로, 개인의 동선과 일상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고 있다. 특히, QR코드에서의 개인정보이용동의는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학교나 가정에서 동선에 대한 질문을 지나치게 많이 받으며 안전의 이유로 아동은 성인에 비해 더 심한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


② 확진자 및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


- 감염병에 확진이 되면, 신상과 동선이 모두 공개가 된다. 이로부터 개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의 비난 여지만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또한 확진자의 동선에 겹치는 음식점, 학교, 학원들은 방역이 진행됨을 넘어, 사회적으로 지나친 관심을 받게 되고 이로부터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 아동 감염자의 경우 학교전체가 폐쇄됨에 따른 책임에 대한 비난을 받고,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경우가 현 감염병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③ 학교, 가정 등 전반적인 생활 속 사생활 침해

- 학교와 가정 등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아동들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친구와 대화 불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속에서 교내에서 철저히 단절되며 자유로운 행동들이 제한된다. 교내 수업 외에 다른 활동들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집에 사회적 격리를 하는 상황에서 개인만의 공간과 시간이 없어진 아동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문화생활 팀


 Lens 홍예빈(본인)
 체육쪽이 제일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가는 걸 자제시키고, 학교 체육관은 열어주지 않으니 운동할 장소가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 외에도 단체로 하는 활동 (ex: 연극) 등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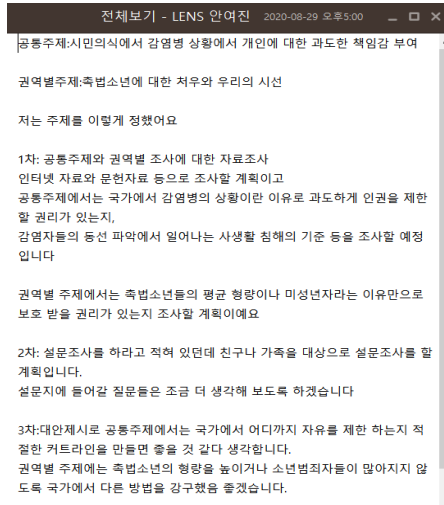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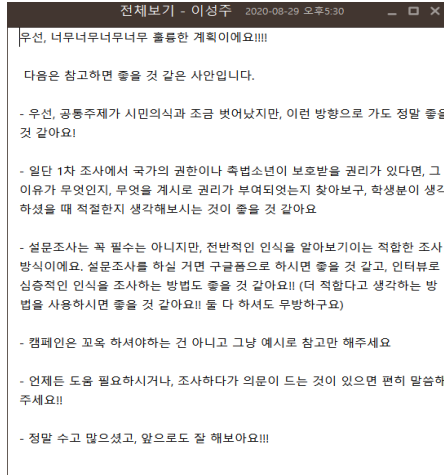

 Lens 홍예빈(본인)
 코로나 19로 인해 제한된 문화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제한된 문화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면 왜인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 것 같은지를 설문조사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사생활팀도 동일하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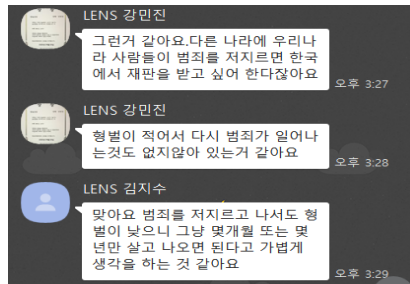
- '사생활 팀'은 핵심적인 생각은 안전이란 비단 신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건전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각종 문화생활들이 제한되며 아동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업에 대한 불안, 교우관계의 단절 등 스트레스의 요인들은 확대됨에 반해 이러한 해소법의 부재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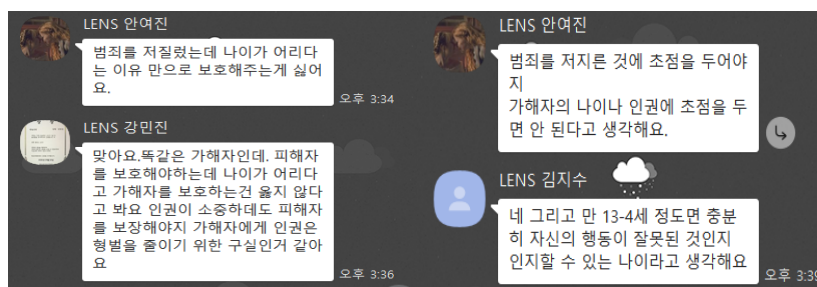
- 계획을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것은 아동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코디네이터에게 간략히 계획을 짜 메시지로 제출하였고, 이에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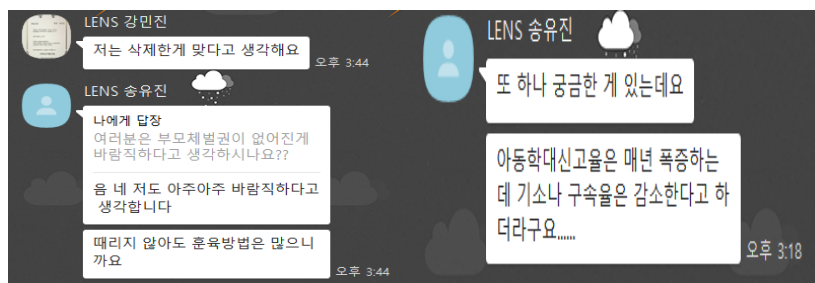
권역주제	<p>※ 권역별 주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주제 또한 팀별로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세 가지의 중심내용을 잡은 후, 각자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중심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



-> 전반적인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 아동학대에 대한 법이 개정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는 아동들도 있었다.

이와같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중심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아동범죄에 대한 형량 제고
- ② 촉법소년 제도의 개정의 필요성
- ③ 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미흡

④ 아동학대, 아동 대상 사이버 성폭력 등 개별 범죄에 대한 조사

▶ 회의를 통해 진행된 핵심 내용은 '아동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함은 물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도 분명하다'는 것과 '아동 관련 형법안에서 아동의 의견이 배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에 아동 범죄 관련 전반적이며 다각화된 조사를 진행하여 유의미한 제언을 하는 것을 경남 권역 모니터링단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 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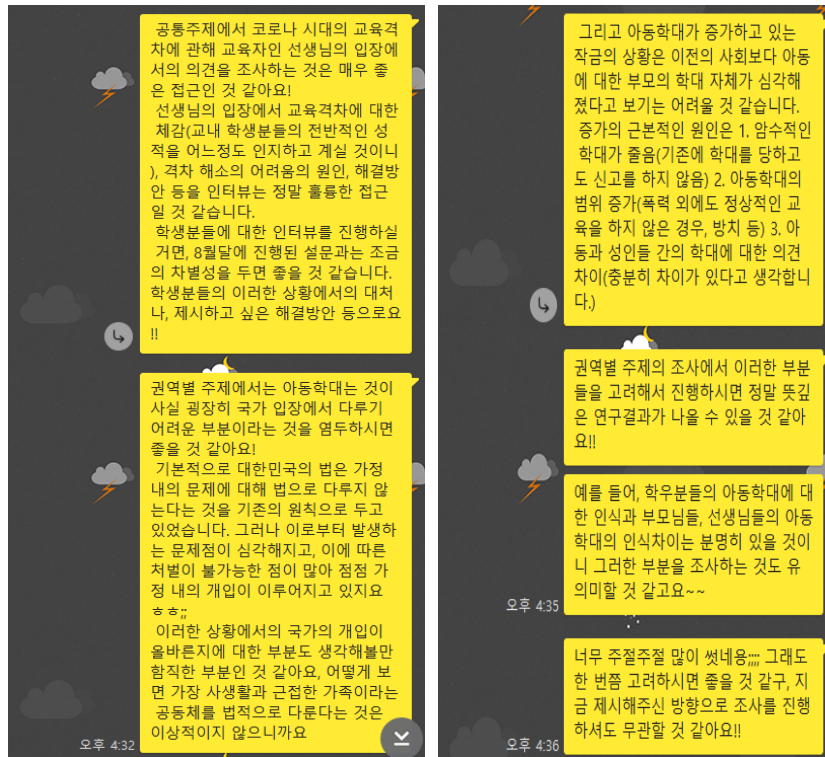
- 권역별주제도 공통주제와 동일한 과정으로 아동들이 3개월 간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다.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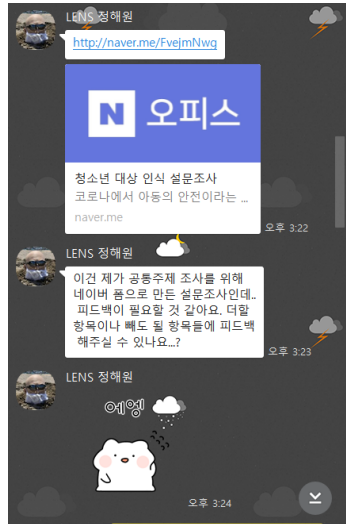
※ 2차 모니터링 회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공통주제와 관련된 아동들 간의 토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주요 사안에 대한 공지 후 개별적으로 피드백 및 모니터링 지원을 하였다.

공통주제





- 위의 사례 외에도 대다수의 아동들이 계획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해 코디네이터가 피드백을 하여 유의미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계획 수립 및 제출 또한 아동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강제사항이 아니었으며, 이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아동들도 몇몇 있었다.



계획이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원격수업과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관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 같아요!! 다만, 원격수업 그 자체보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에 집중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설문에서도 원격수업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이고, 이로부터 야기된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에 대해 더 다루면 좋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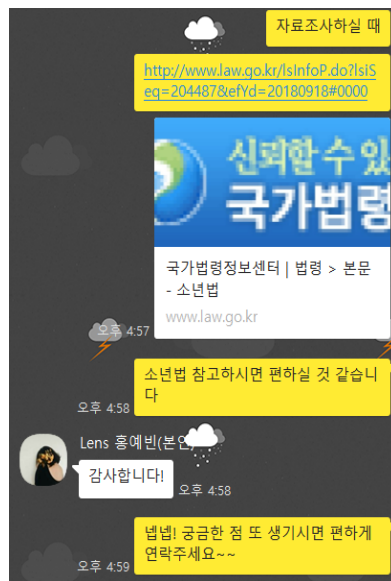
- 이러한 관점에서 설문조사에서 원격조사의 만족도 부분은 조금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 대신에 원격 수업 중 인터넷 서핑 등을 한 경험이나, 있다면 그 시간 정도 등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구요
 - 그리고 인터넷 사용량에 대한 질문에서, 원격수업시간은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더 나아가 원격수업과 인터넷 사용량 증가 간의 관계에 대한 주관식 질문도 좋겠죠!!

- 그리고 권역별 주제에 있어서, 사실 아동 성숙력 저별의 충분성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인터뷰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 아동이 구글폼을 이용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피드백과 수정과정을 거쳐 정확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아동의 보고서의 퀄리티는 지난달에 비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 2차 모니터링 회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공통주제와 관련된 아동들 간의 토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주요 사안에 대한 공지 후 개별적으로 피드백 및 모니터링 지원을 하였다.

권역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조사 중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및 자료조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를 제공하였다. - 이처럼, 아동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자료조사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SNS를 이용하여 아동들의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	---

Step 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p>※ 모니터링 주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논점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는 동안에도 아직까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주제에서의 주요 고려사항을 알지 못한 몇몇의 단원들과, ‘인권침해’와 ‘인권제한’ 등 용어 사용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다수의 단원들에게 ‘인권’, ‘기본권’, ‘아동인권’, ‘침해와 제한의 차이’, ‘문화생활의 정의’, ‘시민의식의 정의 및 견해’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감염병 예방법’, ‘기본권(헌법)’, ‘체벌권(민법)’, ‘소년법’, ‘성폭력 특별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 공통주제 및 권역주제의 주요 논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대립에 대해 설명하였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 정도에 대한 찬반의견, 시민의식에 대한 찬반의견, 개인의 자유와 공익의 대립, 촉법소년 찬반의견 등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p>※ 모니터링 주제에 관한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껏 각자 조사한 내용에 대한 활발한 토의를 기대하였으나, 비대면 화상 회의로 인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에 계획했던 토의는 심도있게 진행되지 않았고, 간단하게 코디네이터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단원의 간략한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에서 토의는 강제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다.
권역주제	<p>※ 모니터링 주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논점 제시</p> <p>※ 모니터링 주제에 관한 토의</p> <p>-> 공통주제와 더불어 진행하였다.</p> <p>모니터링 회의를 비대면으로, 일방향적으로, 1~2시간의 짧은 시간동안 진행하기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p>

Step 5. 권역별 아동 제안

[공통주제]

1. 사생활침해

- 법률 개정 및 사회적 제도 마련
- 아동 대상 동선공개 최소화 원칙 고수
- QR코드 미사용자에 대한 카드지급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2. 시민의식

-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진행
- 지자체별 일관화된 감염병 상황 대응책 및 처벌기준 마련

3. 문화생활 제한

- 정부 혹은 지자체 중심으로 '감염병 상황 속 청소년 문화 독려 프로젝트' 캠페인 및 챌린지 진행
- 비대면 문화 제공 서비스 확대

4. 교육격차

- 원격수업 상황 개선을 위한 문자 문의 시스템 혹은 소리함 설치
- 학업 미달 학생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의 추가 교육

5. 인터넷 중독

- 아이들의 인터넷 절제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

[권역별주제]

1. 촉법소년

- 촉법소년과 법제도에 대한 교내 의무교육 활성화
- 소년법과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에서 아동의 의사 참여
- 촉법소년과 아동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 우선의 원칙 확고히

2. 아동학대

- 온라인 수업 중 영상을 활용한 주기적 아동의 건강 확인

3. 아동 대상 범죄의 형량

- 형량 증가를 통한 범죄 축소

4. 아동의 정당방위

-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 개정
- 정당방위 규정 내의 아동에 대한 특칙 마련

==> 전반적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현황 파악 및 방향성 제시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음.

Step 6. 활동소감 (코디네이터, LENS)

[모니터링단]

전반적으로 아동들은 자신이 직접 자료를 찾고 조사를 해보며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으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해주었다. 다만, 결과발표회를 참가하지 못해 마무리를 멋지게 하지 못하였다는 점, 토의의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많이들 아쉬워했으며, 차후 기회가 된다면 대면으로 다시 모니터링단으로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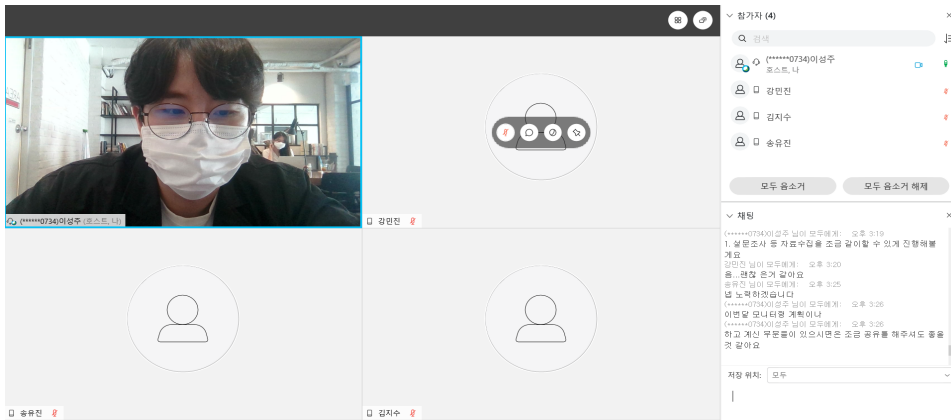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하며 나름의 사명감을 지니고 최선을 다하였다. 애써 만큼 활동이 무사히 종료되어 뿌듯한 것 같다. 그러나 활동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만 남는 것 같다. 감염병 상황으로 좋지 못한 환경과 아동들의 미흡한 참여, 매일매일 변동되는 일정과 상황에 치이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코디네이터라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여 아동들의 혼란을 막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다. 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정상적인 상황에서 활동을 진행하며, 하고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더욱 알차고 유의미한 활동을 만들어 보고 싶다.

Step 7. 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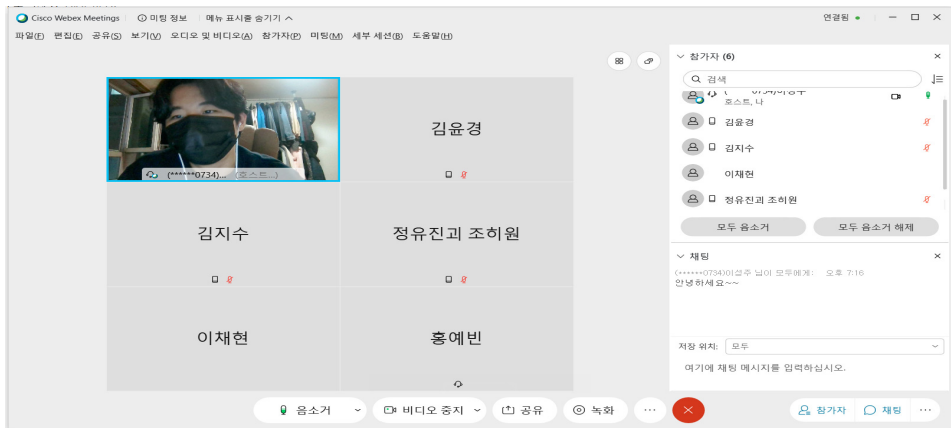
※ 발대식



※ 2차 모니터링 회의



※ 3차 모니터링 회의



이외 사인은 코디네이터 및 모니터링 보고서 참조

Step 8. 활동 피드백

★ 향후 모니터링단 진행 시 개선사항

● 보고서 작성 방식의 변화

- 한 달에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동들에 다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몇몇의 아동들은 2가지 주제 모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 달에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아동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심도있는 모니터링 및 아동의 적극적인 모니터링단원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코디네이터 및 실무진 간의 대면회의에서도 주장을 하였으나 의견이 묵살되었고, 활동 후 위의 의견이 더 견고해졌다.

● 보고서 양식의 변화

- 보고서 양식 또한 A4양식을 이분화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는 가시성과 아동들의 보고서 작성에도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A4 1장 내에 보고서를 작성한 아동들은 거의 없었고, 1장의 분량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퀄리티가 심각하게 낮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진 등 첨부파일을 기입한 경우, 내용의 부실은 더욱 심각하였다. 이에 향후의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양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코디네이터에 대한 패널티 추가

- 이번 활동에서 다른 코디네이터들과 실무진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코디네이터가 한 분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존중이 부족한 코디네이터나 노력을 기하지 않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의 실질적인 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수 아동에 대한 보상 지급 방안 마련

- 아동들 간의 참여도 차이가 여실히 보이는 상황에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많이 아쉬웠으며,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아동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없어 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차후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우수 아동들에 대한 보상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지적 경복 LENS 시점”

LENS	배재현, 조현우, 박채은, 권윤경, 김현애, 박예린, 백수연, 이서연, 정채영, 최가은, 박신명, 함정민
코디 네이터	장준서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8月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아동권리 침해상황 9月 : 학교 주변 교통안전 상황 점검 10月 :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재난
권역주제	‘미디어 속 아동인권’ 8月 : 미디어를 통한 아동 대상 성범죄 실태 분석 9月 : 미디어 속 콘텐츠들의 문제 분석 10月 : 미디어와 아동 발달권(건강 등)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대구외국어고등학교에서 20.08.06.때 현장 진행 1.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소개 2. 아동인권교육 3. 공통주제 및 모니터링 방법 논의 4. 지역주제 모니터링 논의

5.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
6. 체크리스트(설문지) 피드백

순으로 진행하였음.

질문지법, 인터뷰,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계획 / 동아리 자체 활동 기획을 희망하는 경우 (영상제작, 신문제작 등) 지원하고자 하였음.

매 달 넷째주 토요일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 공통주제 및 지역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진행상황에 대해 꾸준히 점검하기로 계획하였음.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p>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아동권리 침해상황이라는 주제에 맞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아동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하거나 가정 내 방임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논의 - 아동권리 침해상황을 아동권리협약 4대권리로 세분화시켜 침해 상황 조사 - 학습권과 교육의 불평등에 관한 조사 - 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가정 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
권역주제	<p>미디어를 통한 아동 대상 성범죄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에 맞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발생원인이나 실태 / 해결방안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함 - 미디어를 통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디지털그루밍이나 관련 법안에 대해 조사함. - 해외와 국내의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사례 비교 - n번방 사건이나 웹캠투비디오 사건들에 대한 분석, 어떻게 이러한 사건들에 대처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조사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p>학교 주변 교통안전 상황 점검이라는 주제에 맞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주변 교통안전 상황, 기존 실태, 원인 등을 대구외고에 초점을 맞춰 조사함 - 횡단보도 캠페인, 속도제한 및 처벌과 같은 법률강화에 따른 사고비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 민식이법을 비롯한 아동교통안전 법률 관련 조사 - 타 교통안전 법률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 스쿨존 내 교통사고, 해결방안 제시
권역주제	<p>미디어 속 콘텐츠들의 문제 분석이라는 주제에 맞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및 TV프로그램 내 자극적 내용들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 폭력 / 선정 / 모방 콘텐츠들의 문제에 주목해 콘텐츠들의 적절성에 대해 분석함 - 아동들이 출연하는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 - 아동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급증에 따른 긍정적 / 부정적 영향 조사 - 뒷광고를 중심으로 미디어 속 콘텐츠 조사 - 유해한 콘텐츠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준 수립 등

Step 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p>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재난이라는 주제에 맞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사회적 재난에 많이 노출되는지? - 취약계층을 보호하던 복지기관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들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 특히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정, 아동 학대 가정, 차상위계층 아동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판단해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함. - 아동들의 식량 문제에 대해 조사 -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어떤 물품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조사

권역주제	<p>미디어와 아동 발달권이라는 주제에 맞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출연하는 미디어에 대한 조사 -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아동 발달권 침해에 대한 학술 자료 조사 - 블로그 / 카페 / 인터넷 기사들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조사 - 미디어의 잦은 사용이 아동들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 - 아동들의 수면 시간과 미디어의 발달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
------	--

Step 5. 권역별 아동 제안 및 소감문	
박 채 은	제안사항 및 소감문
	<p>저는 9월 권역별 주제였던 미디어 속 콘텐츠들의 문제 분석과 10 월 공통 주제였던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9 월 주제였던 미디어 속 콘텐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질적인 문제에 먼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정적인 콘텐츠들에 대한 아동들의 접근이 쉬워진 이유는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뉴미디어에 대한 엄격한 규제나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들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월 공통 주제였던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유독 더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을 위한 대책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 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 말고도 아동들의 성장과 관련된 여러 복지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이 취소되면서 혼자 놓여지는 아동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몇몇 아동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고, 특히 아동들에게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식의 복지가 아닌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p> <p>3달 간 LENS 모니터링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안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면</p>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캠페인이나 설문 조사, 인터뷰 등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놓쳤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동에 포함되는 지도 모를 정도로 아동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던 저는 이 활동 이후에 아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부듯했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백 수 연	제안사항 및 소감문
	<p>우연한 기회로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선정되어 함께 활동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고등학교2학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어 실망하기도 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생으로서 풍부한 생기부를 작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와 같은 기회가 있어 지식의 함양과 더불어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p> <p>평소에도 인권, 특히 아동의 인권에 관심이 많아 이 관련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내 관심사와 사회적 이슈인 코로나와 연결 지어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식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관심은 있지만, 감히 찾아보지는 못했던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서 경험도 더 풍부해졌다.</p> <p>또한 몇 달 전 이슈가 된N번방 사건과 내 진로인 미디어와 연관 지어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알아 본 것도 신선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영상이나 광고를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들이나, 보고 듣기 힘든 콘텐츠들을 접하면서 아동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의 정서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논문과 같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꽤나 즐거웠다.</p> <p>6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면서 정책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다. 단순히 규제를 넘어서서 아동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현재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노출되는 시기와 정도가 더욱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윤리적인 기준은 때에 맞춰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게시되는 광고나 콘텐츠에 대한 선정성/폭력성 등의 기준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p> <p>교통 관련으로 조사할 때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의견을 배제한 채 법을 개정할 경우가 있는데, 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넘기는 부분</p>

이 필요함을 느끼기도 했다. 특히 내가 다니고 있는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통으로 인한 혼잡함을 자주 느끼는데, 도로 표지판 설치나, 안전 지킴이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아동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스스로 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간결한 문체보다는 장문의 글과 심표를 즐기는 편인데, 보고서 작성을 통해 나 자신의 글쓰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합동 작업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글쓰기도 함께 볼 수 있었는데,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더 발전된 학생이 될 수 있었다.

비록 서울에서 진행되는 최종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경북, 대구외고에서 진행한 아동 인권을 위한 모니터링이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 대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학생과 멘토의 의견이 모여 아동이 더 살기 좋은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직시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활동은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짧은 소감문으로 몇 달 간 진행해온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지만, 나중에도 관련 활동이 있다면 주저 없이 신청할 것 같다. 여러모로 나에게도, 미래의 아동들에게도 도움이 된 활동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 현 우	제안사항 및 소감문
	<p>‘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식량권과 학습권 침해’ 라는 공통주제에서 결식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해보면서 모든 결식 아동들의 끼니를 해결해줄 유일한 수단인 ‘급식카드’ 가 현실적으로는 이용하는데 한계점이 나오고 있어 이 부분도 정부의 재정과 결식 아동들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조화롭게 조율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급식카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디지털 아동 성범죄 관련 심화탐구’ 라는 권역주제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조사해보면서 국회는 여론의 입장을 반영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고, 디지털 아동 성범죄를 성폭력의 일부로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달간의 LENS 활동을 하면서 여러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해볼 수 있었다. 평소에 아동인권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 인권에 대해서 깊은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었으며, 현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LENS 활동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닌, 앞으로 있을 아동 인권 관련 활동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알찬 활동이었다.</p>

권 윤 경	제안사항 및 소감문
	<p>10월 진행되었던 공통주제인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재난'에서 나는 유사한 상황인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를 다루었다.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첫째, 타당성이 인정된 표적화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과 가급적 자발적인 검역을 취할 것을 제안했으며, 둘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 의사, 지역 간호사를 양성 및 배치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보건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권역주제인 '미디어와 아동 발달권'에서는 특히 스마트폰과 아동 사이의 관계를 다루며 전자미디어에 과도히 노출되는 현 아동들의 실태를 밝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지원기관 및 관련기관에서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며 이를 시행하는 지에 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과 이용은 주로 부모의 미디어 매체 이용 형태 및 가정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비대면 교육 e-learning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부모 지침서와 가이드 라인을 작성해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는 등 부모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p> <p>올해 아동인권 동아리를 가입하기 전까지는 아동인권이 나오는 먼 이야기 같고, 진로만 관련된 활동을 했기에 아동인권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연달아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의 관망은 이상으로 덮혔던 내 시야가 현실로써 자성케 했다. 자발적으로 교내 아동인권 동아리도 가입하고, 3달 동안 LENS 모니터링단 활동도 진행했다. 솔직히 중간에 탈주해 버릴까 고민도 했다.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만 가벼이 시작할 수 있었던 활동이 아니었다. 차별적인 주제를 선택해야만 했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했으며, 나는 통계 결과의 양상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전개했기에 끔찍한 통계 결과를 보며 암담해야만 했다. 학교 일과와 병행하기도 쉽지 않았다. 여러모로 겹쳐서 아주 늦게 제출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만큼 값진 성장과 자부심을 얻을 수 있었다. 사회를 바라보는 내 식견을 넓혔고, 현실 개혁을 촉구하는 자각심을 가졌다. 가장 뿌듯한 것은 아동인권에 무지했던 과거의 나를 혁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LENS 모니터링단으로서의 3개월 활동은 아주 알찼다. 하하. ^^!</p>

합 정 민	제안사항 및 소감문
	<p>3개월 동안의 권역 주제 중 8월 권역 주제인 ‘미디어를 통한 아동 대상 성범죄 실태 분석’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화가 나기도 했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선진국인 캐나다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책은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존재했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정책보다 범죄자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더 많았다. 처벌을 하기에 애매모호한 대상이 많았고, 처벌에 대한 법률도 자세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 음란물의 유포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퇴치하기 위하여 법무부 범죄국에서 아동 착취 및 음란물팀을 조직하여 온라인 상의 아동을 상대로 한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력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엔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 혐의만으로도 5년 이상의 구금형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음란물만 차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음란물만 차단한다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법률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p> <p>또한, 9월 공통 주제였던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 내 아동권리 침해 상황’에 대해서 조사 했을 때, 2018년 한 해에만 아동학대 범죄가 2만 4천여 건 이상이 발생했다. 2만 4천여 건 중 80% 이상이 가정 내 학대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인하여 가정에만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2020년 1~3월 아동 학대 신고는 2019년에 비해 500여 건 이상이 감소하였다. 이는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 잦아들면서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문에, 아동 안전 플랫폼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 ‘아이CU’와 같은 아동 안전 플랫폼의 수를 더욱 늘리고 전문적인 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의 수가 많은 것과 달리 심리 상담과 치료 등의 지원 혜택을 본 사람들은 없고, 시설에서 치료 받기를 수차례 문의를 해도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 예산 지원을 늘려서 피해 아동들의 치료비를 충당하고 아동들이 학대기억을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p> <p>3개월 동안 렌즈 보고서를 6개 작성을 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캠페인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고, 설문 조사를 직접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보고 싶었지만 대구 지역에 코로나 상황이</p>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뉴스, 학술지, 논문 등만을 참고하고 설문조사도 인터넷으로만 조사하다 보니 매번 현실태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고, 부정확했다. 만약 다음에 내가 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그 때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괜찮아져서 더욱 다양한 조사와 활동들을 시행해보고 싶다. 또, 아동권리 동아리 부장으로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동들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김 현 애	제안사항 및 소감문
	<p>* 제안</p> <p>8월 공통주제 - 온라인으로 시행될 수 있는 아동 정서 발달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자체에서 개발하고, 보급하여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도록 함.</p> <p>권역별 주제 -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성적인 노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아동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의 방송 프로그램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9월 공통주제 - 각 학교별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느끼는 학교 주변 교통상황이 어떠한지 매달 점검하고, 안전물과 안전요원의 배치를 적절히 하도록 함.</p> <p>권역별 주제 - 미디어 속 콘텐츠들에는 아동 청소년이 접했을 때 적절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정보들을 아동 청소년에게 어느정도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p> <p>10월 공통주제 -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적 재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으므로, 사회적 재난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과 더불어 취약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부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아동청소년의 경우, 기존 시행하고 있는 급식카드와 마찬가지로 이를 더욱 확대하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p>

권역별 주제 -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미디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소감**

평소 관심이 있었지만 그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제시하기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의 생각들을 더욱 깊이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음. 아동 청소년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세세하고 깊게 관심가질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함.

박 예 린	제안사항 및 소감문
	<p>코로나 19속에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내 각종 안전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 측면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나 장애를 지닌 아동에게 각종 안전 사고 방지 용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방송 및 캠페인 제작을 지원하고 각종 가전 제품의 위험에 아동이 노출될 가능성, 위험성 평가를 통한 더욱 안전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면 좋을거 같다.</p> <p>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아동 학대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 합동 현장 정기 검사의 확대 및 강화 (가정뿐만아니라 아동 보호 시설까지)’, ‘ 즉각적 아동 학대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 지방 단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주도하에 아동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 아동 학대에 관한 더욱 활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권한을 법적으로 보호’ 등을 제시하고 싶다.</p> <p>아동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를 통한 디지털 아동 성범죄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 그루밍 ’이라는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깊었다. 이러한 아동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폐쇄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기에 기존 수사기법으로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루밍 수법으로 인해 보통 피해자</p>

자신이 확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협박과 폭행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및 신고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잠입 수사 방식 도입하는 등 더욱 강력한 수사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근처 안전한 교통 환경 구성을 위해 민식이법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 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교통 영향 평가,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 장치 미작동 문제가 현재까지도 만연하기에 이러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교나 가정에서는 어린이에게 건널목에서의 주의사항이나 교통 법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아동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이를 연습하고 몸소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통 안전 관련 미디어 콘텐츠나 영상을 창의적으로 제작해 아동이 쉽게 접하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거라 생각한다. 또한 애초에 어린이 교통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선 스쿨존대로 통행하는 차량수가 절대적으로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기존 내비게이션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비게이션에 스쿨존이 아닌 경로로 되도록 운전자에게 길을 안내하고 불가피할시 해당 스쿨존의 사고 발생 건수,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음성으로 알려주도록 한다면 운전자도 미리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운전을 하게 되고 스쿨존의 교통 환경과 상황을 더 신속히 캐치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자체내 아동 시청 가능한 영상물의 기준을 세워 검열하는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청 가능 연령이 19세를 기준으로 구분되지만 지적 판단 능력과 행동 능력을 고려해봤을때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 고등학교의 수준이 현저히 다름을 고려하여 시청 가능 연령 기준을 다양화 및 세부화하는 것도 효과가 클것이라 생각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애인 아동을 위한 복지 시설과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때 이들을 위해 자립 물품, 방역 물품 지원/ 심리 상담, 각종 개인 치료 시스템 지원/ 자가격리, 치료가 힘든 장애인을 위한 특별 코로나 병상 마련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20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내의 아동 권리 문제를 다양한 통계자료, 보도 자료등을 통해 깊이있게 이해하고 탐구해보며 개선 방안까지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 같다. 아동 권리 문제는 아동 당사자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고 활발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직접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보면서 지역내의 아동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박 신 명	제안사항 및 소감문
	<p>* 제안</p> <p>권역별주제 - 미디어를 통한 아동 대상 성범죄 시태 분석 -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한다.</p> <p>공통주제-학교 주변 교통안전 상황 점검 - 학교 주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 등하교 도우미 제도를 실시한다.</p> <p>* 소감</p> <p>3달이라는 짧으면서 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아동, 그 당사자면서 아동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나였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사회에서 아동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아동들을 위해 여러 단체와 정부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사회의 새로운 물결을 불러 일으키는 아동들이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p>

정 채 영	제안사항 및 소감문
	<p>스쿨존 교통사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경남 교육청에서 호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어린이들의 책가방 위에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뜻하는 숫자 30을 크게 쓰여진 형과색 커버에 씌우는 '어린이 안전덮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건의한다. 또한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일</p>

필요성을 느꼈고, "n번방 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더욱 많이 실시 되기를 바라는 바다. 지난 3개월 간 아동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의 진실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시사 문제에 관한 여러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있던 아동 인권에 관해 실질적인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니, 더욱 흥미롭고, 개선되어야 하는 많은 주제들이 있음을 느꼈다.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배 재 현	제안사항 및 소감문
	<p>* 제안 (공통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로나 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제한되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실내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체육 활동을 학교에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2. ‘민식이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민식이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회적 재난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취약 아동들이 재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권역별 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디지털 아동 성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일으키도록 만든 불건전한 콘텐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5. 미디어의 영향이 큼으로 불건전한 콘텐츠를 올리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법안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요구됩니다. 6. 올바르게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동들이 정기적으로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소감</p> <p>지난 3개월간 Lens 활동을 하면서 아동이 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p>

이 서 연	제안사항 및 소감문
	<p>* 제안</p> <p>지금까지 제출했던 권역 / 지역주제 관련 보고서에서, 본인이 직접 제안하고 싶은 정책적 아이디어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p> <p>코로나 19로 인한 가정 내 아동들의 식사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도시락 및 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지만 지역자치 도시락 배달제와 같은 정책이 있다면 코로나 19 시기 아동들의 식사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아동 성범죄 문제에서는 범죄 형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아동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정 사이트에는 아동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금이 되어있거나 아예 일정 기간마다 그런 사이트들을 조사하여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 소감</p> <p>솔직히 아동 인권에 관심을 가진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직접적인 활동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고서를 쓰면서 우리나라 아동인권의 문제점과 고쳐나가야 할 해결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툰 점도 많았지만 피드백 해주시고 도와주신 멘토님께도 감사합니다.</p>

최 가 은	제안사항 및 소감문
	<p>* 제안</p> <p>8월 공통: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과 식량권이 사회적 재난 속에서 침해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돌봄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전자기기를 배부한다면 국가로부터 전자기기를 지급받지 못한 아이들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p>

8월 권역: 국가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에서 주관하는 관련 커뮤니티를 창설하면 좋을 듯 하다.

9월 공통: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관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를 무조건 정지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은 신선했으나 운전자가 이를 귀찮게 여겨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이러한 제안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 개선방안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영상이나 우편물을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9월 권역: 유튜브가 개인 플랫폼에 해당하며,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각하여, 정부에서 더 강화된 법적 제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월 공통: 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초반의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격차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이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시설을 창설하여, 50 명을 넘지않는 선에서 소수로 구성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운영하면 좋겠다.

10월 권역: 정부에서 스마트폰 사용 중 접할 수 있는 선정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은 부모님 또한 대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은 선정적인 자료의 부정적인 영향을 기본적으로 가짐과 동시에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대상으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 소감

처음에는 관심있는 분야의 기관이, 다양한 보상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창설함에 관심을 가졌다. 활동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아동 인권에 대한 지식을 쌓고 사회가 아동에게 정말로 좋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면서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후에도 이러한 모니터링단 활동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

Step 8. 활동 피드백

- * 아동들의 제안사항 및 소감은 아래에 모두 첨부하였음
 - 대체적으로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끼는 듯
- * 코디네이터 피드백
 - 아동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도할 수 있었으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처음 정했던 회의일자 (넷째주 토요일)에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점차 아동들이 각자의 일정 탓에 불참하는 경우가 늘어나 아쉬움이 있었음. 유일하게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모두 참여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제 때에 보고서를 제출해준 것에 대해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음. 보고서의 분량이나 질적 수준 역시 높았다고 자평함.

“전지적 서울 LENS 시점”

LENS	장인홍, 박준석, 한성혁, 정예은, 김려은, 김시현
코디네이터	김 건

활동주제	
공통주제	<p>“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 학습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주제 하에서의 세부적인 모니터링 방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식 비제공, 면학실 소독 및 면학 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흡 문제 심각 - 면학실 폐쇄 -> 스터디 카페, 카페 등 공간 활용의 금전적 부담 및 감염 위험 • 코로나19 이후 학습 상황에서의 안전으로 주제 확정
권역주제	<p>통학로 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의 다양한 관심 주제에 관해 브레인 스토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슴기 살균제, 아동학대, 아동 간 형사범죄, 교통안전, 디지털 성범죄 - 주거 환경 : 의료 시설 접근성, 교육 기관 접근성, 위생 환경 - 장애 아동 학습권 - 다문화 아동 : 학내 인종차별 - 통학로 유흥업소, 길거리 간접흡연 • 교통안전, 유흥업소·간접흡연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으로 권역별 주제 확정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p>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차후 활동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파악 -> 후속활동’으로 나누어 활동 방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파악 : 설문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 후속활동 : 실태조사 결과 SNS 홍보, 실태 관련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개선 방안 도출 후 국민신문고 활용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대식에서 논의한 활동 방법에 따라 8월 활동은 실태파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학습안전과 통학로 안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활동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위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 여러 아동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아동들의 학습 환경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학업에 지장이 있고, 학교 이외의 학습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사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거리두기나 방역을 위한 소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 환경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권역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에서 마주하는 교통 안전의 위협이 지적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 학생들의 신호 미준수, 신호등 미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학로에서의 흡연 문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쓰레기 문제, 학교와 가까운 유흥업소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직접 제작한 설문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실태파악이 진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습 공간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으며,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는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아동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모
------	--

	<p>의고사 등급컷이 떨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코로나 이후의 미비한 학습환경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하락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추론하였다. 한편 한 아동이 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학습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66.67%로 절반이 넘었으나,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답도 33.3%를 기록하여 많은 아동이 예상과 다른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아동은 직접 제작한 설문조사 결과를 SNS에 홍보하여 코로나 이후 학습 환경과 통학로 안전 실태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 아동은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학내에서 직접 제작한 포스터를 활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p>
<p>권역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온라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실태 파악이 이루어졌다. 한 아동이 직접 문항을 구성하여 진행한 상세한 설문 결과 살펴보면,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통학로에서 불법유형시설을 목격하였고, 통학로에서 흡연 및 음주하는 성인은 물론 학생들도 목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보안관과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바로 앞에서는 수많은 CCTV의 존재와 안전구역이라는 표지로 인해 교통규칙이 잘 준수되는 편이나, 통학로에 포함되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큰 길은 학교 앞처럼 관리되지 않아 오히려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대체로 불법주차된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다, 종종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tep 4. 3차 모니터링단 회의</p>	
<p>공통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SNS 등을 통한 홍보 및 건의 활동을 중심으로 10월 활동이 이루어졌다. • 국민신문고 활동을 살펴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의 학습 공간 소독, 학습 공간에서의 거리두기, 석식 제공 중지 문제 등을 지적하며 현황 및 문제점을 밝혔다. 그리고 학교 방역에 대한 정부 지원, 학생들 대상의 마스크 착용 교육, 입시 제도와 교육 환경 형평성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SNS 홍보 활동은 8, 9월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권역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SNS 등을 통한 홍보 및 건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국민신문고와 SNS 홍보 활동은 공통주제와 동일한 형태 및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신문고에서는 학교 주변 200m가 넘는 통학로의 유흥시설 문제, 통학로 흡연 문제, 수많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제도와 법규가 도입되었음에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운전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만연한 것이 지적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아동 대상 안전교육 확대, 학교 주변 흡연 관련 법규 제정과 단속 실시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 정책 관련 소통 플랫폼으로 개발된 국민생각함 관련 활동으로는 '교통 안전', '통학 안전' 키워드에 대한 의견 게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게시물의 설문에 참여하고 동의를 표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	---

Step 5. 권역별 아동 제안	
공통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안전에 관한 사람들의 무관심, 무신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학교 내 거리두기의 이행이 적절히 감독될 필요가 있다. -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는 중단되지만, 기존 학원이나 과외 등은 계속 이루어진다. 이처럼 소득에 따라 학습 환경의 격차가 나타나는 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주도의 온라인 교육 또는 교육지원금 지급 등이 가능하다.
권역별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성인 모두 교통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나 페인트로만 차도-인도를 구분해놓는 경우 등이 흔하기 때문에, 시설 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 - 초등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에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Step 6. 활동소감 (코디네이터, LENS)

- 장인홍 : 다른 사람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활동 방법 등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 박준석 : 활동 과정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다. 하지만 개인 활동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토론을 통해서 교류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좋았을 텐데, 온라인 교류도 어려웠다. 혼자서만 활동을 진행해야 했던 것이 가장 아쉬웠다.
- 한성혁 : 같이 끝까지 활동한 친구들에게 고맙다. 다음 활동에서는 좀 더 협력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정예은 : 아동이 직접 아동 인권을 위해 나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간 아동 인권에 있어 수동적이던 모습이 부끄러웠고, 주변 아동들에게도 아동 당사자가 나서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 김려은 : 모니터링단 활동 기회가 제공되어서 영광이었고 아동 인권에 대해 주체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도 아동 인권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코디네이터 : 코로나 19 이후 아동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고, 아동들이 조사했던 자료도 아동 눈높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유익했다. 비대면 활동이라 한계가 있었지만 아동들과 어느 정도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던 점도 좋았다.

Step 7. 활동자료



- 캠페인에 활용된 포스터



• 학습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들(현장 조사 결과)

제안 내용

제목
사회적 재난 이후 학습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연방 및 문제점
연방하세교 대원안국 아동총회 14기 부의장 한성희입니다. 저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2020 아동권리 당사자 모니터링 회의는 분단을 통해 사회적 재난 이후 학습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아동과 교원 학생에게 지었습니
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하는 가운데, 아동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도 학습을 지속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 공간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든지, 학습 중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없다면 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식사 제공
이 중지되어 간헐적으로 여분의 건강에 방해할 수도 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 이후 학습 안전에 대한 자체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예방이기는 사회적 재난 후 학습 안전에 대해 불만하거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고 하는 질문에 52.6%가 코로나19 예방 전보다 불만하거나 위협하다고 느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일 환경이 공
부하기에 책 출판권이 아니라 독서실을 주로 이용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독서실이 불편해졌다.', '책에 신발이러면
아를 수 없이 해야하는 위생 (학원, 학교에 맞반 들리는 것) 등등 제반 방에서 불편하고 힘들.'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
학교 내에서의 정기적인 방역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제도와 교육 환경의 평행성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들
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장기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의 교육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
안전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의견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교육부

수정: [버튼] 취소: [버튼] 인쇄: [버튼] 삭제: [버튼]

• 국민신문고 활동자료

Step 8. 활동 피드백

아동 :

- 비대면 상황에서도 서로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회가 더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 아동들 간에 통일성 있는 활동을 진행해보았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 다른 아동의 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활동 동기가 저하되었다.

코디네이터 : 비대면 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활동 준비단계 또는 활동 과정에서 코디와 아동들이, 그리고 아동들 간에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좋겠다. 특히 해당 권역 아동들이 모니터링 활동으로 처음 만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전지적 전복1 LENS 시점”

LENS	임기빈, 최요원, 김리아, 이소영, 이다영, 김시연, 김예지, 주아진, 장혜빈, 한가은, 이윤지
코디 네이터	김지유

활동주제	
공통주제	<p>“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p> <p>공통주제인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음.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재난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 속 불평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도 이미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등 포괄적이고 무서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음. 아동들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포괄적인 예를 들어 주제를 제시했고,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라고 생각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아닌,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동들이 ‘안전’한지, 안전이라는 개념과 어떤 상황이 안전한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p>
권역주제	<p>“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과연 안전할까?”</p> <p>전북지역 중에 익산은 8월~10월 간 코로나 확진자가 10명 미만이었음. 그래서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사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 채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중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 간 이동이 거의 없다보니 하루 중 가장 오래 생활하는 ‘학교의 안전’에 대해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게 되었음. 그래서 아동인권 중 ‘보호권’에 중점을 두고 학우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는 안전한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아동인권에 대해 알리고 아동 스스로 본인들의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p>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 자기소개 및 아동인권 모니터링 LENS 활동방법 설명
 - 아동인권교육 동영상 시청
 - 활동에 대한 의의와 권역별, 지역별 주제선정 및 활동방법에 대한 논의
 - 체크리스트에 대한 피드백
 - 아동의 역할 분담(서기, 총무, 회장 등 선출)
- 권역주제-우리학교는 과연 안전할까? 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학교 내의 상황에 대한 안전점검을 아동들이 직접 진행해 보기로 함.
 - 학교를 이용하는 아동과 교사 및 기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개인 위생과 함께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바르게 성장하고 발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함. 학교의 많은 장소들 중 급식실, 화장실, 다목적실, 교실의 안전을 기준으로 활동할 예정임.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주제-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에 대해 '현재 상황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 생각해보니 코로나19를 쉽게 떠올릴 수 있었음. 일상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며 개인위생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활동을 하기로 함.
권역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주제-우리학교는 과연 안전할까? 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학교 내의 상황에 대한 안전점검을 아동들이 직접 진행해 보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이용하는 아동과 교사 및 기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위생과 함께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바르게 성장하고 발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함. 학교의 많은 장소들 중 급식실, 화장실, 다목적실, 교실의 안전을 기준으로 활동할 예정임.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에 진행할 캠페인을 주제로 캠페인 문구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우드락을 이용해 캠페인자료를 만들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로 등교일이 달라서 다 같이 모이는 것은 주말밖에 없었음. 그래서 따로따로 만나고 카카오톡 단체 방을 활용하여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서 공유하고 본인들의 생각과 소감을 나누며 활동함. -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고 '<u>재난과 재난으로 인한 또 다른 재난</u>'에 대해 조사하고 생각해봄.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의 증가, 쓰레기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자연의 파괴, 자연의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간사회의 피해 등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권역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축제에 캠페인 부스를 운영할 생각으로 5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캠페인 진행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우드락을 제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코로나상황에 따라 축제가 취소되거나 미뤄지더라도 학년별 복도를 활용해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할 생각으로 각 주제별로 2개씩 총 10개의 우드락을 제작함. - 모둠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우드락을 함께 꾸미는 활동을 통해 아동인권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음.

Step 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고 '<u>재난과 재난으로 인한 또 다른 재난</u>'에 대해 조사해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의 증가, 쓰레기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자연의 파괴, 자연의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간사회의 피해 등 우리사회가 결코 안전하지 않고 모든 일은 연계되어 일어나고 어떤 사건에 의해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주제5번에 대한 우드락을 제작하였고, 우리학교의 재난-안전에 대해 직접 생각해보고 모니터링 해 볼 수 있도록 주제3번의 우리학교는 안전한가?에 대한 우드락을 제작했고 캠페인을 진행하여 아동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

권역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22일 23일에 예정되어있던 남성여자중학교축제에 아동인권모니터링 단 캠페인 부스를 운영할 생각으로 5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캠페인 진행 방법을 함께 논의하여 우드락을 제작함.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취소되었고 아예 외부로 나가서 캠페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학교, 아동, 가족 측의 우려로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달 안에 활동을 해야 했기에 저번 활동에 만들었던 우드락을 활용하여 급식을 먹고 나오는 남성여중, 남성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함. 5가지 주제에 모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최소 4개 주제의 우드락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톡을 나눠주다가 그림톡이 소진된 후엔 레모나를 나눠주었음. - 모든 참여자들은 손 소독을 하고 줄을 서서 본인들의 순서를 기다리며 참여하였고, 처음에는 어떤 내용의 캠페인을 하는지 의아해 하면서도 참여하는 우드락의 수가 많아지면서 친구와 함께 본인의 생각들을 나누며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이어서 모두가 부듯해했음.
------	--

Step 5. 권역별 아동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재난' 이라는 범주 안에 많은 것이 들어간다. 현재 가장 이슈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확진자의 발생으로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20.11.25. 네이버뉴스발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개발과 거리두기 등의 일상생활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무방비하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 및 취약계층의 복지 및 인권존중에 대한 준비와 대처는 미흡한 것 같다. (꼭 사람의 피해뿐 아니라 동물과 환경도 사회적 재난에 그대로 노출되어 우리의 삶에도 유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앞으로도 사회적 재난이 계속 될 것이고, 환경과 자연의 변화로 우리 삶에 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사회적 재난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어디에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각종 오염에 따른 앞으로 변할 미래의 생활양식과 갑자기 닥친 재난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을 어쩔 수 없다는 이해로 넘기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연대하여 방법을 찾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배우고 인지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과연 안전할까?**
 - 학교는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기 전, 현재까지 가정 외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아동인권과 성인권리의 대립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불평등과 격차가 심해지는 곳 또는 과연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학교를 꼭 가야하는 곳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대체, 학년별 등교, 돌봄 교실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또 다른 재난으로 떠오르면서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수업과 학업불균형, 아동들의 정서적 괴리로 인한 학업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학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거리두기, 소독,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외에 학교의 역할인 교육, 보호, 균등한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과연 안전한곳인지 의문이 든다. 사회의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적용해야 할 때이다.

Step 6. 활동소감 (코디네이터, L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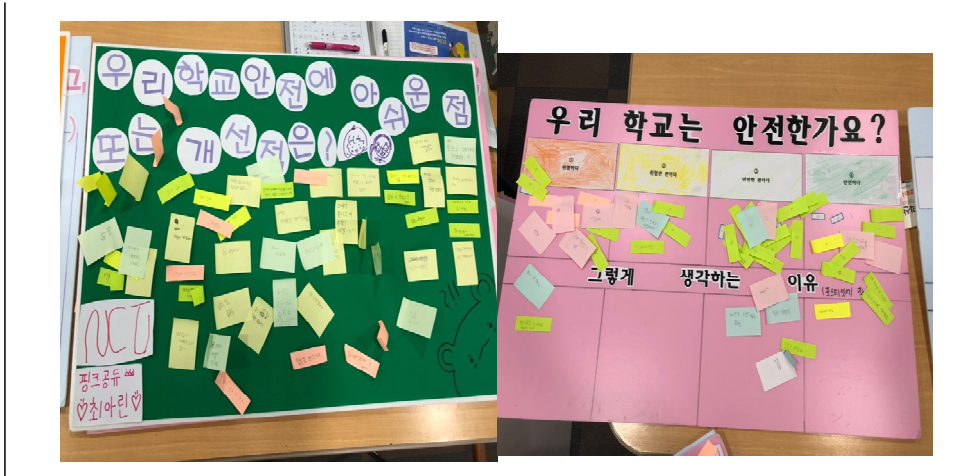
- 코디네이터 활동소감**
 -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아동인권모니터링단 LENS 전북지역 코디네이터를 맡게 되었다. 2018년에 활동하던 아동들과 현재도 안부를 물으며 한 번씩 얼굴을 보는 만큼, 나에게 LENS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던 활동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존에 하던 업무의 방향과 운영기간의 잦은 변화로 더 정신이 없었지만 아동인권모니터링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올해는 어떤 아동들과 어떤 주제로 함께 활동할지 떨리는 마음을 갖고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였다. 올해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공통주제도 ‘재난’ 이었고, 아동들이 이해하고 활동하기에 좋은 주제라는 생각과 함께 아동들을 만나게 되었다. 원래는 한 아협쪽에서 아동을 모집해줘야하지만, 상황이 급박하여 직접 모집하게 되었는데 학교와 연계하여 아동을 모집하고 아동인권이라는 주제와 활동취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학교의 양해를 받아 활동할 수 있었다. 발대식을 하고 아동들과 함께 3개월의 시간동안 공통주제와 권역별 주제를 정하고 활동했는데, 11명 전원이 다 중학생이다 보니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와 활동에서 추가적인 설명과 이해를 통해 이끌어 줘야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모임이 많아질수록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하면서 아동인권과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아동들의 모습이 대견했다. 10월 마지막 캠페인을 앞두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협동하며 캠페인 당일, 처음 하는 캠페인이어서 부끄러워하면서도 선후배, 선생님을 대상으로 인

권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며 부듯했다. 활동을 마치고 평가회의를 진행했는데, 단원들 스스로 3개월 동안 활동하며 어려움도 있었고 캠페인을 준비하며 잘 참여해줄지 걱정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줘서 놀랐고 아동인권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아동인권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아동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겠다는 소감을 나눴다. 아동 스스로가 본인의 권리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동들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알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다. 올해 활동한 아동들과 그 친구들이 내년에도, 앞으로도 활동하고 참여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올해의 아동인권모니터링단 활동은 아동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첫 걸음이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아동인권모니터링단 LENS활동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 모니터링단 활동소감-붙임1 참조

Step 7. 활동자료





Step 8. 활동 피드백

- 3개월이 아닌 5개월~ 6개월 이상의 구체적인 공통주제 1개로 전국적 활동을 통한 아동의견 통계를 내어 중장기적인 LENS활동필요

 - 발대식을 포함하여 3달 동안 월1회 활동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함. 공통 주제와 권역별 주제를 나눠서 활동하다보니 더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아동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통계를 내서 일반화하기에도 부족함이 있음. 구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공통된 내용으로 전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하여 의견을 취합하여 통계를 내는 것이 확률적으로도 정확도가 높아질 것 같음. 그래서 월1회 3개월 보다는 5개월~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활동에 대한 이해와, 상호 적응하고 협동하는 시간이 더 있으면 보다 나은 LENS 활동이 될 것 같음.
- 아동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의 내용과 구성의 단순화 또는 코디네이터의 작성 보고서로 대체 등의 대안방법 필요

발대식에 모든 교육, 활동의 목적과 의의, 주제선정, 보고서작성 등의 내용에 대해 아동들이 버거워함. 월1회 활동시마다 주제에 대한 계획, 이행사항, 소감 등의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보고서양식 및 내용의 변화가 필요함. 전체 아동의 활동과 의견을 롤링페이퍼로 작성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활동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므로 카카오톡이나 줌 등을 활용하여 캡처한 보고서, 또는 월마다 코디네이터도 따로 보고서를 정리하여 게시하므로 코디네이터가 아동들의 소감 및 활동내용 등을 같이 정리하여 월보고서로 올리는 것이 더 실용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전지적 전복2 LENS 시점”

LENS	김초은, 윤세린
코디 네이터	박홍철

활동주제	
공동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권역주제	“왜 학교에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p>발대식에서는 한아협에서 알려주신 공동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활동을 시작할지 결정하였다. 우리 전복2 권역은 아이들이 자신의 친구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공동주제 활동 계획을 세웠다.</p> <p>또한, 발대식에서 권역별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권역별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토의하고 최종적으로 ‘왜 학교에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p>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동주제	<p>1차 모니터링 회의 때는 발대식 때 하기로 결정하였던 자신의 친구 몇 명을 선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에 대한 주제로 인터뷰할 내용을 작성해서 인터뷰하기로 했었는데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지 못해서 회의 할 때 코로나 관련 기사도 찾아보고 아이들과 보고서 피드백을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떻게 인터뷰를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p>

권역주제	1차 모니터링 회의 때는 아이들이 8월에 한 활동(설문지 제작(대상:학교 반 친구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아이들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피드백하고 9월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하였다.
------	---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2차 모니터링 회의 때는 9월에 아이들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인터뷰 한 내용들을 내가 종합해서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10월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하였다.
권역주제	2차 모니터링 회의 때는 아이들과 내가 함께 구글폼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링크 공유하고 학교 반 친구들 그 외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고 10월에는 무엇을 할지 의논했다.

Step 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3차 모니터링 회의 때는 10월에 아이들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인터뷰 한 내용들을 내가 종합해서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결과보고서를 아이들과 작성하였다.
권역주제	3차 모니터링 회의 때는 아이들이 교육관련 기관에 연락하고 교육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을 인터뷰지로 제작하여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 이메일로도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아쉬운 결과였지만 아이들을 격려했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Step 5. 권역별 아동 제안	
3차 모니터링 회의 때는 아이들이 교육관련 기관에 연락하고 교육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을 인터뷰지로 제작하여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 이메일로도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아쉬운 결과였지만 아이들을 격려했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Step 6. 활동소감 (코디네이터, LENS)

- 모니터링단

윤세린: 인권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해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다.

김초은: 활동 중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코디네이터

아이들이 열심히 활동해줘서 고맷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아쉬움이 남는다. 아이들이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았는데 보고서 작성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성의있게 그리고 활동한 내용들을 보면 내 기준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1달 동안 나름대로 고생했을 아이들에게 뭐라 하기도 그렇고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별로 뭐라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그러지도 않았다. 나에게 아쉬웠던 점은 아이들에게 좀 더 잘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다.

Step 7. 활동자료



Step 8. 활동 피드백

- 모니터링단

윤세린: 보고서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이유: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계속 반복하여 진행해도 비슷한 답변이기 때문이다.)

김초은: 보고서를 한 번만 써도 될 것 같다. (이유: 활동을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전지적 제주1 LENS 시점”

LENS	이민채, 이서영, 김가연, 장우진, 이서주, 이진아, 한예원, 김율, 고성빈, 이소연, 장연수
코디 네이터	김정호

활동주제	
공통주제	<p>“코로나19 상황 속 학교 안, 학교 밖 아동의 건강권”</p> <p>*단원들의 제안 중 학교 안전, 홍수, 교통사고, 쓰레기 대란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전체의 중복투표 결과, 사회적 재난에서 현재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주제로 하고 그 중 학교 안팎의 아동들의 건강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지켜질 수 있을 지 제안해 보기로 함.</p>
권역주제	<p>“나이에 의한 차별”</p> <p>*건강할 권리에 관한 주제의 투표 수가 가장 높았으나 공통주제와 동일하여 후순위 동률이었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에 대해 자율 토론을 진행하였고 나이로 인해 아동 의견이 무시되고 차별받았던 경우가 많았다는데 모두 동의하여 ‘나이에 의한 차별’을 주제로 선정함.</p>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08.15. 13:00~16:0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 참여자: LENS 단원 12명(이다영, 이민채, 이서영, 김가연, 장우진, 이서주, 이진아, 한예원, 김울, 고성빈, 이소연, 장연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이승아 의원
- 내용
 - 자기소개 및 모니터링 안내
 - 아동인권 교육
 - 모니터링 주제, 방법 논의 및 선정
 - 모니터링 계획 논의
 - 체크리스트(설문지) 피드백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08.30. 10:00~12:0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단원 12명(이다영, 이민채, 이서영, 김가연, 장우진, 이서주, 이진아, 한예원, 김울, 고성빈, 이소연, 장연수)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주제팀, 권역주제팀별 모니터링 활동 세부계획 선정(모니터링 순서, 기간, 단원, 세부활동)
권역주제	공통주제와 동일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09.05. 13:00~14:1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단원 개별 가정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공통주제팀 단원 5명(김울, 이진아, 한예원, 김가연, 이서영)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활동 중 자료조사 내용, 방법, 단원 선정

권역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09.06. 13:00~14:0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단원 개별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권역주제팀 단원 5명(고성빈, 이소연, 장연수, 장우진, 이민채)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활동 중 자료조사 내용, 방법, 단원 선정
------	--

Step 4. 3차 ~ 10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p><3차 모니터링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09.12. 13:00~14:1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공통주제팀 단원 4명(김율, 이진아, 김가연, 이서영)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조사 1주차 활동 공유 및 피드백 <p><4차 모니터링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09.19. 13:00~14:1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공통주제팀 단원 4명(김율, 이진아, 김가연, 이서영)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조사 2주차 활동 공유 · 아동인권 제안 및 피드백 · 인터뷰 세부계획 선정, 모임일정 재조정 <p><5차 모니터링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09.26. 13:00~13:5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공통주제팀 단원 2명(김율, 이진아)

- 내용

· 인터뷰 준비상황 공유 및 피드백

<6차 모니터링단 회의>

- 일시: 2020.10.03. 13:00~13:5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공통주제팀 단원 5명(김율, 이진아, 김가연, 한예원, 이서영)

- 내용

· 인터뷰 준비상황 공유 및 피드백

<7차 모니터링단 회의>

- 일시: 2020.10.10. 13:00~14:0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공통주제팀 단원 4명(김율, 이진아, 김가연, 이서영)

- 내용

· 인터뷰 준비상황 공유 및 피드백

<8차 모니터링단 회의>

- 일시: 2020.10.17. 13:10~14:4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공통주제팀 단원 4명(김율, 이진아, 김가연, 한예원)

- 내용

· 설문조사 진행상황 공유

· 아동인권 제안 및 피드백

	<p><9차 모니터링단 회의> - 일시: 2020.10.24. 13:00~14:2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대면 회의 - 참여자: LENS 공통주제팀 단원 3명(김울, 이진아, 한예원), 이승아 도의원 - 내용 · 공통주제에 따른 아동인권 제안사항 도출</p> <p><10차 모니터링단 회의> - 일시: 2020.11.01. 10:00~12:0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대면 회의 - 참여자: LENS 단원 11명(이민채, 이서영, 김가연, 장우진, 이서주, 이진아, 한예원, 김울, 고성빈, 이소연, 장연수) - 내용 · 모니터링 활동 마무리에 따른 공통주제, 권역주제별 아동인권 제안사항 공유 및 최종 제안사항 선정</p>
권역주제	<p><3차 모니터링단 회의> - 일시: 2020.09.13. 10:50~12:2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권역주제팀 단원 6명(이민채, 장우진, 이서주, 고성빈, 이소연, 장연수) - 내용 · 자료조사 1주차 활동 공유 및 피드백</p> <p><4차 모니터링단 회의> 일시: 2020.09.20. 10:50~13:1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권역주제팀 단원 6명(이민채, 장우진, 이서주, 고성빈, 이소연, 장연수)</p>

- 내용
- 자료조사 2주차 활동 공유
- 아동인권 제안 및 피드백
- 설문조사, 인터뷰 준비 관련 문항 공동구성 톨 안내

〈5차 모니터링단 회의〉

- 일시: 2020.09.27. 10:50~11:5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권역주체팀 단원 6명(이민채, 장우진, 이서주, 고성빈, 이소연, 장연수)
- 내용
- 인터뷰, 설문조사 준비상황 공유 및 피드백
- 활동보고서 작성, 제출 문의 및 안내

〈6차 모니터링단 회의〉

- 일시: 2020.10.04. 10:50~12:15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권역주체팀 단원 6명(이민채, 장우진, 이서주, 고성빈, 이소연, 장연수)
- 내용
- 인터뷰, 설문조사 최종안 구성

〈7차 모니터링단 회의〉

- 일시: 2020.10.11. 10:50~12:05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권역주체팀 단원 6명(이민채, 장우진, 이서주, 고성빈, 이소연, 장연수)

- 내용

· 인터뷰, 설문조사 진행상황 공유 및 피드백

<8차 모니터링단 회의>

- 일시: 2020.10.18. 10:50~12:1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단원 개별 가정

*비대면 온라인 회의

- 참여자: LENS 권역주제팀 단원 6명(이민채, 장우진, 이서주, 고성빈, 이소연, 장연수)

- 내용

· 인터뷰, 설문조사 준비상황 공유 및 피드백

<9차 모니터링단 회의>

- 일시: 2020.10.25. 11:00~12:1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대면 회의

- 참여자: LENS 권역주제팀 단원 5명(장우진, 이서주, 고성빈, 이소연, 장연수)

- 내용

· 권역주제에 따른 아동인권 제안사항 도출

<10차 모니터링단 회의>

- 일시: 2020.11.01. 10:00~12:00

- 장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대면 회의

- 참여자: LENS 단원 11명(이민채, 이서영, 김가연, 장우진, 이서주, 이진아, 한예원, 김울, 고성빈, 이소연, 장연수)

- 내용

· 모니터링 활동 마무리에 따른 공통주제, 권역주제별 아동인권 제안사항 공유 및 최종 제안사항 선정

Step 5. 권역별 아동 제안

〈공통주제〉

- “코로나19를 포함해서 법률, 정책을 아동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세요.”
-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건강권과 관련한 방안들을 실천 가능한 순서대로 정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 “어른들 관점만이 아닌, 아동들의 건강권을 향상하기 위한 아동 중심의 정책이 필요해요.”
-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초기발견을 위한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 “학교, 학원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방법 교육과 매뉴얼을 마련해 주세요.”
- “아동의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개발, 출동 서비스, 관리 담당자가 필요해요.”
- “학교마다 신체활동이 너무 달라요. 모두가 적절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해요.”
- “코로나로 등교가 어려운 아동도 자율적이면서도 학업성취 걱정 없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아동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도록 기사, 광고 등의 홍보와 국민청원에 앞장 서 주세요.”

〈권역주제〉

- “노키즈존이라는 이름보다 아동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표현이나 안내문 등을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 “선거연령을 낮추고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에티켓이 담긴 문구나 포스터를 많은 곳에 배포해 주세요.”
-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연령차별의 문제를 자료, 기사들로 많이 다루어 주시고 배포해 주세요.”
- “아동과 관련한 정책, 법 등을 만들 때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당사자와 함께 해주세요.”
-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활동, 행사를 많이 마련해 주세요.”
- “교육과정에 ‘연령차별’ 교육을 ‘필수’로 포함해서 학생, 부모, 선생님 모두가 받도록 해주세요.”

“연령차별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처럼 신고, 판단,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학교, 일상에서 연령을 밝히거나 구분하지 않아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Step 6. 활동소감 (코디네이터, LENS)

<김율>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활동 중 코로나19 이후 아동들에 대한 정책을 조사를 하려고 검색을 해보니 아동 돌봄 지원금이 나와서 한번 보았는데 아동을 위한 정책이 아닌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들을 위해 나온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은 물론 지원금을 자녀를 위해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중심은 아동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활동을 하는 도중에는 힘들었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활동을 또 해보고 싶다.

<고성빈>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 당사자와 함께 만든 경우가 이제까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 당시 피해를 받았던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견과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의견을 합쳐서 만들면 좋겠다.

핀란드에서는 어린이 의회 제도가 운영이 되며, 7,9학년 또는 그 이상의 고등학생이 되면 청소년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고, 청소년 위원회에서 정책이나 예산을 심의 하고 결재까지 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어린이 의회를 연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토론해서 나온 법률제안서들을 투표하고, 득표수가 가장 많이 나온 법이 어린이 의회를 거쳐 선정되며, 이 법률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공식적인 법으로 사용이 된다. 예시로 ‘어린이 노동으로 생산된 학용품 구매를 금지한다.’ 또는 ‘아동학대 발견과 예방에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법 등이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핀란드나 프랑스같이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를 쓰거나 조사하는 것이 힘들었고,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며 몇몇 활동들은 못해봐서 아쉽지만 나에게 좋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이소연〉

다문화 차별 금지 교육이나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같은 교육은 학교에서 여러 번 받는데 오히려 일상적으로 모든 아동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왜 교육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차별을 당하는 아동들도 차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연령차별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인식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연령차별과 관련한 교육을 필수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반영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연령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더욱더 밝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령차별을 계속 당하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차별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니터링 활동을 하다 보니, 내가 당하고 있던 차별들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저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다 보니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해도 마음만 아파할 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장연수〉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며, 아동·청소년이 의견을 내는 활동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 교육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그마저도 올해는 온라인 수업으로 넘어오며 많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누가 나이가 더 어리고 많은 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도의원과 같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포천시 '세이클럽'이라는 봉사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이 재난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 안전지도자로 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 자치 클럽이 있고, 우리 제주도에도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렇게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만들어주고, 알려주시면 좋겠다.

몇 명의 아동청소년이 아닌, 제주의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고,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 제주 아동·청소년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차별 주제와 같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여러 언니,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게 힘이 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노력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서주〉

연령차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서명 운동, 행사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수업으로 한다면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행사, 캠페인을 통해 함께 참여한다면 재미를 느끼며 연령차별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사를 하며 느꼈는데, 연령차별 문제는 아주 심각하였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연령차별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나도 “나이기도 어린 것이 어디 어른 말에 끼어들어?” 같은 연령차별을 많이 받아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차별을 당하는 아동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어른들도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한 번쯤은 보시거나 피해도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의 기분을 지금의 우리들과 어르신들이 더 이상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한 두 명의 인식을 개선한다고 해서 나아질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는 도전을 하고 싶다. 한 명, 두 명이 모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그 한, 두 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재미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연다면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에게로 쏠리지 않을까?

연령차별에 대해 많이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서,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고 연령차별에 대해서 공감되는 점도 많이 있었다. 내가 그 기분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내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세상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퍼지면 모두의 노력이 되고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 또한 항상 하는 생각이다.

이 활동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는 법,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활동을 함께 끝낼 우리 단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끝까지 열심히 해야겠다.

<이진아>

코로나 19와 관련된 법과 정책들은 물론,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들 모두 아동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활동을 시작하며 관련 법률과 정책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아동을 위한 법과 정책들은 모두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정작 우리들은 어려운 단어와 표현들 때문에 그 법과 정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아동들을 위한 법과 정책들을 아동들이 모른다면 그건 아동을 위한 법과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과 정책을 아동들도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바꾸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면, 아동들을 위한 법과 정책만이라도 아동들의 표현에 맞춰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은 처음해 보는 것이라 처음에는 떨리고 걱정도 되었지만,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뻐다.

이 활동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재밌을 때도 많았고 이 활동이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한예원>

회의를 할 때 어쩌다 학교 마다의 신체활동(체육)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별로 아예 다른 활동들이어서 놀랐다.

학교선생님들의 재량이는 하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 모니터링단이란 것을 들었을 때 어려웠고 활동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면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김가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정상등교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반 친구 한명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은 실제였고, 쓰러진 친구는 다른 반 학생들에게는 비밀에 부쳐진 상태로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구급차를 본 몇몇 친구들과 침묵만 하는 선생님, 그리고 불안한 얼굴로 입을 열지 않는 쓰러진 친구의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심각성을 인지한 다른 학생들은 혼란스러웠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아주 섬세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은 반의 문을 잠겼고, 친구들끼리 직접 손소독제를 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조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교무실을 찾아간 반도 있었고, 다들 불안해하는 눈치였다. 단 몇 분 만에 같은 학년이 있던 층은 소란스러워졌고, 반장이나 부반장 등 학생임원이 친구들을 진정시키려 해봐도 진정되지 않았다.

나는 이때 생각하였다. ‘혹여 코로나 확진자가 학교에서 발생된다면, 만약 지금 쓰러진 그 친구가 정말 코로나 확진자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안내문이 내려왔던 적도 없었다. 다들 자신을 챙기느라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고 선생님들께서도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공지도 하지 않으셨다. 다음날이 돼서야 쓰러졌던 친구가 원래 빈혈이 심했고, 오랜 시간동안 마스크를 써서 잠시 의식을 잃었으며,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다시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제야 친구들은 조금 안정되어 보였다. 만약 그 친구가 정말 코로나 확진자였다면 얼마나 더 혼란스러웠을까?

실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철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처방법 매뉴얼과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된 사건이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층 더 성장한 기분이 든다.

앞으로 좋은 제안들이 받아들여져서 코로나 19상황 속에서 아동들이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우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령차별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다 보니 관련 기사를 많이 찾아보았는데, 연령차별을 당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기분 나쁜 경험이었지만,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나 자료가 거의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로 조사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연령차별은 성인이 아동을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아동 내에서도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해서 선배에 의한 학교 폭력도 발생한다. 반대로 아이들이 나이든 어르신들을 무시하기도 한다. 초등학생을 낮게 부르는 ‘젼민’, 어르신들을 낮게 부르는 ‘틀딱’... 이런 단어들이 연령차별적이라는 것,

연령차별로 인한 갈등에 대한 문제들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고,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는 내용들을 기사로 다루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연령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령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알아보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내 생각만큼 심각하더라도 연령차별에 대한 자료와 기사가 많이는 없어서 충격적이기도 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다행히 생각보다 적은 수가 연령차별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도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듣는 나도 기분이 확 나빠질 만큼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연령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제안사항도 정해서 앞으로 도의원분들 앞에서 우리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몇 년 전부터 해왔던 모니터링 활동과는 다른 것 같아 기대가 된다.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로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민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연령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단원들의 조사내용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 어른을 차별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는 많이 있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에 관한 기사가 정말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나조차도 어쩌면 무의식 중에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연령차별을 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그 나이 때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쁠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나 역시도 조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서영〉

2020년의 가장 큰 재난 상황은 코로나19이기에 재난 상황은 코로나19로 결정했고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건강권에 관하여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아동의 건강권과 관련된 정책들은 어른들이 아동들을 돌볼 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관련한 정책만 많이 실행되고 있었고 아동의 건강권에 관해서 권고하는 내용은 많았지만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은 거의 없었다.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는 정부에서 대책을 매우 잘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아동의 건강권에 관해서는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것에 놀랐고 아동의 시점으로 아동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색다르게 느껴졌다.

〈김정호〉

코디네이터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이 일상답지 않아진 상황에서 더욱 쉽지 않은 아동참여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단원들과의 만남은 이전만큼 쉽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을 비대면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 방식을 익히고 온라인에서도 공동작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과 툴을 찾고 내가 먼저 익혀보는 등 활동 준비와 진행에 있어서 소통방식의 변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활동기간은 아동권리기반, 아동의 주도적인 참여, 아동참여 활동에 대한 지지와 지원에 있어서도,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역할재정립을 고민해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시간 되었다.

또한 모니터링단 활동이 내가 속한 기관 내부에서도 연중 지속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관심에 힘입어 도의회에서 아동권리 제안회를 갖게 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앞두고 된 점 또한 LENS 단원들의 그동안의 꾸준하고 최선을 다한 활동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주는 것 같아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Step 7. 활동자료



일정 안내, 모니터링 활동 소개



모니터링 단원 소개



내빈소개 및 격려사(한영진 도의원)



내빈소개 및 격려사(이승아 도의원)



단체사진 촬영



Ice Breaking '원손 초상화 그리기'



팀원 역할 정하기



약속(Ground Rule) 정하기



아동인권, 사회적재난, 모니터링 방법 알아보기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주제 제안 및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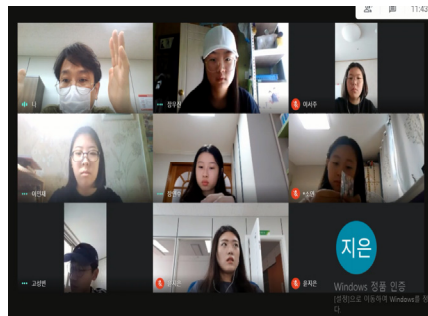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주제 제안 및 투표



공동주제, 지역주제, 활동방법 관련 논의 및 최종 선정



비대면(온라인) 모임-공동주제팀



비대면(온라인) 모임-권역주제팀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아동인권재단의뢰와 조류부산 어린이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LNS)' 제주시역할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제주 지역 아동인권 증진 프로젝트 중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료로 설문내용은 소니타링 활동에만 이용됩니다. 나이, 성별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요청 드리지 않으며 외부에 공개 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보시고 대답하는 사형에 (O) 표시를 해주십시오.

* 단락:
 질문과, 자료과정에서의 자기감정, 사연 등의 진로에 대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이 하고 수준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누리는데 필요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출처: 신영진, 2011.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2020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LNS) 제주시역할
 본 설문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당신의 성별을 알려주세요.
 Ⓐ 여성 Ⓑ 남성
- 당신의 연령대를 알려주세요(나이까운한 한국나이임).
 Ⓐ 0세-13세 Ⓑ 14세-16세 Ⓒ 17세-19세 Ⓓ 20세 이상
-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0-1번 문항으로) Ⓑ 아니오 (2-4번 문항으로)
-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이 어떤 면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니터링단 지역주제팀 설문지 구성

파일 수정 보기 삽입 서식 슬라이드 정렬 도구 불가능 도움말 언제 오픈된 11:53에 마지막으로

1. 설문지 구성
2. 설문지 구성
3. 설문지 구성
4. 설문지 구성
5.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 공동작업(공통주제팀)

설문지 구성 온라인 공동작업(권역주제팀)

그룹채팅 3

우리가 정했던 인터뷰 계획은 아래와 같아요.

19 상황 속 아동,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의료인, 건강권이 지켜지고 있는 것 부분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권은 무엇에 있을까요? 어떤 관련 전문가들에게 질문할까요? 학교, 학원, 관공, 학부모, 선생님, 전문가 10명 정도

할 계획은 조사, 인터뷰, 설문지, 문항, 1. 인터뷰 - 질문, 문항, 계획을 통해 비대면 인터뷰, 비대면 인터뷰

아래에 대해서 꼭 올려주세요!

1. 더 추가하면 좋을 인터뷰 질문
2. 내가 인터뷰를 진행할 장소
3. 내가 인터뷰 할 사람과 인원 수
4.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전화녹음, 화상녹음화녹음, 대면, 문자나 메신저 등)

1,2,3,4에 대해 꼭 올려주길 바랄게~

오후 6:16

2020아동인권모니터링단 이진아

1. 더 추가하면 좋을 인터뷰 질문
 코로나19 상황 속 자녀의 건강권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라고 답했음시
 코로나19 상황 속 자녀의 건강권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네 라고 답했음시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 가장 필요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내가 인터뷰 할 사람과 인원 수

모니터링단 지역주제팀 인터뷰 구성

파일 수정 보기 삽입 서식 슬라이드 정렬 도구 불가능 도움말 질문수님이 언제 오픈 27에 마지막

1. 인터뷰 구성
2. 인터뷰 구성
3. 인터뷰 구성
4. 인터뷰 구성
5. 인터뷰 구성
6. 인터뷰 구성
7. 인터뷰 구성

인터뷰 구성 SNS 공동작업(공통주제팀)

인터뷰 구성 온라인 공동작업(권역주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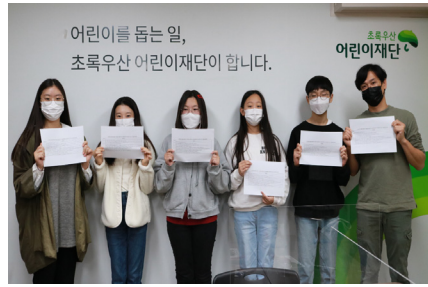
대면 모임-공통주제팀



대면 모임-권역주제팀



아동인권 제안 사항 도출(공통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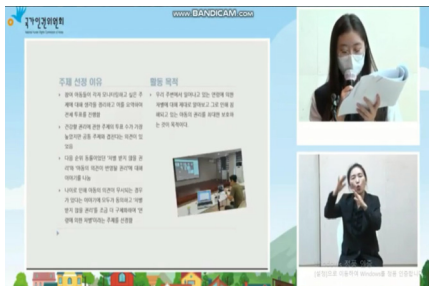
아동인권 제안 사항 도출(권역주제)



아동인권 제안 사항 최종선정(공통·권역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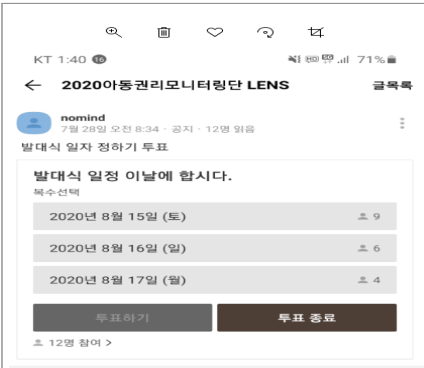
도의회 권리제한회 준비(공통·권역주제팀)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참여 및 발표(LENS)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참여 및 발표(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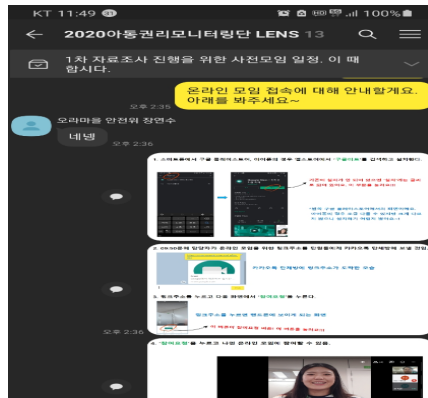
발대식, 모임 일정 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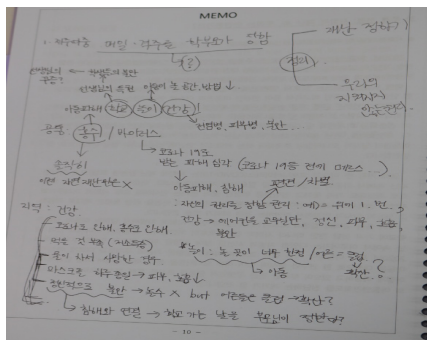
아동인권 관련 별도 자료 공유 및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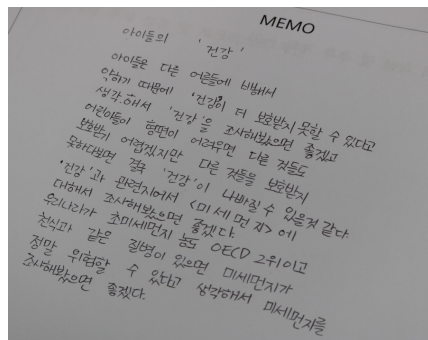
사회적재난 관련 별도 자료 공유 및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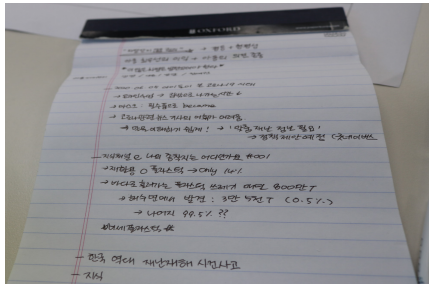
온라인 회의 참여 안내 및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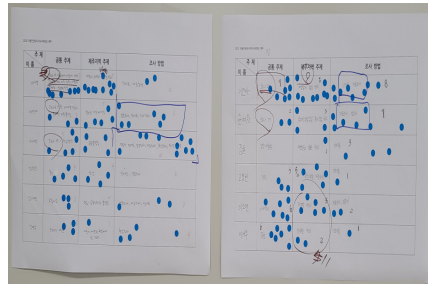
주제선정을 위한 사전 의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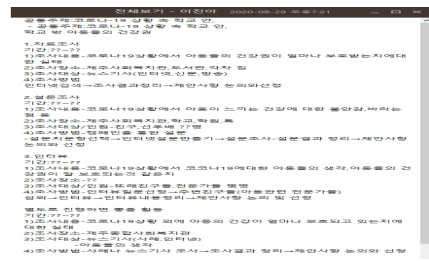
주제선정을 위한 사전 의견 정리



공통한 교육,설명자료에 대한 단원 사전 메모



공통,권역주제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및 투표



주제	방법	기간	개별 모니터링 활동계획	빈도	기타 비고
지역주제	주요조사	10월 15일 ~ 10월 25일	어린이의 의견이 무시당한 사례 개인적 일 또는 회의실 주변 어른이나 인터넷 이용 인터넷 조사	1회	뉴스 자료를 이 용하면 좋을 것 같음
	심층조사	10월 25일 ~ 11월 5일	의견을 무시당한 경험 나이로 차별당한 경험 학교, 동네 주변 시설 초,중,고 재학생/안 20명~100 실문지 만들어서 조사하기	1회	
권역주제	주요조사	10월 15일 ~ 10월 25일	나이 차별로 들었던 말, 무시 당했을 때의 기분 학교, 동네 주변 초,중,고 재학생/약 3명~5명	1회	다양하고 솔직한 답변을 들릴 수 있으면 좋겠음
	심층조사	10월 25일 ~ 11월 5일	실문지 만들어서 조사하기	1회	
별도 행동 계획	주요조사	10월 15일 ~ 10월 25일	고성빈, 이소연, 장민수, 이서주, 왕우진, 이민재 단원	1회	

모니터링 활동계획 제출(공통주제팀)

모니터링 활동계획 제출(권역주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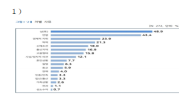
사실 아동학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만 건수는 2016년에는 18,700건, 2017년에는 22,367건, 2018년에는 24,606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유독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2019년 2월에 비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2020년 2월이 2배 이상 많았다.

구분	2019년 2월	2020년 2월
건수	113	43
2019년 2월 대비	171	34
2020년 2월 대비	58	11
비율	25.8%	118.2%
비율	48.6%	

지역주제 자료 조사 1주차 이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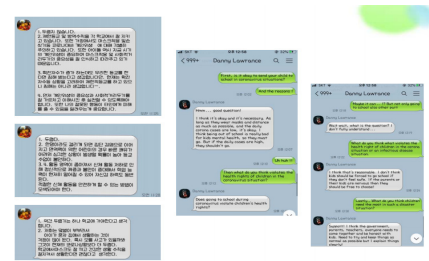


2) 방송 광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겪은 아동청소년 연기자들도 있었다.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8.8%(29명)였다. 미지급 규모는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4.4%(10명)로 가장 높았다. 1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은 20.6%(6명), 10만 원 미만은 6.3%(2명),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6.9%(2명), 300만 원 이상은 3.4%(1명)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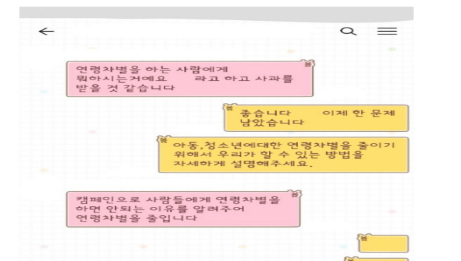
8명이 참여한 심층 인터뷰에서는 과자가 굵은 촬영 현장에서 경찰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를 10~11시까지 오래고 해 놓고 촬영이 끝나기 세팅이 끝난 것을 보고, 촬영을 이유로 새벽에 나오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대기실이 없어 '앉아서' 기다려야 했으며, 추운 날씨에 드링크 등 기본적인 난방 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아동청소년 배우들과 보호자까지 실망이다. <https://www.pocnews.co.kr/news/3273100>

자료조사(공통주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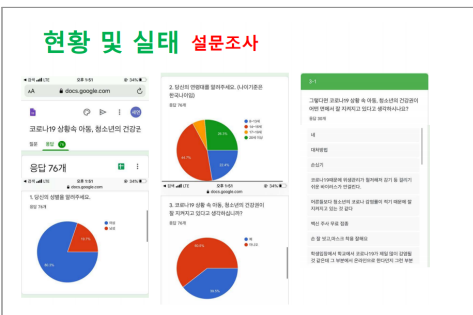
자료조사(권역주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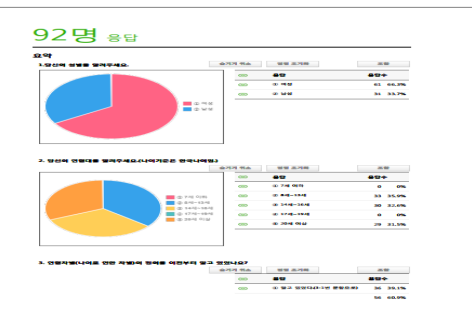
인터뷰(공통주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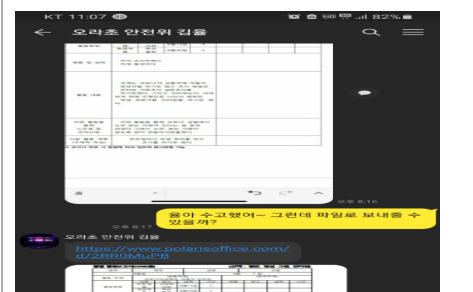
인터뷰(권역주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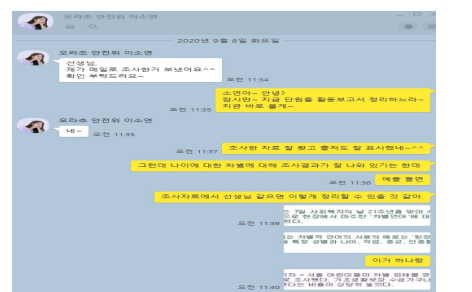
설문조사(공통주제팀)



설문조사(권역주제팀)



월별 활동보고서 취합 및 작성 피드백



모니터링 활동 수시 피드백

월별 활동보고서 (LENS용) (선택 : **월별** 영상, **그림** 인터뷰)

권역	제주	성명	10월 14일	김가연
활동 주제	코로나-19상황 속 학교 안락과 밖의 아동들의 건강권 (공통주제)		(지역주제)	
활동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자료조사 취학 현황	9/5	13:00-14:10	
	자료조사 내용실무 현황	9/12	13:00-14:10	
	자료조사 내용실무 현황	9/19	13:00-14:10	
현황 및 실태	<p>(간주제) 공통주제를 정한 것에 대해 자료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의논하고 결정하였다.</p> <p>(주제) 1. 유익한 임대주택의 실현 앞서 합의된 공동대표는 정부가 건강하게 도입해야 할 26가지 제도를 발표하고 그 중의 사회적 실패를 지적 정부 시정요청은 총 5가지가 있다. (가족돌봄휴가기간 연장 및 유급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공공요양 및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긴급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 수 축소, 안전한 긴급 대면 돌봄 서비스 확복 등) http://www.ohmynews.com/NWS_View/zt_p.asp?CNTN_CD=A0002656508</p> <p>2. 코로나 19 정부지원 - 정부 24 (안원가과) 카카오뱅크, 아용으로 검색을 하면 많은 자료가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제도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p>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공통주제팀)

월별 활동보고서 (LENS용) (선택 : **월별** 영상, **그림** 인터뷰)

권역	제주	성명	10월 14일	이민재
활동 주제	코로나-19상황 속 학교 안락과 밖의 아동들의 건강권 (공통주제)		(지역주제)	
활동방법	내용	장소	날짜	시간
	자료조사 취학 현황	9/5	13:00-14:10	
	자료조사 내용실무 현황	9/12	13:00-14:10	
	자료조사 내용실무 현황	9/19	13:00-14:10	
현황 및 실태	<p><1차 조사></p> <p>1)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가 따르면 차별 중 성차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령차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http://www.c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261</p> <p>2) 어린이 청소년 배우를 중 의원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겪었다고 실례에 대한 비율이 28.16%나 된다. 또한, 여중 10-11시까지 오라고 해 놓고 촬영이 늦어져 예정에 없던 밥을 사주고, 촬영을 이유로 새벽에 나오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대기실이 없어서 기다려야 하고 추운 날씨에도 난로 등 기본적인 난방 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https://www.nocudnews.co.kr/news/5273100</p> <p>3) 전주고등학교 2학년 조민 군은 공적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상의 후보인 비례대표 기호 0번을 내세웠다. 정치라는 주제 앞에서 청소년은 투명인간이 된다고 말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부르는 한국의 정치 조직이나 기관이 왜 청소년의 정치할 자유는 가로막는 것이냐고 고질였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 세로 내려간 것을 말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nocudnews.co.kr/news/5319138</p>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권역주제팀)

2020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LENS)

- 활동 3회차(공동주제팀 1회차-온라인 모임) -
발언 내용 정리

- 주 제: 모니터링 활동 중 자료조사 내용방법만편 선정
 - 일 시: 2020.09.05(토) 13:00~14:10
 - 장 소: 제주중앙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 단원 개별 가정
 - 진행방식: 온라인 화상회의
 - *단원 참여로 실시간 화상 회의를 진행
 - *교육자료, 단원 발표 및 보고자료, 이번 주일 발언 내용 기록, 기타 다른 공지 자료의 경우 문서자료영상 등용 사전 혹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작성 공유하여 진행
 - 참 여 자: 김윤, 이진아, 황예원, 김가연, 이서영 (총 5명)
1. 시작 12:50
 - 회의 초대에 따른 입장.
 - 김윤-김아-매원-서영-가연 순으로 입장.
 2. 13:10, 2차 모임까지 합의하고 선정된 모니터링 활동 계획 자료 공유.
 3. 13:17 서영 질문 및 김정후과장 답변
 - Q. 모니터링 활동을 10월말까지 끝내야 하나요?
 - A. 10월 마지막 주를 남겨 놓고 활동을 계획 하였습니다.
 -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그 때까지 모니터링 및 사항들을 바탕으로 아동안련에 대한 제안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
 - Q. 10월 마지막 주에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 간에 통틀어 단체 카톡방으로 공유되는 정보들을 총 정리 후지하라고 중간 중간 피드백을 줘야 할 것. 그리고 모두 시월기간 일정을 담당자에게 공유해야 할 것.
 4. 과정보에 대한 정보 서한
 -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해서 만나기가 힘든 상황에서 단원들끼리 질문을 주고받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은 어떨까? 라는 에서 할 것임. 모니터링 활동은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하길 바램. 그것이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활동의 원래 취의에 맞는 것임.그럼 각각 활동에 직접 하되, 질문이나 요청할 부분이 있는 경우 언제든 의견을 주거나 문의를 주면 최우선적으로 답변 주길 같이 응답과 지원을 하고자 함.
 5. 13:29 활동계획 변경 논의(서영 질문 및 김정후과장 답변)
 - Q. 인터넷 기간 바뀔 수 있나요? 시월기간이라.

2020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LENS)

- 활동 4회차(지역주제팀 1회차-온라인 모임) -
발언 내용 정리

- 주 제: 모니터링 활동 중 자료조사 내용방법만편 선정, 자료정의, 활동보고서 작성
 - 일 시: 2020.09.06(일) 13:00~14:00
 - 장 소: 제주중앙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 단원 개별 가정
 - 진행방식: 온라인 화상회의
 - *단원 참여로 실시간 화상 회의를 진행
 - *교육자료, 단원 발표 및 보고자료, 이번 주일 발언 내용 기록, 기타 다른 공지 자료의 경우 문서자료영상 등용 사전 혹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작성 공유하여 진행
 - 참 여 자: 고성민, 이소연, 장연수, 장유진, 이진재 (총 5명)
1. 시작 12:50
 - 회의 초대에 따른 입장.
 - 성민-연수-소연-진재-유진 순으로 입장
 2. 13:00~13:10 향후 일정 재 공유
 3. 13:20 자료조사 내용, 방법, 단원 선정에 대한 자율 논의
 - *11월에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할 것임. 10월 마지막 주는 아동인권의 제안사항을 선정하고 결과보고회 준비를 모두가 함께 해야 함을 다시 안내함.
 - *이후 김정후과장은 단원들의 논의 중 포커스가 될까? 아니면 질문이 있을 때에만 표현토 할 것.
 - *논의 시간은 20분 동안 진행하기로 함.
 - *일정 시간동안 의견 나눔 없이 활동 진행하기로 함.
 - *모든 사항들이 하나라도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의견을 낼 때 주저하지 말고 무리하지 않아야 함. 발표에서 가만히 있어 있지 않기를 모두가 도와 줄수있을 것임. 가만히 있을 때, 주위의 의견 들과 조화를 얻는 자리가 아니고 모두의 의견을 빼앗아 흔들려야 함. 혹시 흔들리는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음.
 - *연재: 각각 누가 조사할 지를 정하면 좋을 것 같음. 이걸 먼저 정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본인이나 조사할 사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음.
 - *연수: 저쪽 기사에서 넘어야 하는 것들 사제가 있는지 찾아보겠다.
 - *연수: 나이지버들의 뜻과 나이지버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해보겠다.
 - *성민: ...

매회차 모임 발언내용 공유(공동주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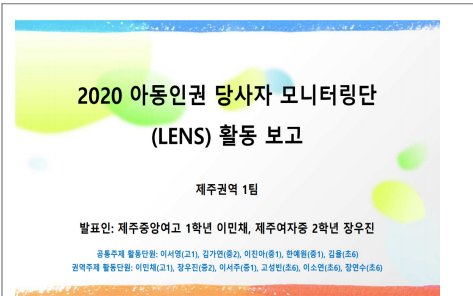
매회차 모임 발언내용 공유(권역주제팀)



아동안련 당사자 모니터링 주제 제안 및 투표(공동주제)



아동안련 당사자 모니터링 주제 제안 및 투표(권역주제)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발표자료(LENS)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발표자료(코디네이터)

「2020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아동 스스로 주변의 아동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제안을 통해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참여활동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0조 -

“당사국은 자신의 경제를 향상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경제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경제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상당한 비중을 부여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

“도사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공공유치원
어린이재단

행사 개요

□ 행사명: 2020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아동 인권 제안회」(가칭)

□ 목적

- 아동 스스로가 권리의 당사자로서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아동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

□ 목표

- 아동의 권리 주체성 및 역할의 향상
- 아동 권리 수준의 도약
-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한 아동 참여권의 보장과 실현
- 아동 권리 제안 사항에 대한 정책 및 제도 반영

□ 2020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활동 개요

- 활동지역: 제주지역 일원
- 활동기간: 2020년 8월 ~ 2020년 11월

「참여가 효과적이고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이에 따라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은 상기한 활동기간 이후에도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기본적 가치에 맞게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활동인원: 제주도내 초·중·고 아동 청소년 11명
- 모니터링 분야
 -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코로나-19) 속 아동들의 건강권
 - 지역주제: 연령차별(미성숙하다고 단정 지음, 무시, 아동 의견 미반영, 갈등과정에서의 아동 참여 배제)

LENS-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주최 아동 인권 제안회(20.12.05.) 제안

Step 8. 활동 피드백

-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 등교 등 변화된 상황에 맞는 활동기간 선정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아동의 활동 및 기존 지원체계, 소통에 대한 여건이 유례 없는 변화를 맞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처럼 수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는 아동들의 충분한 활동,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에서도 아동들의 참여가 효과적이고 유의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발성에 그치지 말고 참여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기간 선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온라인 비대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점차 비대면 모임과 소통이 불가피해져가는 상황에서 참여 아동들이 보다 비대면 피로감을 줄이고 원활하게 의견나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 갖추어졌으면 함.
예를 들면 활동기간 동안 IT기기 무료 지원과 활동 전 사용방법에 대한 필수 안내를 통해 참여아동들이 보다 쉽게 활동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었으면 함.
- 아동 연령별로 이해하기 쉬운 주제별 자료 제공
모니터링 활동 전 배포되었던 자료집의 경우 초등학교 연령대의 참여아동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컸음. 활동의 모집 연령이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 까지로 정해져 있고 이 연령대의 아동들도 충분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을 할 권리가 당연히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한 안내 및 설명자료가 준비되었으면 함.(자료의 유형도 자료집 형태만이 아니라 영상, 음성 등 다양하게 제공되었으면 함.)

“전지적 제주2 LENS 시점”

LENS	김리원, 안소향, 오수민, 이서진, 조하은, 황서형
코디 네이터	이종렬

활동주제	
공통주제	<p>(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간 및 학교 게시판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 인권 신장을 위해 봉사할 학생들을 모집하였습니다. 6명의 학생이 지원하였고 발대식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을 통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 대해 소개하고 모니터링단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활동의 근거가 되는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교육하며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학생들로 모집이 되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대면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제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하여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넓은 의미의 안보로 확장하여 학습권과 발달권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해보도록 했습니다. - 카카오톡을 이용한 회의도 진행하였지만 집중하는 면에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발대식을 포함하여 총 4번의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고 학교에서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수시로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권역주제	<p>(권역별 주제)</p> <p>관광도시 제주,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p> <p>- 타 권역과 달리,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 아동 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의논하였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고 자연환경이 아동들의 신체, 정신적 성장 및 학습을 포함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단원 모두가 동의하여 제주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에게는 삶의 터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 권리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변화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아동들에게 있어 생존, 발달, 참여의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p> <p>- 특히 변화의 방향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관광 시설 확충 또는 도시화로 향하는 것에 단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하였습니다.</p>
------	---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일시 : 2020년 8월 8일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신성여자중학교 교실 4. 회의 참석자 : 김리원, 안소향, 오수민, 이서진, 조하은, 황서형 5. 회의 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소개 ② 모니터링단 역할 소개 ③ UN아동권리협약 및 인권 교육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1. 회의 일시 : 2020년 9월 16일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신성여자중학교 교실 4. 회의 참석자 : 김리원, 안소향, 오수민, 이서진, 조하은, 황서형 5. 회의 내용 : ① 공통주제에 대한 세부주제 도출 ② 앞으로의 활동계획 논의 ③ 설문조사 방법 시기 및 방법 논의
권역주제	1. 회의 일시 : 2020년 10월 20일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신성여자중학교 교실 4. 회의 참석자 : 김리원, 안소향, 오수민, 이서진, 조하은, 황서형 5. 회의 내용 : ① 설문조사 방법 회의 ② 설문 문항 제작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1. 회의 일시 : 2020년 9월 23일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신성여자중학교 교실 4. 회의 참석자 : 김리원, 안소향, 오수민, 이서진, 조하은, 황서형 5. 회의 내용 : ① 설문 조사 문항 제작 ② 생활 시간 변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는데 중점을 둠.

Step 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1. 회의 일시 : 2020년 9월 29일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신성여자중학교 교실 4. 회의 참석자 : 김리원, 안소향, 오수민, 이서진, 조하은, 황서형 5. 회의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 ②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심층 인터뷰를 계획 ③ 설문 결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토의 ④ 심층 인터뷰 진행 ⑤ 인터뷰 내용 공유 및 분석
권역주제	1. 회의 일시 : 2020년 10월 28일 2. 회의 방식 : 대면 3. 회의 장소 : 신성여자중학교 교실 4. 회의 참석자 : 김리원, 안소향, 오수민, 이서진, 조하은, 황서형 5. 회의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문조사 결과 분석 ② 분석 결과에 대한 회의 및 보고

Step 5. 권역별 아동 제안	
1. 공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일상에 따른 변화가 생각보다 많았다. 그 변화 자체는 모두에게 일어났지만 변화에 대한 체감 정도와 대응 방식은 평등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경제적 형편 등에 따라 사회적 재난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의 불편함으로, 누군가에게는 처절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보 격차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대안이 필요해 보였다.
2. 권역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의 변화는 삶을 바꾼다. 제도나 법의 변화보다 환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연 환경 파괴에 따른 변화는 다시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깊은 성찰과 책임있는 논의 속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삶의 주체인 아동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 대중의 인식 재고와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Step 6. 활동소감 (코디네이터, LENS)

김리원 : 아동인권 모니터링 요원 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험도 많이 쌓았고 다양한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폭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며 했던 자료조사들, 체험들 모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동인권 모니터링 요원 활동을 신청하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민 : 코로나19 사태에서 아동의 인권이 지켜지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해 보고하는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잊지 못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어 좋습니다.

안소향 : 많은 의견과 많은 내용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꽤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빈민촌 아동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보고 직접 조사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시간, 활동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황서형 : 친구의 제안에 우연히 아동인권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되었고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설문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에서 부딪힘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하은 : 활동 같이하느라 고생한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제가참여한 활동이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서진 : 처음으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바뀐 우리의 삶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우리의 인권, 그리고 제주의 개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우리의 인권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Step 7. 활동자료

활동자료 (인터뷰, 설문조사, 그림 등)

공동주제 설문조사

'코로나-19로 변화한 일상' 설문조사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1. 코로나 19 이후 생활시간 변화

	많이 늘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많이 줄었다
학습 목적 미디어 사용	54	47	32	0	5
학습 목적 외 미디어 사용	67	36	31	2	3
사교적 시간	24	37	82	8	9
집에서 하는 학교 과제 시간	46	45	34	8	7
그냥 있는 시간	44	41	37	12	6
혼자 있는 시간	55	40	40	11	4
운동·산책 시간	18	24	48	26	24
밖에서 친구 만나는 시간	13	10	33	31	52
문화놀이 공간 방문 시간	3	7	33	32	65
수면 시간	48	17	41	21	12

2.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수업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공부한다.	12	22	59	47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때 기기의 문제로 방해로 받은 적이 있다.	24	48	40	28
나는 온라인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다.	22	48	53	17
나는 온라인 수업을 자율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	37	65	24	14
나의 보호자는 온라인 학습 및 과제에 관심을 가진다.	22	61	41	16
통교하지 않는 날 평일 점심을 먹는다	55	55	19	11

3.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 해결 방안 (1개 이상 체크)

학교 선생님께 질문	22
교육 관련 기관(학원·공부방) 도움	35
보호자로부터 도움	21
형제자매로부터 도움	20
혼자 해결	87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	47
기타 (내용을 써주세요)	23

4. 여러분 가정의 경제·문화적 수준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	중	상

2. 공동주제 심층 인터뷰지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한 일상- 설문 결과 심층 인터뷰

인터뷰 내용은 신성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 공개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1.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습 목적 외의 미디어 사용 시간 역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학습 목적 이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2.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서 혼자, 그냥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3.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또는 산책 시간은 즐겼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마찬가지로 밖에서 친구를 만나는 시간 역시 즐겼다는 응답이 꽤 많았는데요. 친구를 만나는 일이 청소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5. 온라인 수업 이후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6. 온라인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 등교하지 않는 날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먹는다면 무엇을 먹는지?)

8. 온라인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물음에 35%의 응답이 '혼자 해결한다'였고 약 20%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5%정도로 아주 높게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학교 선생님께 질문해서 해결한다는 응답은 8%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권역별 주제 설문조사 결과

응답 149개



응답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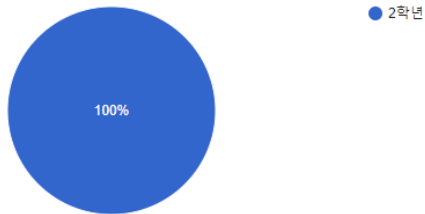
요약

질문

개별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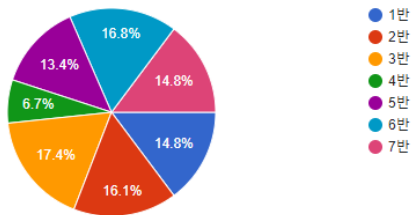
학년을 선택하세요.

응답 1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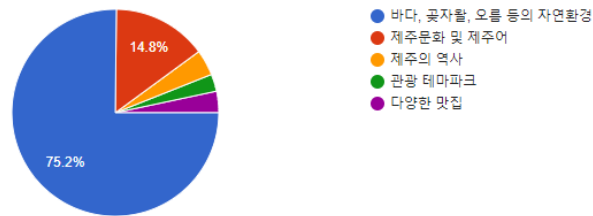
반을 선택하세요.

응답 1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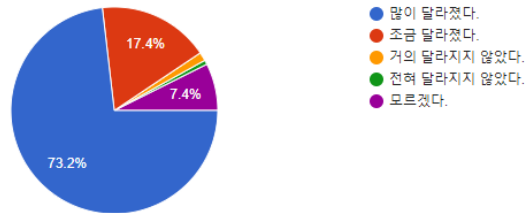
1. 제주도의 '제주다움'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가?

응답 1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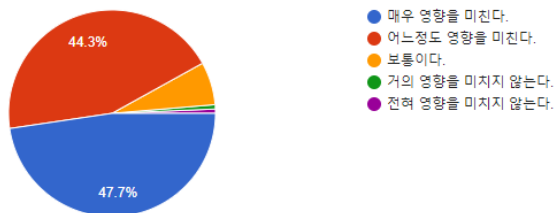
2. 10년전의 제주와 현재의 제주는 얼마나 달라졌다고 느끼는가?

응답 1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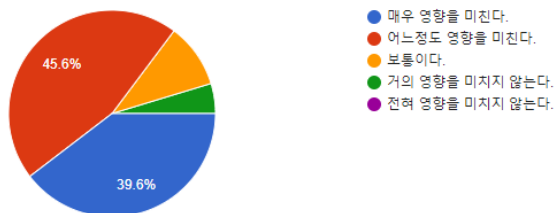
3. 자연환경이 아동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응답 1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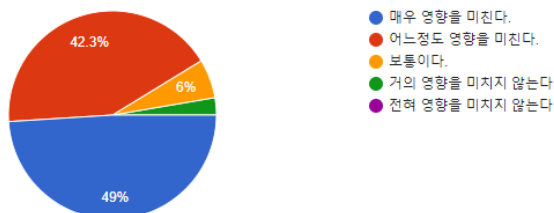
4. 자연환경이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응답 1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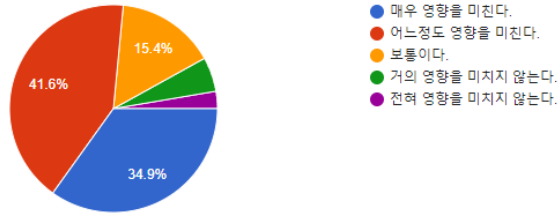
5. 자연환경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응답 1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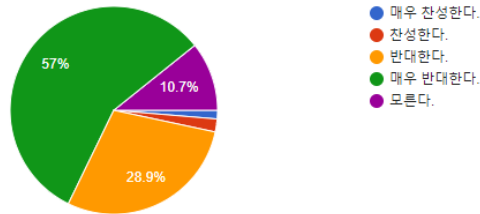
6. 자연환경이 아동의 '학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응답 1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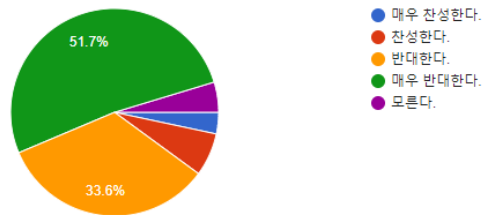
7.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자림 확장 공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응답 1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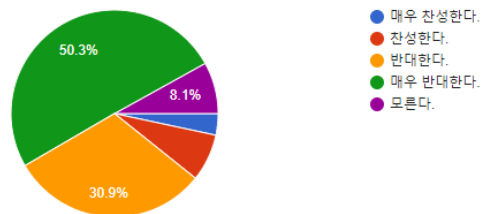
9.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응답 1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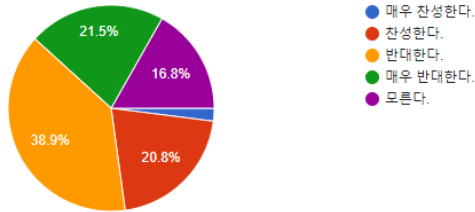
11.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 테마파크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응답 14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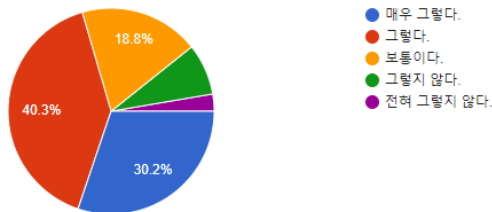
13. 제주의 (관광)도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응답 149개



14. '관광지로서의 제주'에 살면서 불편함을 느낀적이 있는가?

응답 149개



Step 8. 활동 피드백

초기 계획했던 것보다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 들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대면, 비대면 상황을 마주하면서 서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좌충우돌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참여해준 모니터링단 아동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아동의 의견도 수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니터링단의 작은 노력이 언젠가 우리 사회의 작은 외침으로 점차 더 넓은 곳으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전지적 총남 LENS 시점”

LENS	송정아, 박재영, 정다솔, 임수혁, 신준, 황진하, 김운찬, 유준희, 배민서, 박나영
코디 네이터	박찬미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권역주제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1. 자기소개

- 서로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더불어 모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아이스브레이킹 시간도 가졌다.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으로는 ‘진진가 게임’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사소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마음의 거리가 한층 더 좁혀졌다.

2. 모니터링 소개

- 모니터링 소개는 피피티 화면을 이용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개였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피피티 화면에 띄워진 짧은 질문 하나하나에 함께 대답해가며 ‘인권’과 ‘아동 인권’, 그리고 ‘모니터링’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아동권리교육

- 모니터링 발대식 전 전문 강사님께서 아동인권교육을 진행해주셨고, 아동인권교육 영상은 각자 집에서 QR코드를 통해 시청하기로 하였다.

4. 공통주제 및 모니터링 방법 논의

- 다양한 '사회적 재난'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를 주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2명의 단원들 중 코로나팀에 소속된 6명이 코로나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각자 인터넷과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함께 모여 그림으로 표현해내기로 하였다.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 발대식 이후 모니터링 단원들은 인터넷 조사와 자신의 주변 사례 조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동이 겪게 된 불편이나 어려움, 문제점에 대해 각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모니터링 단원들은 각자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비대면 회의를 진행했고, 각자가 조사하고 생각한 내용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 비대면 회의 후에는 우리가 찾은 문제점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대책을 생각해보는 과제를 수행했다.

〈우리가 찾은 문제점 및 제안사항〉

1. 언제나 마스크를 써야 해서 불편하다. (가끔 선생님께서 체육활동 시에만 마스크를 벗도록 허락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체육이 제일 좋다.)
 - 언제나 마스크를 써야 해서 불편하다-
 - 쉬는 시간마다 밖에서 2M이상으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를 벗는다.
2. 학교에 거의 가지 못한다.
 - 줌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면 이해 안되면 바로 질문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학교 분위기도 날 것 같다.
 - 나라에서 화상채팅용 카메라를 제공하여 화상통화를 한다.

3. e학습터는 집중이 안 된다.
 - 줌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 혼자만의 방에서 e학습터를 시청한다.
4. 친구들과 접촉하면 선생님께 혼난다.
 - 거리두기는 해야하고 친구들과도 친해져야 하니까 각자의 것으로 같이 놀 수 있는 공동체 놀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마피아 게임: 각자의 책상에서 다 같이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놀기에도 적당할 것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경찰을 정해 친구들이 접촉도 하지 않게 하고 혼나지도 않게 한다.
5.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설치된 칸막이가 불편하다.
 - 칸막이로 인해 많이 다쳐서 교실에서 뛰면 칸막이 때문에 다친다고 지도하고, 학생들이 칸막이를 보면서 주의를 한다.
6. 마스크를 오래 쓰면 귀가 붓고 아프다.
 - 나라에서 귀가 아프지 않은 귀보호대가 달린 마스크를 만들어 아동들에게 지원한다.
 -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조금만 빼고 있다가 1분 뒤에는 다시 쓰면 괜찮을 것 같다.
 - 마스크를 잡고 한쪽을 뺐다 껴다를 반복하여 귀를 아프지 않게 한다.
7. 밖에 못 나간다.
 - 외출을 자제하지만 필요한 외출은 한다.
8. 멀리 여행을 못 간다.
 - 14일간 격리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9. 집에만 있어야 한다.
 -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10. 외식을 못한다.
 - 집에 시켜서 먹거나 외식하러 나갔을 때, 가게 테이블에 앉을 때(?) 거리두기를 하며 앉는다.
11. 온라인 수업이 재미없고 힘들다.
 - 온라인 수업을 재미있는 주제로 하거나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번갈아 한다.

12. 입국 금지로 인해, 해외에 있는 아동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 입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14일간 격리한다.
13. 친구들과 함께 붙어다니고 싶은데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인터넷상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에선 자제한다
14. 궁금한 내용을 바로바로 질문할 수 없는 온라인 수업 환경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 위험해도 학교 가는 걸 늘려서 성적을 올려야 한다.
 - 온라인 학습에 있는 채팅 기능으로 선생님께 물어 본다.
15. 학교 및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생활 규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사회적 거리두기 등)
 - 좀만 더 버텨서 안전할 때 놀아야 한다.
 - 거리두기를 범위를 1m 정도로 낮춘다.
16. 손 소독제가 몸에 좋지 않다.(손 소독제를 문힌 손을 무심코 입에 넣었다가 토할 뻔한 적이 있다. 화상을 입거나 실명 위기가 왔던 친구들도 있다고 한다.)
 - 나라에서 위험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손소독제를 만들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소독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손 소독제를 입이나 눈에다가 대지 말라고 알려야 한다.
 - 손소독제를 아이의 손의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둔다.
17. 코로나 때문에 보고싶은 친척들을 못 만난다.
 - 마스크를 써서 조심히 다녀야 한다.
 - zoom같은 미대면 화상통화로 만난다.
18. 코로나로 인해 집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러 가시면 집에 아이들만 남아서 위험하다.
 - 학교나 복지관 등에서 매일매일 돌봄 교실 운영을 한다.
 - 친구들과 놀거나 부모님께 전화해야 한다.
 - 학교나 복지관 등에서 돌봄 운영을 한다.

19. 코로나로 인해 복지관이나 학교 운영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친구들이 대피할 곳이 없다.
- 학대당하는 아동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학대 아동 쉼터'를 많이 만들고 24시간 운영한다.
 - 돌봄 운영을 한다.
 - 당장 주변 어른께 도움을 청한다.
20. 온라인 학습터와 외부 동영상 사이트(ex. YOUTUBE)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아동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영상들이 연관 동영상에 떠서 아동들이 공부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 온라인 학습터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제한시간을 짧게 정해두어 아동들이 온라인 학습터를 이용할 때에는 수업 관련 영상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에서 벌을 강화한다.
 - 온라인 학습을 정해진 시간 동안 하게 한다.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여 책으로 엮을 문장들(문제점과 해결방안 각각 5개씩)을 추렸다.
1. **마스크를 오래 쓰면 귀가 붓고 아프다.**
 - 나라에서 귀가 아프지 않게 하는 귀 보호대가 달린 마스크를 만들어 아동들에게 지원한다.
 2. **손 소독제에 신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아동들이 손소독제로 인해 다칠까 무섭다.(손 소독제를 문힌 손을 무심코 입에 넣었다가 토할 뻔한 적이 있다. 화상을 입거나 실명 위기가 왔던 친구들도 있다고 한다.)**
 - 나라에서 위험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손소독제를 만들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소독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
 3. **코로나로 인해 집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러 가시면 집에 아이들만 남아서 위험하다.**
 - 학교나 복지관 등에서 매일매일 돌봄 교실 운영을 한다.

4. 온라인 학습터와 외부 동영상 사이트(ex. YOUTUBE)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아동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영상들이 연관 동영상에 떠서 아동들이 공부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 온라인 학습터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제한시간을 짧게 정해두어 아동들이 온라인 학습터를 이용할 때에는 수업 관련 영상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5. 코로나로 인해 복지관이나 학교 운영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친구들이 대피할 곳이 없다.
 - 학대당하는 아동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학대 아동 쉼터'를 많이 만들고 24시간 운영한다.
- 대면 모임은 논산문화원에서 진행되었는데, 모두의 과제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후 추린 문장들 중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Step 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 사람들이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견이었다.
- 그리하여 모니터링단은 아동들이 어른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을 추려서 아동권리 캠페인 하기로 결정하였다.
- 캠페인을 하기에 앞서, 논산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지난 시간에 하던 활동을 마저 끝냈다. 저번 시간에 '아동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문제에 대한 아동들의 제안사항'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 논산 시민공원에 나가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피켓 2개와 현수막 하나를 제작하였는데, 피켓에는 '아동은 코로나 상황 중에도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라는 글귀를 적어 코로나 상황에서의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해 강조했다.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어른들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요!'라는 글귀를 적어 학교 앞에서의 흡연 금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현수막에는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라는 글귀를 적었다.

- '학교 앞 흡연', '코로나와 학대', '학교 앞 불법 주·정차'라는 3개의 주제에 대한 제안사항을 작은 종이에 적어 간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Step 5. 권역별 아동 제안

-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위험한 운동기구는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어른들은 아동들의 건의를 듣고 '아동이 원하는 운동장'을 만들어주세요.
- 학교에서 보건실을 크게 만들거나 침대 수를 늘려주세요.
- 학교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태우면 안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 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만들고 엄격하게 관리해주세요.
- 학교 주변에서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학교 앞에 cctv를 많이 설치하여 24시간 내내 감시해주세요.
- 나라에서 귀가 아프지 않게 하는 귀 보호대가 달린 마스크를 만들어 아동들에게 지원해주세요.
- 나라에서 위험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손소독제를 만들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소독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해주세요.
- 학교나 복지관 등에서 매일매일 돌봄 교실을 운영해주세요.
- 온라인 학습터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제한시간을 짧게 정해두어 아동들이 온라인 학습터를 이용할 때에는 수업 관련 영상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학대당하는 아동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학대 아동 쉼터'를 많이 만들고 24시간 운영해주세요.

Step 6. 활동소감 (코디네이터, LENS)

박찬미(코디네이터)

: 아동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아동들과 자주 만날 수 없는 것이 한이었다. 자주 만날 수 없었음에도 정말 열심히 활동에 임한 모니터링 단원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표한다. 다음에 또 함께할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했던 활동들보다 더욱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싶다. 마지막 회의 날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고였다. 그만큼 정말 의미 있고 사랑스러운 시간이었다.

송정아

: 비대면 회의 때는 선생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했다. 대면 회의 때는 많이 긴장했었는데 막상 와 보니 재미있었다. 또 그림 그리기와 캠페인을 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박재영

: 대면 회의도, 비대면 회의도 재미있었다. 캠페인을 하면서 밖을 돌아다녔던 것이 참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다솔

: 처음 캠페인을 할 때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하다 보니 관찮아져서 좋았다.

임수혁

: 그림 그리는 것도, 캠페인도 재미있었다.

신 준

: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인상깊었다. 특히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종이가 붙은 간식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즐거웠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고, 선생님께서 잘 진행해주셔서 좋았다.

황진하

: 캠페인을 할 때 긴장되고 떨렸지만 잘 해내서 기뻐다.

김운찬

: 그림을 평온하게 그리는 시간이 좋았고, 캠페인을 할 때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유준희

: 우리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다. 내 생각을 그려낼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다.

배민서

: 그림이 생각대로 잘 그려지지 않아서, 그리고 못 그린 것 같아서 속상했다. 캠페인의 경우 처음에는 부끄러웠으나 막상 재미있게 하고 나니 '할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나영

: 내가 그린 그림을 남이 본다는 게 조금 새롭고 부끄러웠지만,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렸던 것 같다. 재미있었다. 비대면 회의 방식도 새롭긴 했지만 재미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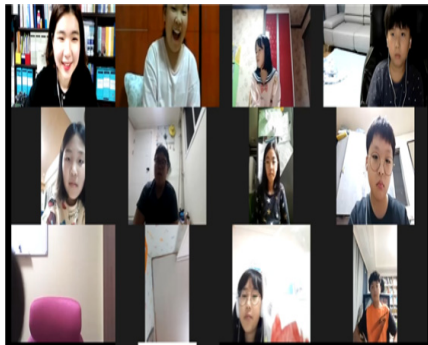
Step 7. 활동자료



2020.10.31. 2차 모니터링 회의(논산문화원)



2020.08.13. 발대식



2020.09.25. 1차 모니터링 회의(비대면)



2020.08.13. 발대식



2020.11.07. 3차 모니터링 회의(논산문화원)



2020.11.07. 아동권리 캠페인 활동

Step 8. 활동 피드백

- 다음에는 회의 횟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 다음에는 캠페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양케이트 같은 것을 해보고 싶다.


“전지적 총북 LENS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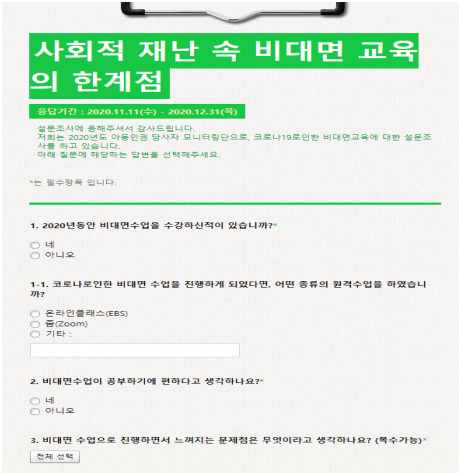
LENS	박종찬, 신인오, 이권호, 이우민, 최준영, 이준화, 장한나
코디 네이터	김효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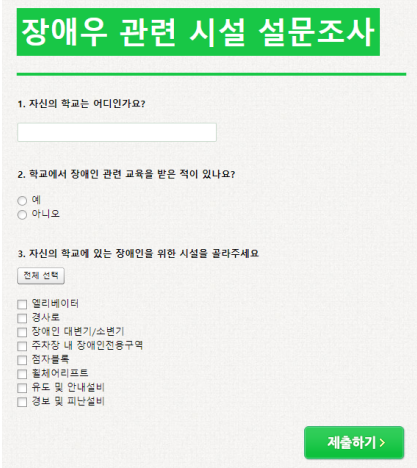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 사회적 재난 속, 비대면 교육의 한계점”
권역주제	“학교 내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

우리들의 3개월간의 발자취

Step 1. 발대식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장기간 시행하는 동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수가 늘었다는 경찰청의 발표에 대해 이야기 하며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의 한계점을 주제로 토의함.(장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폭력, 코로나블루(우울감), 놀이시간 감소 등)</p> <p>권역별 주제 - 모니터링 단원들이 소수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여 학교 내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을 주제로 토의함. 단원 7명 중 6명의 학교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반면 1명의 학교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였음.</p>

Step 2. 1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발대식 때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 하기 위해 논문, 뉴스 등 자료를 조사하여 논의함.
권역주제	학교내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기 위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함. 

Step 3. 2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통주제	<p>실제 아동들이 비대면 교육 시행으로 인해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 자세히 알기 위해 온라인 설문 조사 문항 제작</p> <p>〈온라인 설문조사 내용〉</p> 

	<p>1. 이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부하기에 편하다고 생각되나요?</p> <p>2.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느껴지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p> <p>3. 등교개학, 비대면교육중 하나만 선택하라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p>
<p>권역주제</p>	<p>청주시 내 고등학교의 장애인 시설을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설문 조사 문항 제작.</p> <p style="text-align: center;">〈온라인 설문조사 내용〉</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1. 자신의 학교 내 장애인 시설 유무</p> <p>1-1. 시설 종류 체크</p> <p>2. 자신의 학교에서 장애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p> <p>2-1. 그러하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까</p> <p>3. 장애우 관련 시설에 대해 보충할 점이나 건의할 사항(주관식)</p>

Step 4. 3차 모니터링단 회의	
공동주제	비대면 교육 시행으로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과 현황 설문조사 진행과 결과 분석, 해결 방안 모색
권역주제	청주시 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장애아동시설에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 진행, 영상 제작

Step 5. 권역별 아동 제안
<p>〈공동 주제 :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 사회적 재난 속, 비대면 교육의 한계점〉</p> <p>모니터링단 아동 모두 비대면 교육을 원하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설문 조사 결과 아동 스스로 대면 교육의 중요성과 대면 교육을 원한다는 점에서 의외라고 생각했다. 시간 분배와 공부 과목, 양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나태'라는 용어가 설문조사 결과에 많이 등장한 만큼 생활 패턴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 비대면 교육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비대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p> <p>〈권역별 주제 : 학교 내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p> <p>청주시 내 7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장애아동시설 중 대표적인 8개 시설이 모두 갖춰진 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엘리베이터 조차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사용하여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면 좋겠다. 학교 내 장애인 시설 설치에 관한 정책이나 법 등을 강화하고 더욱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p>

Step 6. 활동소감 (코디네이터, LENS)
<p>코디네이터 김효민 :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과 교내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에 대해 고등학생인 모니터링단의 시각으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모니터링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p>

장한나 :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아동 인권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아쉬웠지만 많은걸 배웠던 활동이었습니다.

최준영 : 이번 활동을 통해 평소에 생각만 하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노력에 참여해서 뜻깊었고 비록 활동은 코로나로 인해 발표까진 못함 아쉬움이 있지만 활동 자체가 너무 좋고 의미 있어서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준화 : 아동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며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대우와 걸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까지 볼 수 있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아동인권에 좀 더 가깝게 우리나라 평균 아동들의 인권을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 외의 영역을 탐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권호 : 아동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내 진로에 많이 다가갔음을 느꼈다. 물론, 아동을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나 또한 성장했다는 점에서 부듯함을 느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소통은 조금 미약했더라도 함께한 친구들의 아동에 대한 마음은 미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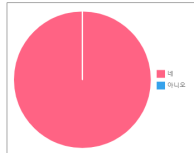
박종찬 :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인권의 다양한 종류와 이를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며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어 유익한 시간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침해받을수 있는 인권에 대해 조사하고 활동하며 우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이 배려받을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알리고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Step 7. 활동자료

60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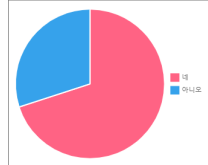
요약

1. 2020년동안 비대면수업을 수강하신적이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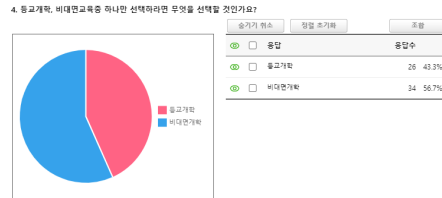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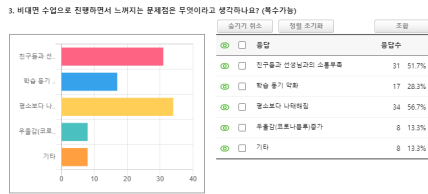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비율
네	60	100%
아니오	0	0%

2. 비대면수업이 공부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하나요?



응답	응답수	비율
네	42	70%
아니오	18	30%



4-1 위 항목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0자 이내)

- 확실히 등교해서 수업듣는게 효과적이고 생각해서
- 친구들과 있는게 좋아서
- 집이 좋다
-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때
- 비교적 시간관리하기가 수월해서
- 코로나 위험
- 자기시간조절가능해짐
- 편해서
- 집에만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심심하고 심하게 낙담해짐.
- 좀더 간편하게 수업들들수있음
- 비대면이 안전함
- 비대면이 안전하다
- 학교에서 공부하면 수업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
- 자습 시간 확보가 용이함
- 수업 내용을 여러 번 다시 볼수 있음
- 선생님과의 소통을 위해
- 비대면 수업을 하니 많이 개선했었다
- 학교를 가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 비대면은 편해서

- 코로나가 전 보다 더 심해져서 비대면이 좋겠지만 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놀수가 있어 등교가 좋다고 생각함.
- 비대면교육을 하는편이 공부하기가 좀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온라인 교육은 집중력 약화와 개성표현이 너무 심하다
- 내가 공부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 자유
- 집에서 하는 것 보다 학교에서 하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과게 모르는 것을 배우면 더 잘 이해되서
- 반 재정의면서 학교에 이제 락 전제하는 친구들인데 학기 초반에 많이 웃보고 해서 너무 아쉬웁습니다
- 행복합니다
- 비대면수업을 하면 자주 낙담해짐ㅠ
- 생활 규칙이 등교를 하면 일정이 혼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소보다 학습에 집중하기가 쉽다.
- 낙담해져서

<학교 내 장애아동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 **고등학교

장애 이해 교육 : 예

장애인 시설 :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 청주***고등학교

장애 이해 교육: 아니오

장애인 시설 :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휠체어 리프트,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 청주****고등학교

장애 이해 교육: 예

장애인 시설 : 장애인 화장실

- 충북**고등학교

장애 이해 교육 : 예

장애인 시설 :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경보 및 피난 설비

- **고등학교

장애 이해 교육 : 예

장애인 시설 :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 **고등학교

장애 이해 교육 : 예

장애인 시설 :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경보 및 피난 설비

- **고등학교

장애 이해 교육 : 예

장애인 시설 :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04

제언

제언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은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은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으며, 아동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으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아동 스스로 인권에 대해 알게 되고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동들은 학교를 직접 모니터링하며 어떤 점이 불편한지, 아동인권에 대해 알리고 주인의식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한계와 어려움도 경험하였다.

첫째, 발대식을 포함하여 3개월 동안 1회 활동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하였다. 활동기간이 짧아서 충분히 모니터링 하기 어려웠으며, 이 기간 내에 공통 주제와 권역별 주제를 나눠서 활동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세웠던 계획과 작성할 서류, 아동 모니터링단과의 관계, 모니터링 활동 등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 권역별로는 비대면 회의 중심으로 진행한 권역도 있었고, 비대면 없이 대면으로 진행한 권역도 있었다. 비대면 회의를 진행한 권역에서는 단원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활동에 대한 설명(보고서 작성 등)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모니터링단에 대한 소속감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어려웠고, 아동의 활동에 피드백이나 도움을 주기도 어려웠으며, 집중력 저하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인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라포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워서 일부 권역에서는 중도탈락한 아동도 더러 있었다. 비대면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권역의 경우 아동들과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면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셋째, 아동 설문조사 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

휴대전화로 참여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며, 아동들은 설문 문항이 어렵고, 문항수가 다소 많다고 느꼈다. 또한, 한아협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였으나 이전에 설문지를 유인물로 배부했을 경우, 회수율이 높았던 반면에 올해 온라인으로 배부한 경우, 직접 회수가 불가능하였기에 참여율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모니터링 활동 기간 제공

3개월 동안 월 1회 활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통주제와 권역주제를 모두 다루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활동기간을 두고 활동에 대한 이해, 상호 적응하고 협동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 초기에 코디네이터와 아동 간에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며, 아동들 간에도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심도 깊은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주제의 수도 기간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하다.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보다 장기로 이루어지고, 사업기관이 계속 변경되기보다 연속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비대면 활동에 대한 준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는 달리 모니터링 활동도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되었으며, 아동설문조사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준비는 충분하지 못해서 단원과 코디네이터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비대면 활동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활동방식과는 다른 비대면에 적합한 새로운 진행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라포형성을 할 수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에 적절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온라인 활동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활동방식을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아동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 내용과 구성의 간소화 및 보고 방식의 다양성 확대

월 1회 활동시마다 아동은 주제에 대한 계획, 이행사항, 소감 등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많은 내용들을 작성하다보니 아동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과도한 문서 작성부담은 흥미를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활동 유인을 반감시킨다. 모니터링 관련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과 구성을 간소화하고, 활동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된다면 보고서도 분기별 1회 정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18년도 동 사업을 진행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보고서의 분량은 줄이고 아동친화적인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서 작성 방식의 다양성을 열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진행된 권역이 적었기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 권역에서 다양한 활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보인다.

4) 아동 설문조사 참여 대안

사업대상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설문 문항 작성시, 교급(초등/중고등)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이해도에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항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기에는 많았기 때문에 20~25문항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5) 비대면 진행시, 아동 참여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참여 아동들이 모니터링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아 중도 탈락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모니터링단 아동들의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우수 아동에 대한 시상, 아동이 책임감을 갖고 활동기간 끝까지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방안 등 아동의 참여도 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단에 대한 소속감이 증대되면 장기간 참여하는 아동도 증가할 것이며, 추후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아동인권 모니터링 활동도 이전과는 다른 비대면 중심의 활동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비대면 활동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동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로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에 대해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회적 재난 속에서 자칫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수 있는 요소 곳곳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며, 특히 학교를 직접 모니터링 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학교가 그리고 사회가 아동인권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아동인권에 대해 알리며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 모니터링활동이 단지 아동인권 문제를 발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인권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추후의 과제이며, 그것이 결국 본 사업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05

부록

■ 모니터링단(LENS) 월별 활동 보고서(사례-공통주제)

공통주제 사례 1

월별 활동보고서(인터뷰)

권역	강원1	성명	김OO
제출일		2020년 10월 31일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현황 및 실태	<p>코로나로 인해 방임 및 방치로 인한 아동 학대가 증가했으나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고 방임 및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며 현재 있는 시설마저도 경제적 부담이 커 사실상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p>		
활동 내용	<p>10월 17일 비대면으로 통화를 해 인터뷰 할 대상과 질문을 만들었다. 10월 26일 온라인 만남을 통하여 OOO고등학교 선생님(학부모)에게 인터뷰를 하였다.</p> <p>Q1. 코로나로 인한 고민을 많이 해보셨나요? A1. 이번 질문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다.</p> <p>Q2. 코로나로 인해 아동 학대가 증가한 것을 알고 있나요? A2. 증가하는지는 몰랐으나 생각을 해보았을 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p> <p>Q3. 코로나로 인해 자식과의 의사소통의 변화가 있나요? A3. 코로나로 인해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져 친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와의 잦은 부딪힘과 지적이 증가하게 되었다.</p>		

Q4. 코로나로 인한 아동 학대의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4.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됐는데 경제적 타격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한테 풀게 되는 것이다 즉, 평소와는 다르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 아동 학대가 생긴다.

Q5.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A5. 아동 학대라는 것은 신체적 폭력 말고도 방임 등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 학대일 것 같다. 그러므로 부모교육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월 29일 온라인 만남으로 청소년 상담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Q1.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A1. %로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알고 있다.

Q2.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아동 학대 유형이 무엇인가요?

A2.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방치(방임)이다. 학부모들이 맡길 곳이 없어서 두고 가거나 아이들이 밖에서 놀거나 방임된 애들끼리 모여있으면서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는 주로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 사람은 학교를 못 보내도 그 이후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도 안된다면 가정은 방치가 된다.

Q2-1. 예를 들면 고용인을 고용한다거나 그런건가요?

A2-1. 그렇죠. 아니면 조부모와 같이 사는 거면 낫지만, 그것도 없는 연가 같은 것을 내지 못하는 학부모가 많으니 돈을 벌어야 하지만,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방임을 하며, 음식을 해놓고 나가기도 하지만 음식이라도 해놓고 나가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p>Q3. 학대당하는 아동들의 주변 환경에 특징이 있을까요?</p> <p>A3. 이게 슬픈 일이긴 하지만 지식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듯이 기본적인 경제력이라는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안정이 된다면 금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춰줄 수 있다.</p> <p>하지만 경제력이 안 되면 거기서 가정불화가 생기기 쉽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감정에 빠져서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방임되게 된다.</p> <p>부모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긴 하다 대체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제력에 대한 문제 있고 부모가 자라온 환경도 중요하다.</p> <p>(자신이 방임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면 자라왔다면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p> <p>이러한 원인은 대대로 이어진다.</p> <p>이것을 누군가 인식하고 끊어내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에 계속되어 이어진다.</p> <p>Q4.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p> <p>A4.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이다.</p> <p>그렇기에 현재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p> <p>또한, 신고가 되고 나서 아이가 다시 가정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호소했던 문제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즉시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Q5. 아동 학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에는 무엇이 있는가요?</p> <p>A5. 부모의 경우 자녀가 혼자 있을 때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고 자녀에게 있어서도 혼자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다.</p>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p>	<p>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아동 학대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코로나나 아동 학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악플보다 무관심이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내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해자가 돼</p>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인터뷰 하기 전 학대의 종류에 대해 청소년 상담사분의 의견처럼 부모와 자식과의 의사소통 단절이나 부모의 관리 소홀로 생기는 방임 및 방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선생님인 공무원과 인터뷰를 했을 때 대답은 신선하면서도 충격을 주었다. “야자도 안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아이와 대화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자꾸 아들에게 푸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것과는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였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위에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의견이 있었다. 그건 ‘아동돌봄시설’ 이었는데 그 가격이 월 120~150 정도 된다고 한다. 이 정도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닌 중산층 가정에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액수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원에 돌봄시설을 강화 혹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장소에서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운영은 6시면 문을 닫는데 시간을 연장하고 신청자를 받아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방치로부터 조금은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통주제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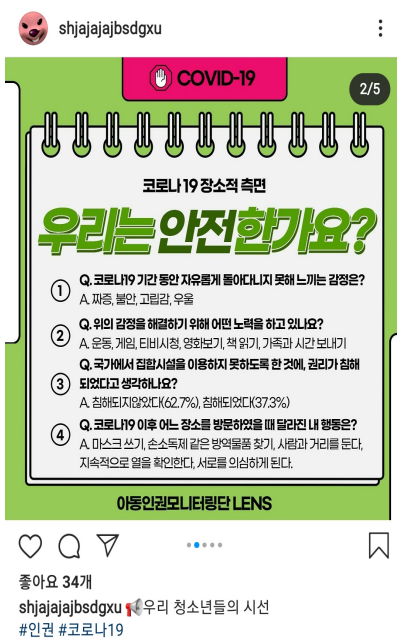
월별 활동보고서(그림)

권역	강원2	성명	김OO
제출일		2020년 11월 9일	
활동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 아동들의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있는가?		
현황 및 실태	8월에 조사한 내용과 9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추가 조사를 종합하여 사회적 재난 속 아동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한 해결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제작하였다.		
활동 내용	3분야 중 나는 교육 파트를 담당하여 건의문을 작성하였다. 교육 정책, 교육 시스템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 아동들이 피해를 본 상황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9월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교육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썼고, 그에 대해 실시간 원격수업, 교육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지원 정책을 해결 방안으로 도출하였다. 두 번째 건의내용은 교육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기관들의 연계 시스템이고 해결방안에 건의 제목처럼 교육청의 연계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교육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재난 속에서도 질 높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적었다. 마지막 건의사항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공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아동들에게 맞춤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며 에듀테크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	코로나19라는 하나의 상황으로 인해 아동들에게 교육 분야에서 이 정도로 많은 피해가 생길지 몰랐다. 건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통해 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의문에 담긴 내용이 아동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한 모든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는 못하지만 많은 곳에 알려져 아동들의 질 높은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p>활동 자료</p>	
------------------	--

공통주제 사례 3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경기1	성명	왕OO
제출일		2020년 9월 10일	
활동 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장소, 식사)		
현황 및 실태	<p>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장소로부터 위협을 겪게 된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실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줄어들 때 더 방역을 잘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p>		
활동 내용	[우리들의 시선] 사회적 재난(장소, 식사)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p>	<p>코로나19 상황 속 장소, 식사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면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과 위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코로나19를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고, 활동으로 인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공통주제 사례 4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경기2	성명	최OO
제출일		2020년 11월 20일	
활동 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상황 속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실시에 따른 빈곤 가정 아동의 교육권 박탈 및 교육격차 실태		
활동 진행 계기 및 설계 과정	<p>1) 개요</p> <p>경기 LENS 단원 최민재와 최윤서는 지난 9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라는 대주제 아래에서, “빈곤층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구체적인 소주제로 정하여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p> <p>인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학생 138명 중 30명을 무작위 선별하여 실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수의 아동들이 COVID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새로운 교육방식인 ‘온라인 교육 체제’를 겪으며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교육권 및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p> <p>비록 그 설문조사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소규모이긴 하나, 온라인교육 시대 아동이 진정 ‘원하는’ 교육방식의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기에 유의미한 것으로 사료됨.</p> <p>이에, 본 10월 마지막 활동에서는,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빈곤층 아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 관련 정책을 실제 구청에 제안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함.</p> <p>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과정을 위해 기존의 법률이나 정책 요소 등을 꼼꼼히 고찰했으며,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아동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였음. 보편적 복지 정책과 선별적 복지 정책을 따로 한 가지씩 제안하였음.</p>		

<p>활동 내용</p>	<p>1. 문제의식 및 계기</p> <p>지난 설문조사에서, 아동의 온라인 교육 불편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60% 가량이 온라인 교육에 불편함 또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개편이 필수적임.</p> <p>구체적으로 아동이 불편함을 겪었던 요인은 ‘교사와의 상호작용 부족’이 가장 컸고, ‘온라인클래스 플랫폼 자체의 오류 및 버퍼링’,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기기의 부족’ 등이 있었음. 이에, 이렇게 아동이 겪는 불편함을 원초적으로 제거하고 질 높은 아동의 온라인 교육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책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함.</p> <p>2. 정책 내용</p> <p>① 과목별 1주 1회 실시간 질문방 운영의 의무화;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중 가장 자신의 교육권 및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낀 부분이 ‘교사와의 상호작용 부족으로 인한 궁금증 및 질문 해결 기회의 박탈’이 있었음. 이에, 이를 개선하고 교사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청 등에서 의무적으로 교사로 하여금 실시간 질문방을 운영하게 해야 할 것임. 과목 혹은 반별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전용 유튜브, 밴드라이브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모두가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p> <p>실시간 수업이 여의치 않은 학생의 경우엔 실시간 질의응답을 녹화하여 영상으로 제작 후 온라인 클래스에 게재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공평한 교육을 보장함.</p> <p>이렇게 학생들과 교사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 1주 1회. 유동적 조절 가능, 학생 자유 참여) 글로써는 해결하기 힘든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게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고, 온라인 교육 시기 소홀해질 수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임.</p> <p>② ‘찾아가는 학교 서비스’; 소규모 그룹별로 맞벌이 또는 빈곤가정 초등저학년 아동이 ‘면대면’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이나 시/구에서 금전, 인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일컬음.</p> <p>온라인 개학과 관련한 큰 문제는, 초등 저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스스로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아이들을 대신해 출석 점검부터 과제 제</p>
--------------	---

출까지 떠안게 됐다는 점임. 이는 자녀의 학습권 및 교육권, 사회성 향상의 계기를 박탈함과 더불어, 자녀의 개학이 '부모 개학'이 되어 부모에게도 엄청난 짐을 안겨줌을 의미함.

이에, '찾아가는 학교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교육 여건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부족)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교육을 소그룹으로 실시하거나, 동사무소나 아파트문화센터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한 장소를 제공하고 직접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에 도움을 주는 등 (플랫폼 사용법 교육, 실제 실시간 수업 채팅 도움 등등),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온라인 교육 시대 학습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선별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농후함.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① 초등 저학년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의 아동 ② 상대적 빈곤 (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 상태에 놓여 온라인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가정의 아동임.

③ 빈곤 가정에 아동 1인당 초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상당의 교육 바우처 지급; 긴급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띠나 '교육'관련해서 '지역 상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중위소득 50%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나이별로 차별을 두고 지급함.

본 바우처는 인근 서점이나 문구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함. 사용기한이 정해져있으나 기간은 유동적으로 조절 가능케 함. 학업적 용도 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함.

이러한 교육 바우처 지급은 1) 아동으로 하여금 금전적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육권 및 학습권 박탈과 관련한 문제를 제고할 수 있고, COVID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님.

4. 기대 효과

① 실시간 질문방 의무화: 학원 등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와 자기주도학습을 위주로 학습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 학습결손을 중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COVID19로 인해 사교육을 하는 계층과 하지 '않는' 혹은 하지 '못하는'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각하다는 자료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p>② 찾아가는 학교 서비스: 새롭게 정의되는 ‘온라인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 토대 역할을 할 만한 제도의 성격을 가짐. 그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띤 정책으로써 특히 사회적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는 데에 본 정책의 효과가 기대됨.</p> <p>③ 교육 바우처 지급: 교육권/학습권 보장이 계층이동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맘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 데에서 교육바우처 지급은 의미를 가짐.</p> <p>필기구부터 문제집이나 책 같은 교재까지 돈이 적잖이 들어가는데 매달, 그런 걸 보조해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면, 정부에서 원하는 부분에 기간 동안 소비가 이뤄질 것이고, 그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도 끌어올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은 학용품을 좀 더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임.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임에 틀림없음.</p> <p>빈곤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본 모니터링 활동의 취지에도 적합한 정책임.</p>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p>	<p>지난 8월 활동에서 가진 문제의식과 9월 활동에서 깨달은 아동이 진정 ‘원하는’ 교육방식의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토대로 이번 10월 활동에서는 COVID19로 인한 교육권 격차를 해결하고 온라인교육의 폐해를 제고하기 위한 3가지 복지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음.</p> <p>“저소득층 대상의 온라인 플랫폼 확충”, “자기주도 학습 향상 및 효율적 홈스쿨링을 위한 바우처 지급”, “교사와의 활발한 질문을 가능케하는 시스템의 마련” 등, 지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직접 언급한 해결책을 국가 정책에 제안하는 데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활동은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에 적합하다고 사료됨.</p> <p>사회적 재난 시대, 그리고 아동에게 찾아온 ‘교육권’과 ‘학습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재난. 사회성을 형성해야하고 학습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할 학생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본 단원은 스스로 ‘아동 당사자’로써, 나의 학습권, 우리의 학습권을 지키고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의 교육격차 문제 또한 해결하기 위한 정부 혹은 교육지원단체 등의 활동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은 바 있음.</p>

총 3개월 간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직접 내 주변 아동들의 권리를 찾고, 무엇이 침해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마침내 정책까지 고안해내는 과정을 거쳤음. 그 과정에서 ‘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짐.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찾고 조사하며 얻은 교훈을 기반으로, 앞으로 삶에서도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부분을 찾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선구자의 자세를 갖고자 함.

아동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고, 세상을 향해 아동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만드는 데에 LENS 활동은 큰 도움을 주었음.

공통주제 사례 5

월별 활동보고서(그림)

권역	경기3	성명	김OO
제출일		2020년 10월 13일	
활동 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현황 및 실태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많은 보호시설들이 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시설속 아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활동 내용	 <p>코로나로 인한 아동보호시설의 아동학대에 대해 포스터를 그렸습니다.</p>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	아동보호시설의 아이들이 학대 등을 안 당하면 좋겠다.		
다음 활동 계획	포스터를 홍보하겠습니다.		

공통주제 사례 6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경남	성명	정OO
제출일		2020년 11월 9일	
활동 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현황 및 실태 그리고 활동 내용	<p>1차] 대략적 자료정리</p> <p>먼저 내가 그동안 조사해왔던 공통주제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p> <p>처음으로 썼던 보고서의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전 후에 아동의 인권보호는 달라진 것이 있는가? -현재의 코로나 사태에서 사생활 보호가 우선인가 국민안전이 우선인가? <p>그리고 이것에 포함하여 인터뷰와 설문조사도 걸 들었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살 동생 인터뷰-> 불편했던 것들 -사생활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청소년 설문조사 <p>다시 한 달이 지난 후 두 번째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속 아동의 안전은 지켜지고 있는가 <p>세부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이 위험하다"...코로나가 만든 사각지대 '가정 내 아동학대' <p>올 1~8월 아동학대 발생건수 19% 증가 가정 내 아동학대 건수도 12% 늘어</p> <p>이처럼 여러 가지 아동들의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p> <p>아이들에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물을 만나 더욱 활개를 친 것만 같아서 공통주제 보고서를 쓰고 있을 때면 괜스레 코로나가 미워져 마스크를 미간까지 푹푹 눌러쓰고는 했었다.</p>		

또 첫 번째 보고서에서의 친구들과 동생들의 코로나에 대한 생각들도 정말 신선했었다.

동생들의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지 알아보니 역시나 자신이 부끄러웠던 일이나 마스크나 공간제한의 불편함, 놀이시설과 교육시설의 제한의 불편함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다.

이 순수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쓸 말이 없어서 참 아쉬웠다.

그리고 내 또래인 청소년들에게 심층있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과를 보는 것도 나름 흥미로웠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답게 국가의 안전과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사생활을 공유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다수였지만, 정작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냐고 간접적으로 질문하였을 때는 망설이는 학생들도 다수였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였다.

또, 사생활 문제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 생각했던 방명록 작성 시 이름과 연락처 기록이 현재 QR코드 입력이나 다른 것들로 기록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좋았다.

최종 대안제시] 내 생각 최종정리

현재로써 가장 진행 상태가 불명확한 필요 법률 개정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장기화 되면서 생긴 가정폭력 급증 문제이다. 정말 가정폭력은 마치 풍차마냥 돌고 돌며, 잊을까 하면 다시 회자되는 큰 문제인 것 같다.

전 보고서에서부터 이야기했듯,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가속 패달을 밟은 범죄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법률개정이나 사회적 제도 마련이 최우선인 것 같다.

권역 주제에서도 촉법소년, 청소년 범죄자의 과잉보호, 등의 청소년 문제와 사생활 침해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는데, 촉법소년 때에 친구들과 한 토의 결과에서도 언제나 결론은 문제에 맞는 법률 개정과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해준다 였다.

이렇게 총정리를 하고 나니 너무나도 간단명료한 것을 보고서로 여러 번 반복하여 쓴 기분이라 허탈하다.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p>	<p>이번에 최종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보고서들을 훑어보니 감회가 새로웠고 내가 했던 활동들이 정말 싹 정리 정돈되는 느낌이었다.</p> <p>이 보고서가 마무리라는 생각에 시원섭섭하고 후련하기도 했다.</p> <p>앞으로 이 활동들을 발판삼아 더 성장하고 싶다.</p>
-----------------------------	---

공통주제 사례 7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그림)

권역	경북	성명	배OO
제출일		2020년 11월 10일	
활동 주제	(공통주제)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재난		
현황 및 실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려진 공간, 즉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 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취약 아동들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18년 통계청에 있는 아동 결핍지수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적지 않은 수의 아동들이 매우 높은 비율의 결핍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 0-8세 9-17세 비율 (%)		
	0개	54.8	53.5
	1개	13.9	14.8
	2개	11.8	11.1
	3개	7.3	8.0
	4개	5.7	4.9
	5개	2.4	2.5
	6개	1.0	1.4
	7개	0.6	1.1
	8개	0.7	0.7
	9개	0.4	1.0
	10개	0.4	0.5
	11개	0.6	0.3
	12개	0.1	0.1
	13개	0.1	0.0
14개	0.2	0.1	
결핍지수			
	31.3	31.7	
〈통계청〉			
*개수가 많을수록 결핍지수가 높음.			

	<p>취약 아동에 대한 결핍지수는 지금도 남아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p> <p>시민사회단체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지난 8월 10~24일 광주와 전남·북 55명을 비롯한, 전국 아동·청소년 9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루에 한 끼 식사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하루 동안 식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하거나 1회에 그친다고 한 아동·청소년은 3.54%(35명)로 조사되었지만 적지 않은 수가 영양 결핍을 앓고 있다. 이 실태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61.5%는 저체중(36%)이거나 과체중·비만상태(25%)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아동들의 수는 현저히 낮았다. 급식지원카드를 받아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청소년들 중에 대부분은 편의점에 있는 식품으로 끼니를 때운다. 이를 통해서 많은 취약 아동들이 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는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재난과 맞물려 상황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p>
<p>활동 내용</p>	<p>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취약 아동들의 결핍 정도를 분석하고 그 자료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는 작업을 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부분인 취약 아동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조건에서 살아가는지를 최근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p> <div data-bbox="602 1152 939 1442" data-label="Image"> </div> <p>“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연우네 가족을 도와주세요!”</p> <p>〈예시〉</p>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p>	<p>사회적 취약 계층인 취약 아동들의 삶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때까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많은 수의 취약 아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런 아동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취약 아동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저 내 인생을 살아가기에 바빴던 것 같다. 취약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자료 수집을 통해서 알아보던 도중에, 나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또래가 처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느끼는 어려움이 그 친구가 느끼는 어려움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 나의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의 멋진 삶을 나와 힘들게 살아가는 아동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쏟아붓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p>
<p>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p>	<p>다음에 Lens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이 무엇인지,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배경,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직접 계획을 세워 보고 싶다.</p>

권역주제 사례 1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서울	성명	한OO
제출일		2020년 11월 9일	
활동 주제	(권역주제) 통학로 안전		
현황 및 실태	11월 6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대가 몰던 오토바이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A군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A군이 다치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활동 내용	지금까지 실태 조사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모은 자료를 정리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학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 및 제안을 할 것이다.		
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p>제안 내용</p> <p>제목 사회적 재난 이후 학습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p> <p>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아동총회 14기 부의장 한성혁입니다. 저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2020 아동권리 당사자 모니터링이라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재난 이후 학습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가운데, 아동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도 학습을 지속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 공간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학습 중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없다는지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적시 제공이 중지되어 간접적으로 아동의 건강이 침해받기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재난 이후 학습 안전에 대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전염이라는 사회적 재난 속 학습 안전에 대해 불편하거나 위험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52.6%가 코로나19 발병 전보다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집 환경이 공부하기에 썩 좋은편이 아니라 독시살을 주로 이용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독시살이름이 불편해졌다.', '학생 신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외출 (학원, 학교에 몇번 들리는 것) 등을 제한 받아서 불편하고 힘들.' 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p> <p>개선방안 학교 내에서의 정기적인 방역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제도와 교육 환경의 형평성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p> <p>기대효과 정기간의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의 교육이 될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 안전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회원 의견</p> <p>처리기관 정보</p> <p>처리기관 교육부</p> <p>수정 취하 인세 목록</p> </div>		

권역주제 사례 2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전북1	성명	한OO
제출일		2020년 11월 11일	
활동 주제	(권역주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과연 안전할까?		
현황 및 실태	<p>최근 익산 코로나 확진자는 10월 29일 20번 확진자 이후로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바뀌고 나서 거의 모든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바뀌게 되었으나, 코로나로부터 느슨하다고 느껴지면서 부쩍 마스크를 쓰지 않는 학생들이 종종 보이기 시작했다.</p>		
활동 내용	<p>10월 28일 동아리에서 드디어 점심시간 캠페인을 활동을 했다. 우드락을 만들 때 함께하지 못하여 친구들과 언니들이 열심히 만든 우드락을 못 봤는데 처음 봤을 때 깔끔하게 설문조사 할 수 있게 간단한 조사 내용과 응답할 수 있는 칸을 잘 나눈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다. 의자와 책상을 끌고 급식소 앞까지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설렘으로 가득 찼었다. 나는 캠페인 설문조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에 있었는데 가장 먼저 먹는 학년이 3학년이라 언니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힘들었다. 소심하기도 하고 아직 1학년이라 언니들을 보고 설문조사 해달라고 말을 꺼내기 어려웠는데 같은 동아리 언니들이 대신해서 열심히 참여하라고 부추겨준 것 같다. 옆에 헤빈이는 열심히 하길래 나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만 계속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학년 어떤 담임 남자 선생님이 '매우 안전하다'에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그 이유를 '내가 있어서'라고 적은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캠페인 하면서 좋았지만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 설문조사 답변 이유를 적을 때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적고 우드락에 붙이는 형식이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붙여진 포스트잇도 너무 많아서 한 주먹 정도의 포스트잇은 거의 버려진 것 같았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p>	<p>우드락에 포스트잇을 붙이는게 조금 버거워서 다른 방안으로 다시 시도했으면 좋겠다. 또한, 설문조사를 모두 하면 상품으로 그림톡 선착순 100개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무엇이든 충분히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다.</p>
<p>다음 활동 계획 (구체적 작성)</p>	<p>11월 7일에 익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모여서 다같이 재능 기부를 했다. 몇몇은 대형 종이 장미꽃을 만들고 몇몇은 귀여운 악세사리를 만들고 기부해 준다고 하였다. 10월 28일 나누어 주셨던 걱정 인형 만들기도 하였다. 사실 내가 손재주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예쁘게 만들지는 못한 것 같지만 받은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만들었다. 11월 7일을 끝으로 활동을 끝냈다.</p>

권역주제 사례 3

월별 활동보고서(인터뷰)

권역	전북2	성명	김OO
제출일		2020년 11월 16일	
활동 주제	(권역주제)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황 및 실태	초등학생(8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19세)까지 교과서에 있는, 정해진 지식을 가지고 주입식 교육을 받는다. 이런 교육방식과 맞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공부라는 단어 자체에 싫증을 느낀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2020년 10월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활동 내용	<p>권역 주제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 인터뷰지를 만들었다.</p> <p>인터뷰를 하기 위해 먼저 교육청에 전화를 드렸으나, 학생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학생 인권 센터에 전화를 돌려보라고 하였다.</p> <p>학생 인권 센터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교육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는 할 수 없었지만 인터뷰지를 이메일로 보내서 답변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일정으로 인해서 처음에 실패했었던 교육청에 연락을 다시 해보았으나 결과는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p>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	<p>이번 10월 활동에선 학생들이 아닌 교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려고 모니터링 활동을 같이하는 친구와 열심히 인터뷰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인터뷰지를 가지고 교육관련 종사자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교육관련 담당자와 시간도 맞지 않았고 인터뷰에 협조해주지 못했다. 마지막 활동인 달이라서 준비도 시간을 내서 많이 했는데 인터뷰를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크다.</p> <p>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신의 능력을 더욱 펼칠 수 있을 것 같다.</p>		

권역주제 사례 4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권역	제주1	성명	장OO
제출일		2020년 11월 4일	
활동 주제	(권역주제) 나이로 인한 차별		
현황 및 실태	<p>(1주차)</p> <p>설문지 지문 구성에서 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처음에 받았던 설문지에 형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성별, 연령대, 연령차별의 정의, 연령차별을 당해보았는지 등의 질문을 구글 프레젠테이션 앱에 작성해보았다.</p>		
	<p>(2주차)</p> <p>종이 설문지 19장을 조사하였다. 보통 여성 응답자가 많았으며, 14~16세의 연령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대부분이 연령차별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며, 연령차별 경험도 생각보다 적었다. 경험하거나 본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러 단톡방에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인터뷰는 5명을 진행하였는데 연령차별을 뉴스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알게 되었다고 했고, 법률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거의 모든 응답자가 바라는 점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p>		
	<p>(3주차)</p> <p>3주차 때는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이 진행되어 인터뷰를 거의 하지 못하고 온라인 설문지를 최대한 배포하였다.</p>		
	<p>(4주차)</p> <p>아동을 위한 제안사항을 많이 생각해보았다. 우선 첫 번째 노키즈존에 대한 제안사항에선 노키즈존이라고 애초부터 단정짓지 말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 때 퇴장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바꾸는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보았다. 그리고 기사나 자료들이 연령차별을 잘 모르는 어른들이 많</p>		

	<p>이 볼 수 있는 곳에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새로 생각한 제안사항으로는 보통 신호들의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 어른들의 보폭의 평균으로 시간을 정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아슬아슬하게 불이 꺼져서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신호등의 불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을 아이들의 보폭의 시간까지 모두 더한 평균으로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제안사항으로는 나이를 밝히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캠프나 활동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나이를 밝히면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이 생기니 연령차별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나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조금은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p>
<p>활동 내용</p>	<p>(1주차) 모두 입장한 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자 근황 나누기 2. 000부터 준비한 내용 발표 시작 3. 000가 준비한 인터뷰 지문 발표 4. 000가 준비한 전체적인 인터뷰 방향 발표 5. 000가 먼저 준비한 설명글이랑 설문조사 지문 내용 발표 6. 개방적인 질문에 대해 논의 7. 지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하기로 결정 8.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 9.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에게 설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정 <p>(2주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000가 인터뷰한 학생이 연령차별을 당한 사례를 발표함 2. 000가 설문지 결과가 의외라고 발표 3. 000는 온라인으로 학교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랑 설문지는 다음주에 진행하기로 함 4. 000가 인터뷰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설문지 7부정도 받아왔다고 발표 5. 000는 학부모와 전문가를 인터뷰한 내용을 활동보고서를 보며 발표 6. 000가 오프라인 설문지는 끝냈고 인터뷰는 5명, 온라인설문지도 많이 돌렸다고 발표 7. 각자 제안사항 발표

	<p>(3주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주일간 더 진행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발표 시작 2. 000가 또래 친구 2명 인터뷰한 내용 발표 3. 000도 인터뷰한 친구 1명 내용 발표 4. 000는 또래 남자를 인터뷰했는데 또래 남자애가 기분 나쁜 표현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기억에 남음 5. 000는 7,10살 아이를 인터뷰했는데 확실히 어렵다 보니 연령차별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6. 000는 이번주에 학교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인터뷰는 거의 하지 못했고, 온라인 설문지를 많이 배포하려고 노력했다고 발표 7. 000는 친구랑 통화하다 갑자기 나온 얘기라 녹음은 하지 못하였지만, 친구와 나이 차별을 당한 사례와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발표하였다. 8. 설문조사 결과 확인 9. 아동 제안사항 논의 <p>(4주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금까지 나온 아동제안사항 읽어보기 2. 그 내용에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합칠 내용 정리 3. 다 같이 읽어보고 하나하나 따져서 제안사항 만들기 완료 4. 선생님이 내용 말고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제안사항이 있냐고 질문 5. 내가 2가지 새 제안사항 발표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및 건의사항</p>	<p>(1주차)</p> <p>설문지와 인터뷰 내용을 만들며 경험을 쌓으며 좋기도 하였지만 온라인으로 하다보니 내용정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부족하였던 것 같아서 아쉬웠다.</p> <p>(2주차)</p> <p>설문지와 인터뷰를 하며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예상 외의 답변도 있어서 놀라움도 있었다. 하지만 학교도 격주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인터뷰 같은 부분에서 할 시간이 많이 없어 아쉬웠다.</p>

	<p>(3주차)</p> <p>2주차때 보다 학교가는 날도 사람 만나는 일도 적어서 활동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화 통화로 라도 인터뷰를 해보려고 했었고(녹음내용이 날라감), 온라인으로라도 설문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포하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다.</p> <p>(4주차)</p> <p>엄청엄청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하니까 기분이 되게 찡찡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의 수고를 보상받은 기분일까. 같이 얼굴 보면서 진행하니까 집중도 더 잘 되고 그러다 보니 제안사항도 더 줄줄 나왔던 것 같다. 제안사항을 발표하고 고치면서 뿌듯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p>
--	---

권역주제 사례 5

월별 활동보고서(인터뷰)


권역	제주2	성명	안OO
제출일		2020년 11월 1일	
활동 주제	(권역주제) 관광도시 제주,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황 및 실태	<p>생태도시 제주가 생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신공항 건설은 제주의 관광지화를 본격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p>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에 진행하였던 설문조사에 따른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는 회의를 가졌다. -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할 것으로 선정한 질문에는 예전 설문조사 결과로 조금은 의문점을 품게 된 것들이 있었다. - 학교에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단원별로 3명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인터뷰 결과로는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타 앱을 이용하여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점심은 거의 거르고 미디어 사용을 더 많이, 오래하게 된다고 답을 하였다. -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의견 역시 미디어 사용 시간의 결과와 비례하였다. 혼자 시간을 보내며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어났고 유튜브나 게임 등을 한다고 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친구들과 만나지 못 한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인간관계 등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하였다. - 수면 시간의 증가가 바람직한가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p>답했다. 평소 학업과 학원 등에 의해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메신저 등을 잘 보시지 않아 온라인 수업 시, 힘들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 아침과 점심을 구분하여 먹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아침과 점심을 함께 먹는, 일명 ‘아침 겸 점심’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부모님 등, 보호자가 일찍 출근을 하는 가정일 경우에는 빵이나 편의점 음식 등으로 끼니만 대충 채우는 학생들도 꽤나 많았다. - 권역별 주제인 ‘관광도시 제주,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설문 문항을 제작하였다. 설문 문항은 자연환경이 아동의 생존, 발달, 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초점을 맞추어 제작하였다. 설문은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사용하여 신성여중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제주의 매력은 어디서 느끼는지 물었을 때,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자연환경’에서 매력을 느낀다고 답을 하였고 예전 즉, 어렸을 때의 제주와 지금의 제주가 많이 달라졌다고 응답을 하였다. - 자연환경이 건강과 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그래프 절반을 넘어서게 차지를 하였다. 또한, 정서적 발달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눈에 띄게 많았다. - ‘비자림 확장 공사’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반대를 한다고 답을 하였고 10.7%의 비율로 몇몇 학생들은 모르겠다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찬성에 대한 비중은 거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심했다. - 같은 결과로 신공항의 건설과 동물 테마파크도 반대를 한다는 결과가 많았다. 또한, 제주의 도시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였지만, 20.8%의 학생들은 찬성을 한다고 답을 하였다.
--	---

	<p>- 관광지로서 제주에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학생들이 꽤나 많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유를 물었을 때 주된 답변은 소음과 쓰레기였다.</p>
<p>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p>	<p>대부분의 학생들은 제주의 관광지화와 도시화에 반대하였지만, 몇몇 학생들은 '제주도 관광지가 싫지만, 도시화 되는 건 좋다'라고 답했다. 도시의 편리함과 세련됨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p> <p>만약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관광객 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주도는 제주 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이고 굳이 다른 도시와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내 삶의 영역이라 공기처럼 느껴지는, 어쩌면 가장 무심하게 대해지는 내 삶의 터전인 제주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활동이 되었다.</p>
<p>다음 활동 계획</p>	<p>단원별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이에 대한 토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의 후 최종보고서 제작을 위해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p>

권역주제 사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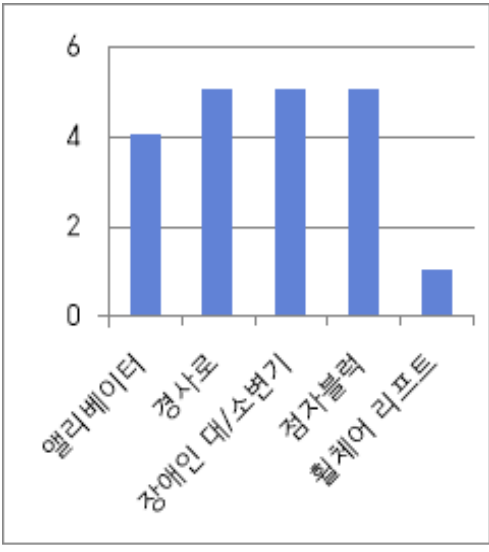
월별 활동보고서(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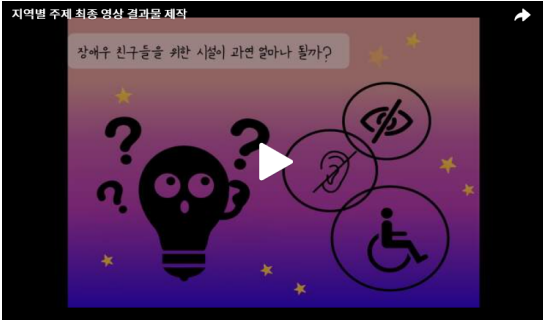
권역	충남	성명	11명
제출일		2020년 11월 10일	
활동 주제	(권역주제)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현황 및 실태	<p>사람들이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견이었다.</p> <p>그리하여 모니터링단은 아동들이 어른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을 추려서 아동권리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p>		
활동 내용	<p>저번 시간에 '아동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문제에 대한 아동들의 제안사항'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p> <p>또한, 논산 시민공원에 나가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피켓 2개와 현수막 하나를 제작하였는데, 피켓에는 '아동은 코로나 상황 중에도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라는 글귀를 적어 코로나 상황에서의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해 강조했다. 또 현수막에는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라는 글귀를 적었다.</p> <p>'학교 앞 흡연', '코로나와 학대', '학교 앞 불법 주정차'라는 3개의 주제에 대한 제안사항을 작은 종이에 적어 간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p>		
그림			



권역주제 사례 7

월별 활동보고서(일반, 영상)

권역	충북	성명	신OO												
제출일		2020년 11월 20일													
활동 주제	(권역주제) 학교 내 장애아동시설														
현황 및 실태	<p>지난 회의에서 만든 설문지를 온라인(비대면)을 통해 배부하고 설문조사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설문 자료를 통계하고, 여기서 확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회의해 보기로 했다.</p>														
활동 내용	 <table border="1"> <caption>설문자료</caption> <thead> <tr> <th>시설명</th> <th>설문자료</th> </tr> </thead> <tbody> <tr> <td>엘리베이터</td> <td>4</td> </tr> <tr> <td>경사로</td> <td>5</td> </tr> <tr> <td>장애인 대/소변기</td> <td>5</td> </tr> <tr> <td>점자블럭</td> <td>5</td> </tr> <tr> <td>휠체어 리프트</td> <td>1</td> </tr> </tbody> </table>			시설명	설문자료	엘리베이터	4	경사로	5	장애인 대/소변기	5	점자블럭	5	휠체어 리프트	1
시설명	설문자료														
엘리베이터	4														
경사로	5														
장애인 대/소변기	5														
점자블럭	5														
휠체어 리프트	1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점	<p>우리가 이 주제를 시작할 때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설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 있었다.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느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소한 부분에서 온다는 것이다.</p>														

<p>우리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및 건의사항</p>	<p>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았던 것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문고리’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돌려서 사용하는 문고리는 모두 오른손잡이용이다. 왼손으로 문고리를 돌리려고 한다면 몸을 꺾어야 한다. 교내 시설 중 팔이 불편한 장애아동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을 어찌면 미달이문일 것이다.</p>
<p>영상</p>	



2020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 인쇄일 | 2020년 11월
| 발행일 | 2020년 11월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아동청소년인권과 02)2125-9644
| F A X | 02)2125-0929
| 제 작 | (주)두루행복한세상 (070) 5659-0803

ISBN 978-89-6114-779-8 93330

비매품